

시로 읽는 성보순례
갈항사삼층석탑 이야기
국보 제99호 갈항사삼층석탑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9월 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10호 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희망세상 우리 함께 걸어요"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10월 7일 부산 초읍 어린이 대공원에서 제4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걷기 대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생명나눔부산지역본부장 원범 스님(선암사 주지), 생명나눔 이사 자인 스님을 비롯 장기 기증 회원 및 후원 회원, 투병 중인 환우와 그 가족 그리고 일반 시민 등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추대

원로회의 41차 회의서 만장일치로… 부의장 지종 · 명선 스님

조계종 제8대 원로의장에 현 부의장 밀운 스님이 추대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10월 10일 제41차 회의를 열고 차기 의장단 선출과 종헌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로 스님들은 차기 의장에 밀운 스님(봉선사 조실)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수석 부의장에 지종 스님, 차석부의장에 명선 스님을 각각 추대했다. 회의에서는 지혜 스님을 제외한 23명의 원로 스님들이 참석했다.

밀운 스님의 임기는 12월 11일부터 5년간이다.

의장으로 선출된 밀운 스님은 1934년 황해도 연백에서 출생했다. 1954년 경북 영주 초암사에서 대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비로사에서 무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71년 봉선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7년 비로사와 봉선사에서 교과 수료했으며. 1982년 스리랑카 승가사범대학 미투라 박사학위(삼장법사), 1983년 스리랑카 국립 푸리베나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동국대 행정대학원과



밀운 스님



지종 스님



명선 스님

198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발전정책과정을 수료했다.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안거한 스님은 제 5. 6. 7. 8. 9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부원장, 봉은사 · 봉선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총무원 부원장 때는 경승단 창립을, 봉은사 주지 때 현재의 봉은사 땅을 되찾은 장본인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현 의장 종산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종단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사부대중이 종단 안정과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는 5대결사와 쇄신위원회의 뜻을 협조해 이 시대의 종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선대 스님들의 선업과 공덕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종단 쇄신에 대해 20여 차례가 이뤄졌고 일정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시간이 걸리는 사안들은 현재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 소위원회가 상정한 종헌 개정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차기 회기로 이월됐다.

신중일 기자



세종시 불교포교 대책 시급

제2행정수도, 세종시 시대가 열렸다. 총리실 산하 6개 부서가 9월 14일과 15일 입주했으며,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세종시로 가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모두 36곳이다. 총리실을 물론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부처와 기관 12곳이 이전한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18곳이 둥지를 옮길 예정이다.

서울시에는 입법부, 사법부, 외교부 등 5개 부처만 남는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규모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세종시를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세종시 출범은 충청 지역의 종교 지형도 변화를 가져왔다.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 일부의 사찰과 교회들이 세종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찰의 경우 80여 곳이 세종시에 편입됐다. 이에 맞춰 지역 불교계는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환)를 출범하고 9월 15일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 수환 스님은 "기존의 연기군사암연합회와 공주, 청원군 사찰들이 모여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로 재창립했다"며 "지역민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인근에 있는 주요 사찰로는 구절초 축제와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장군산 영평사와 세종시청 인근의 황룡사, 천년 고찰 비암사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영평사의 경우 변화하는 종교 지형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의뢰해 사찰 발전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세종시사암연 9월 출범
아직은 '각자도생' 수준
종교분양 용지 불교 전무
개신교단, 교회 개척 잇달아
종단적 장기 대책도 필요

영평사 관계자는 "영평사는 이미 구절초 축제와 템플스테이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 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는 세종시 출범과 관련한 사찰 발전방안을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내년 초에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재된 사찰은 적지 않지만, 세종시 전반의 불교 포교 정책을 이끌 수 있는 거점 사찰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종교부지의 분양을 통해 구심력을 가질 수 있는 사찰 건립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도 여의치 않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는 지난 8월 종교용지(협의양도, 일반 수요) 41필지를 분양했고 현재는 13필지가 분양됐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불교는 한 곳도 분양받지 않았다. 현재 13필지 중 8필지는 개신교 단체가 일반 개인이 3필지, 천주교 1필지, 원불교 1필지 입찰을 통해 분양받았다.

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관계자는 "일반 수요자가 입찰해 분양받은 토지는 종교를 알 수 없지만 현재 집계된 현황을 보면 불교 관련 용지는 분양되지 않았다"며 "아직 종교용지에 대한 분양 수요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실제 예장합신총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와 같은 개신교단들은 세종시에 개척 교회를 건립을 이미 준비 중이다. 이미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포교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불교가 세종시에서 마저도 교세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구 밀접 지역 포교 활동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마곡사, 수덕사 등 인접지역 교구본사와 종단적 장기 대책이 시급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남태규 마곡사 종무실장은 "인근 지역 사찰과 스님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포교기금을 모연하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역 본사만으로는 힘이 부치는 부분이 많다. 총무원에 세종시 전법회관 등을 설립할 것을 제안해봤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남 종무실장은 "세종시는 정부중앙부처가 입주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본사보다는 직접 종단과 사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종단 차원에서 세종시 포교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초대합니다

창간 18주년 산사의 별미 체험

불교의 수행 정신이 담긴 사찰음식은 소박한 재료로 자연의 풍미를 그대로 살린 건강식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서울 은평구 진관사와 공동으로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며 시식할 수 있는 '산사의 별미 체험기행'을 마련했습니다.

장소와 실습 공간이 한정된 관계로 창간 18주년에 맞춰 18분만 선착순으로 초대합니다. 사찰기행을 겸한 이번 행사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10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 은평구 진관동 354 진관사
▲내용 : 사찰음식 실습 및 별미 체험
▲접수마감 : 10월 24일(선착순 마감)
▲신청접수 : (02)2004-8212
▲참가비 : 3만원
▲계좌 : 국민은행 245-25-0001-46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8주년 특집 48면 발행

A 종합 2 · 3
조계종, 교육원 · 삼장원 · 정토원 추진
공직자 종교차별 75%, 국감서 지적
시방세계 5
조계종 교육원 경주 남산 불적 답사
신행 6
전국 사찰 개산대재 일정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 28
① 양곤-쉐다곤 파고다

B 특집 · 사이버 신행&포교
사이버 신행&포교 현황과 과제 1
신행카페 / 주목 불교계 '이 카페' 2 · 3
사이버 교육 4
스마트폰 시대 6 · 7
인터넷 미디어 8
사이버 포교 제언 9
석전 박한영 축전 10
덕암 스님 탄생 1백주년 대법회 11

법인 설립공고 및 복지법인 회원종단 등록안내

본 복지법인과 산하 법인에서는 인연있는 종단과 전국사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등록 가입비는 일체 무료이며 법인 목적 사업에 따르는 최소 경비를 후원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신앙총연합회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대명 | 법인종단관리위원장 무공 | 중앙종회의장 보각 | 대외협력위원장 성철 | 회장 각운 | 총재 각성 | 기획실장 양범수 | 영업이사 양위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412호
전화 02)2198-5022(代) 2198-5023-4 팩스 02)2198-5025 H.P 010-4167-3666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www.kntga.or.kr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99호 갈항사삼층석탑



갈항사삼층석탑 이야기

조영순

영묘사 언적 법사 남매가 올렸죠 갈항사삼층석탑 일제 때
바다를 건널 위기를 넘겼지요 그랬었죠 경복궁 한 뜰에
등지를 틀다 다시 박물관 안뜰에 옮겨졌지요 그랬었죠 버
려지고 틀어지고 몸 속 꽁꽁 숨겨 두었던 둔 보물 다 털렸
지만 주먹을 쥐고 맞서지 않지요 바람과 물로 허기를 채
운 자리 지키지요 그랬었죠 맺은 인연 깊어 금오산 골짜
기로 가는 마음 그대로죠 매일 밤 4번 국도 김천 길 갈항
사지 다녀오는 길이죠 시절 따라 옛 절터 과수원 고추밭
담배밭 이름 바꾸었지만 과즙은 터지고 풀꽃 향기 넘치고
있지요 돌담과 돌담 사이 나이든 감나무 울타리 아귀 틀
린 돌담이 해바라기 하는 곳 저수지 돌아 돌탑 지나 당산
나무 지나 코는 무너졌으나 눈매 아직 살아 애잔한 석조
여래 앉은 자리 산 꿩 푸드득거리는 윗발지나 집 짓고 한
번도 마른 적 없는 우물곁이 내 자리죠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조영순 시인은… 1998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새들은 난간에 기대산다〉, 〈슛〉 등

조계종 안거문화, 경율론·참법으로 확장

교육원, 삼장원 · 정토원 설치 추진… 25일 공청회

조계종이 선원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 안거 문화를 탈피해 경율론 연찬과 염불 수행, 참법 기도 안거를 추진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0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거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설 수행기관은 2곳으로 경장 · 율장 · 논장 · 선어록 등을 연찬하는 '삼장원'과 염불수행과 참법을 수행하는 '정토원'이다.

수행방법은 3개월 안거를 원칙으로 하며, 수행기관으로 정한 처소에서 대중생활을 하며 매일 8시간 수행해야 한다. 삼장원은 1일 3시간이상 참선수행과 강의, 토론, 경전합송, 간경 등을 하게 되며, 정토원은 1일 3시간 이상 염불정신, 참법수행, 정토관련 경전을 연찬한다.

또 교수 · 정진대중 · 교육시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종단 수행기관으로 인가할 계획이며, 삼장원과 정토원에서 안거이력도 각종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수행이력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종헌에 따르면 선원 이외에도 수행기관으로 염불원과 참회

범어사, 실상사 시범 운영
교구본사 주지 관심 높아
내년 하안거부터 시행 목표
교수 아사리 참석 세미나도

원 및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 이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다양한 수행법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현재 한국불교는 지나치게 깨달음을 중시하다보니 참회와 성찰이 약화된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다. 안거제도 다양화에 따라 수행내용에 큰 변화가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행이력을 인정하는 것이 기존 수선안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수행이력은 수선안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또 삼장원과 정토원 수행이력은 전산을 통해 관리될 뿐, 전국선원수좌회의 〈방함록〉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거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11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보고됐으며, 대다수의 본사 주지 스님들은 안거문화 다양화 등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선 · 교 · 율 연찬을 위한 안거제도'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는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이 참석하며,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조계종림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등이 토론자로 발표한다.

교육원은 12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중 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로 보내 2013년 3월 종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하안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년 동안거 중 부산 범어사에 〈선문촬요〉를 중심으로 한 삼장원을, 남원 실상사에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삼장원을 각각 시범운영한다.

한편, 교육원은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이 시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주제로 '종단 출범 50주년 기념 조계종 교수아사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계율과 불교윤리 ▷대승불교 ▷선불교 ▷초기불교 ▷참여불교 등의 시각으로 현재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방침이다.

발제자로는 자현, 혜명, 월호, 금강, 각묵 스님 등이 나서며 적멸, 명법, 영석, 정도, 지관 스님 등 교수아사리 스님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쇄신안 미약… 근본 대책 마련하라"

사부대중연대회의, 조계종 쇄신 촉구 기자회견

재가연대 1000일 결사 추진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조계종의 근본적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0월 8일 북인사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종단 쇄신안에 대해 비판하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계종 스님들의 범계 행위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 미봉책만 표명될 뿐 근본적인 쇄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종단의 고위층은 사부대중의 요구를 묵살하고 시간 끌기만 하고 있으며 일부 세력은 이들을 비호해 자익을 챙기면서 절박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종단 차원의 '범계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해 범계행위를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현 종단 책임자들은 대중이 갖는 의혹을 해소 할 수 없다면 모든 소임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근본적 종단 쇄신안을 만들거나 못 할 경우 조직을 해체할 것 ▷자익을 챙기려는 일부 재가자들은 사태를 직시하고 근본적이고 진정한 쇄신에 동참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이수덕)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000일 재가결사'를 선포했다.

천일재가결사는 매월 4회 이상 스스로 날을 정해 계를 지켜나가게 된다.

신중일 기자



사부대중연대회의는 10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종단 자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재 환수 전문가 지혜모은다

문화재청, 16~17일 문화재 환수 국제회의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전택수)와 공동으로 10월 16~17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문화재 환수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서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지난 7월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여론 조성 방안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호주의 린델 프롯 퀸즐랜드대 교수, 그리스의 마리아 블라자키 문화부 유물 및 유산국장을 비롯해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문화재제자리찾기 공동대표 혜문 스님 등 국내외 각국의 환수 전문가 ·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민간단체 등 각계 환수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환수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망을 논의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6일 오후 2시, 그리스 문화부와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 개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전문가 회의의 양국 순차 개최 등 본 회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양국 정부의 협력 방안이 담긴다.

노덕현 기자

손 안에서 만나는 불교 콘텐츠

조계종 포교원, 에브리원TV와 채널 보장 협약

조계종포교원(원장 지원)이 미디어포교 활성화를 위해 방송을 제작, 송출한다.

조계종포교원은 10월 9일 '포교원TV' 설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현대 HCN은 모바일 방송 채널인 에브리온TV에서 (가칭)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TV의 108번 채널을 보장한다.

또 포교원의 방송콘텐츠 제작에 대한 기술기능 협조 및 포교원 콘텐츠의 화질 개선, 용량압축 등 콘텐츠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포교원 행사에 대한 실시간 방송도 편성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대해 포교원은 "채널확보로 포교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미디어 포교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1367주년\2012\
개산문화대재
불기 2556년 10월 23일 火 (음 9월9일)
| 차별없는 베풂 |
만발공양

예경의 장
가사배견 10월 20~23일
전계식, 부도헌다 10월 22일
괘불이운 · 헌공, 법요식 10월 23일
학술의 장
개산학술세미나 10월 20일
새싹의 장
사생대회 10월 21일
재롱잔치 10월 22일
찬탄의 장
문화공연 10월 20일
괘불탱특별전 10월 21일
작은음악회 10월 21일, 23일
나눔의 장
만발공양 10월 20일
바자회, 장터, 체험행사, 국화장엄 10월 20~23일
영축총림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 382-7182 팩스 055) 382-7196 www.tongdosa.or.kr

진관사, 국행수륙재

13~14일… '국민평안' 기원

북한산 진관사(주지 계호)가 조선시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수륙대재 시연회를 개최했다.

진관사와 사단법인 진관사수륙재보존회는 10월13~14일 경내에서 '국행수륙대재'를 봉행했다.

국행수륙대재는 조선시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봉행된 행사를 계승한 것으로 낮재와 밤재 2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낮재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자리이며, 밤재는 부처님과 보살님을 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모든 영가에게 시식을 베푸는 의식으로 진행된다.

국행수륙대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영가를 맞이하는 시련 의식을 시작으로 대령, 관욕,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 법문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14일에는 수륙연기와 사자단, 오로단, 상단, 중단, 하단, 봉송회향 순으로 봉행된다.

진관사는 "21세기는 문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며 앞으로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우리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보존에 힘쓰고, 향후 지역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봉행"

민추본-조불련 10월 13일 개성서

남북불교교류 활성화와 민족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합동 법회가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는 10월 13일 오후2시 '금강산 신계사 복원 5주년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이하 남북합동법회'를 봉행됐다.

이번 남북합동법회는 지난 10월 5일 조계종 민추본과 조불련이 개성에서 가진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민추본은 "올해 들어 방북을 통한 남북공동행사로는 처음 갖는 행사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남북불교도의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굳건한 신뢰관계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조계종 민추본은 10월 11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 5주년을 기념하는 '금강산 신계사 발굴조사보고서(3차~6차)'를 불교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간했다. 또한 10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의 문화유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정혜숙 기자

종교차별 75% 학교서 발생

배재정 의원, 7일 문광부 국정감사서 지적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 중 종교차별로 판정된 민원의 75%는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배재정(민주당) 의원이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2008년 10월 설치된 이후 신고된 건수는 152건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9건, 2009년 59건, 2010년 39건, 2011년 17건,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8건 이었다.

이중 처리결과를 보면, 종교차별에 해당되어 시정요치를 받은 건수는 12건이었고, 차별은 아니지만, 개선 검토 및 권고를 받은 경우는 68건 이었다.

종교차별에 해당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 12건 중 75%인 9건은 모두 학교에서 일어났다. 개선 검토 및 권고를 받은 민원 68건 중 26.5%인 18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2011년 12월 광주광역시 00고등학교 영어교사는 학생들에게 00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지상파 시사다큐멘터리를 청취시켜 종교차별로 판정됐다.

2011년 3월 서울시 모 중학교 수학교사는 수업시간 중 아이들에게 기도하기를 강요하며 학생들에게 교회 관련 영상물과 찬송가를 들려줘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직원 채용 임용지원서에서 종교 기재로 인해 종교차별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00청소년 수련관장은 서울시립 00청소년 수련관의 '2012년 방과후 아카테미 직원 채용' 시 직원 임용지원서에 종교를 게재토록 해 종교차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배재정 의원


전병헌 의원

시정 조치도 학교 비율 높아

금강산관광 중단 손실 지적도

2조원 피해… 조속히 재개해야

배재정 의원은 "헌법 20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특정 종교를 폄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직원 채용에서 종교를 고려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문방위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10월 11일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금강산, 개성관광 중단과 북한의 자산 동결조치로 피해규모가 2조 284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현대아산이 시설투자로 들어간 돈이 7천690억원, 매출손실이 6천 297억원 등 총 1조 3,988억원으로 나타났고, 민간협력업체 피해액은 3,318억원, 강원도 고성군 1,421억원 등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군의 경우 금강산 육로관광의 중단 때문에 관내 관광객이 2007년 621만 명에서 2011년 483만 명으로 급감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직자들의 전출로 인해 인구가 10년 만에 8.1% 줄기도 했다.

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또한 자산동결 900억원, 매출손실 106억원 외에도 금강산 개발 과정에서 차입한 남북협력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금액만 224억원에 이르러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 여행사들이 항공, 육로, 해상을 이용한 북한 관광상품 개발 ▷'북한의 중국의존도 심화' ▷'한반도 경제협력 기반의 약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교계와 시민단체, 기업, 지차체 등은 지난 9월 5일 금강산 관광 재개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했으며, 상임 대표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추대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환경 · 인권 등 15개 분과… 400여 실무진 구성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5대 집행부 출범

제25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환경 · 종교평화 · 인권 등 15개 상설위원회와 400여 명의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각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50여 명은 10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집행부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신도회가 발표한 임원 및 실무진은 상임고문 10명, 고문 23명, 명예회장 1명, 지도위원 83명을 포함해 약 400여 명이다.

분과별 15개 상설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책 · 기획에 하복동 前 감사위원 △정무에 이성규 前 서울경찰청장 △교육 · 포교에 김동기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미디어 박진열 한국일보 부회장 △봉사 · 나눔 · 복지 이두형 한국여신금융협회장 △전통문화 · 예체능 김태근 국립도서관장 △노동 · 인권 · 장애인 신명 전 국회의원 △환경 · 생태에 이인정 前 네팔대사 △남북 · 국제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여성 · 청소년 권윤방 아시아댄스스포츠연맹 회장 △교구조직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직능조직 우방우 대한수상스키협회장 △재정 · 마케팅 박준현 삼성자산운용사장 △종교평화 · 법률구제 최정수 김앤장 대표 변호사 △사서 · 대변인에 임장수 경제인불자연합회 상임부회장이 선임됐다.

각 위원회는 부위원장 2명과 교계 유관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1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또한 조계사 · 봉은사 · 도선사 · 한마음선원 등 9개 수도권주요사찰 신도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25대 신임 집행부를 보면서 중앙신도회가 각계각층 전문 분야성을 띄고 한국불교 포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며 "불교포럼과 중앙신도회가 양대 산맥을 이뤄 불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적극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신도회는 핵심사업 추진부분 및 전략 단계별 사업목표와 비전 등을 발표했다.

한편 제25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임 집행부는 10월 13일 오후3시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이 · 취임식을 가졌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10월 국화축제를 앞두고 서울 종로 조계사가 사찰을 단장하고 있다.

가을 산사, 문화로 물들다

조계사 등 전국사찰 10월 문화축제 잇달아

전국 사찰들이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지역과 연계한 축제 등 풍성한 문화행사를 펼친다. 사찰 문화행사는 매년 업그레이드되면서 콘서트, 연극, 전시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11월 10일까지 전남 함평군과 제2회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를 경내에서 개최한다.

개막식이 열리는 17일 오후 6시에 유진박, 숀리, 김수희 등이 출연하는 '꽃이되어요' 음악회가 열린다. 18일 오후 6시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극단 '빨래터' 단원들의 연극 '경로당 폰팅사건'이 공연된다. 20일 오전 10시에는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가,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야운'과 '들구름' 악단의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노래로 듣는 부처님 말씀 '흑백낙서' "가 진행된다. 23일 오전 9시 30분에는 법향나눔 국화영산재가 봉행되며 15~22일까지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이 팔정도를 주제로 법문한다. 또한 16~24일에는 함평군농 · 특산물 50여 품목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열리며, 행사기간동안 국화분재 등을 상시 판매한다.

공주 갑사는 10월 27일 경내에서 영규대사 추모재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추모재는 임진왜란 시 구국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와 800여 호국의승의 넋을 기리는 의식으로 오전 11시 대웅전 앞에서 봉행되며, 오후 1시부터는 '제11회 갑사 산사음악회'가 진행된다. 공연에는 계룡대 여시아문 합창단, 육군군악대, 5인조 아이돌 보이즈 등이 출연한다.

한국불교태고종은 10월 18일 경기 양주 청련사 특설법회장에서 '제2회 태고문화축제'를 봉행한다. 태고보우국사 탄신 711주년 다례일을 맞아 열리는 행사에는 1부인 헌다의식을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영산재 시연이 선보인다. 2부 희망나눔 태고문화콘서트에서는 국립국악원 풍물놀이패의 풍물공연과 초청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강원 오대산 월정사는 10월 19~21일까지 월정사에서 '생명 · 평화 · 명상 치유의 한마당' 축제를 연다. 19일에는 법고시연, 승무를 시연하며 보살계 수계 대법회,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의식, 생명살림 방생 대법회가 봉행된다. 20일에는 오대산 단풍길을 따라 걷는 '오대산 천년 숲 옛길 걷기'와 찬불가 합창제 및 금혼식과 시음송회가 진행된다.

양주 오봉산 석굴암은 10월 20일 오후 1시 30분 경내특설무대에서 '제5회 단풍음악제'를 개최한다. 음악제에는 인기가수 임수정, 이상우씨와 30사단 군악대가 출연하며 국악인 리애지씨가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경주 골굴사는 10월 20일 오후 1시부터 경내에서 '제10회 화랑의 후예 골굴사 전통무예대회'를 개최한다. 택견, 기천, 선무도 등 한국전통무예 시연과 성악가 정율 스님이 출연하는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구미사암련, '불산 피해' 성금 전달

행사준비금으로 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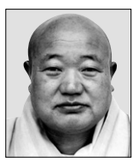
최근 불산가스 노출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구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역 사암연합회가 나섰다.

구미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법성)는 오는 11월 개최 예정했던 전통불교예술제를 취소하고, 행사 준비금 600여만원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구미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전액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일 주 문



제5차 화엄21 천도법회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0월 29일 합천 해인사 제5차 화엄21 천도법회에서 법문한다.



석가모니 가사 친견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0월 20~23일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부처님과 자장율사 친착가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자녀소통 인성 교육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10월 21일 마곡사 연화당에서 자녀소통 인성교육 '아빠, 내마음을 알려주세요'를 개최한다.



선묵원 연수회 개최
풍경소리 대표이사 혜자 스님은 10월 20일 충주 선묵원에서 연수회를 실시한다.



지구촌아동 위한 나눔 콘서트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10월 16일~23일 조계사와 함께 지구촌 빈곤아동을 위한 문화제를 조계사 앞마당에서 연다.



삼존불 점안법회
광주 용문사 주지 성종 스님은 10월 20일 용문사 대웅보전 낙성식 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62)531-3888



여성리더십아카데미 개강
윤여준 평화교육 원장은 10월 19일부터 여성리더십아카데미를 평화재단 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일타문도회 "돈관 스님 주지 재추대"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10월25일 예정된 가운데 일타문도회가 현 주지 돈관 스님의 재추대를 결의했다. 이에 은해사 현 주지 돈관 스님의 재임이 확실시된다.

장적·덕조 스님 등 동곡일타문도회 손상좌 대표 10명은 10월 12일 성명을 통해 "조계종은 본사주지 선거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승가공동체 회복을 구현시키고자 지난 종회에서 산중총회법을 개정했다"며 "이에 은해사 동곡일타 손상좌 일동은 산중총회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현 주지 돈관 스님을 합의추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은해사는 10월13~15일 주지선거 입후보자를 등록받아 10월25일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자를 결정한다.

신중일 기자

"재가불자회 활성화에 매진할 터"

제 27대 인천불교총연합회 신임 회장 덕해 스님



"인천지역 28개 종단의 화합을 통해 수도권의 관문 인천에서 부처님 법을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인천불교계를 이끌 새 수장이 선출됐다. 인천불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선, 능인사 주지)는 10월 10일 인천 숭의가든에서 제 27대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천태종 황룡사 주지 덕해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덕해 스님은 선거에서 찬성 16명, 무효 1표, 반대 1표로 당선됐다.

회장에 선출된 덕해 스님은 종단화합을 통한 불법홍포를 강조했다. 기독교가 첫발을 디딘 인천은 타종교세가 강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때문에 인천지역의 불교포교를 위해서는 종단을 초월한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덕해 스님은 "인천지역에는 28개 종단의 630여 사찰이 있다"며 "다양한 종단의 신도들을 합하면 50여 만명에 달하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그 무엇보다 인천불자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 때"라며 "인천 전 지역 사암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재가불자로 구성된 총연합회 임원진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덕해 스님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에 인천불교계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인천시는 재정난에 봉착한 상황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종교계, 시민사회를 축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덕해 스님은 "2013년 인천아시안불교대회와 함께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불교홍보관을 운용해 활발한 포교활동에 나서겠다"며 "500만의 관문인 인천에서 도심 포교의 새 장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타종교에 비해 인천 불교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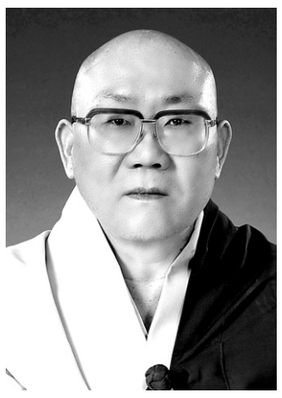
덕해 스님은 "신도 모임인 재가불자회 활성화와 함께 사회단체 연계 등을 모색해 인천불교계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종교간 갈등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고 교류를 넓혀 인천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초의차 보급에 앞장 서겠다"

용운 스님 茶명인 선정



"초의 선차에는 인류정신문화의 정수가 담겨있습니다."

40년간 한국 차 문화 운동을 펼친 용운 스님〈사진〉이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에 스님을 '초의차·초의병차' 분야의 명인으로 선정했다.

스님은 조선시대 차문화를 이끌어온 초의선사의 제다법을 체득 초의차와 초의병차 제조를 전수받아 계승·발전시켜왔다.

용운 스님은 "초의 선차를 통한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1980년 초의선사의 차와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초의선사 헌다제를 봉행했으며, 1981년부터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한국언론연구원에서 한국전통차와 사상에 대한 강의를 했다. 국내서 초의차, 초의병차 보급운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1989년 차문화 잡지인 월간 〈다담(茶談)〉을 발행 우리나라 일반대중과 애호가들에게 차에 관한 전문지식과 차문화·정신을 보급해 왔다. 2009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린 세계녹차컨테스트에서 초의차로 최고 금상, 2010년에는 초의병차로 금상을 수상해 한국 전통차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초의차 행다법 시연과 초의차 무료시음행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다. 또한 G20정상회의 때는 '한국 다도의 날'을 정해 'TEA-ART 대전'을 직접 주관 전통다도 시연과 전통 초의차 무료시음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한일 우호 증진위해 기증"

日오카 노부타카 화백, 유물 158점 기증



"일본화는 한국화와 연결돼 있습니다. 공부를 위해 모은 한국화를 이제 한국에 돌려드립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일본 전통화가 오카 노부타카 화백〈사진〉이 한·일 우호증진을 위해 평생동안 모아 온 한국 유물을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해 화제다.

동국대는 오카 노부타카 화백이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12층 롯데갤러리에서 열리는 자신의 전시회 '한국·왕궁의 사계-미의 원류를 찾아서' 첫날인 10월 10일 평생 모아온 한국 유물 158점을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했다.

오카 노부타카 화백은 일본 전통화가로 영국 대영박물관 등 세계 각지 박물관에 유물 기증 공로로 2000년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명예상 중 하나인 감수포장(紺綬褒章)을 수상한 바 있다.

오카 노부타카 화백은 "한·일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평생을 모아 온 한국 유물을 기증하기로 결심했다"며 "2013년에 개관 50주년을 맞이하는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카 화백은 "한일 문화는 15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감수성을 양국 국민들이 소중히 생각하며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응천 동국대 박물관장은 "민간차원에서 일본인이 대학 박물관에 기증한 첫 번째 사례"라며 "잠시 경직된 한일 관계에도 민간교류는 지속되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병원비 모아 승려복지기금 기탁

원로의장 종산 스님, 1천만원 쾌척 '자비행'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10월 11일 승려복지기금으로 1천만원을 총무원에 기탁했다.

스님은 이번 기금 기탁은 의장 재직 중 여러 스님들이 병원비로 보내준 보시금을 모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종산 스님은 "여러 스님들의 도움이 있어 건강이 빨리 회복돼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수행정진하고 있다"며 "그간의 마음의 빚을 승려복지기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금강대 화합한마당 펼쳐



금강대(총장 정병조)가 10월 11일 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전교생과 교직원, 외국인 학생 등 500여명이 한마음으로 어우러지는 '개교 10주년 금강인 화합 한마당' 체육행사를 펼쳤다.

이날 열린 화합 한마당에서는 학과별 학생, 외국인학생, 교수, 직원들이 함께 조를 이뤄 줄다리기, 축구, 농구, 족구, 피구, 계주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주일 기자

대한불교종정협, 대전회관 현판식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는 대전회관을 매입하고 10월 8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회장 월인 스님을 비롯해 회원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동 동부상가 맨션 2층 216 - 1호에 소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유홍준 교수, 시민 대상 미술사 강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인 유홍준 명지대 교수는 10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한국 미술사 강의'를 진행한다.

유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의 보물과 유물의 제작 배경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얽힌 일화를 통해 한국 미술사를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범어사 개산 1334주년

선문촬요 달마대사 "혈맥론" 대법회



법회를 열며...

범어사에는 유형문화재 29호 "선문촬요책판"이 있습니다.
금년 개산대재를 맞이하여 100년만에 간행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혈맥론 강의 대선지식이신 범어사 조실 지유대선사를 모시고 선문촬요 혈맥론 대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수희 동참하시어 복전을 일구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6년 10월 좋은 날

선찰대본산 범어사 주지 수불 합장

법사 지유 대선사(범어사 조실)

일 시 : 불기2556년 10월 19일 (金)~ 10월 26일 (金) 오전 10시
장 소 : 범어사 대웅전 및 보제루

내 용	장 소	일 시
선문촬요 법회 입재 및 봉정식	대웅전	10월 19일(금)
선문촬요 혈맥론 법회	보제루	10월 20일(토) ~ 25일(목)
개산대재 및 정대불사	대웅전	10월 26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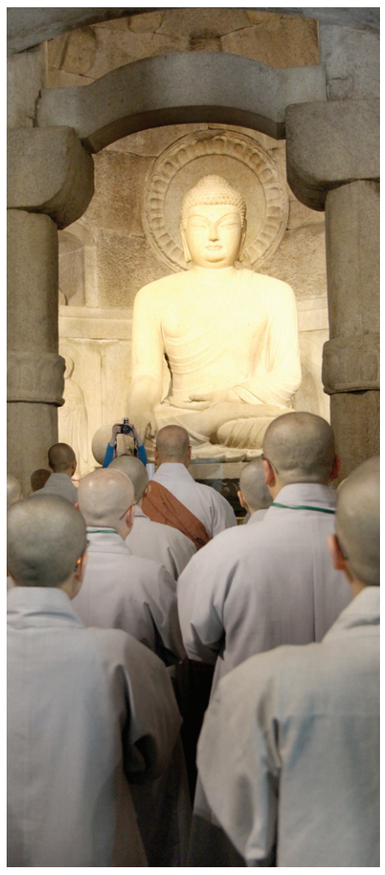
■ 법회 동참금 : 5만원(교재제공) ■ 선문촬요(영인본) : 150,000원

大韓佛教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문의 및 접수 : 범어사 원주실
☎ 051)508-3636



조계종 교육원은 10월 5일부터 7일 경주 일원에서 2012 하반기 승려연수교육으로 경주 남산 불적 답사를 진행했다. 종단 연수교육 사상 첫 답사 교육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이 높았다. 사진은 경주 남산 석조여래좌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2차 교육은 10월 10일~12일에 진행됐다.



답사 연수 교육에 참가한 스님들이 석굴암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다.



산벼랑 위에 조각된 마애관음보살입상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 스님들. 이 처럼 답사는 교육과 예불이 함께 진행됐다.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아찔한 기암에 새겨진 마애불은 지금도 경주를 굽어보며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스님들 '古都 경주 천년 불교' 걸어서 만나다

르포 – 조계종 교육원 경주 남산 불적 답사 현장

신라 천년 고도(古都) 경주에 자리한 남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남산은 말 그대로 불국토다. 산 곳곳에 147개의 절터와 120여 구의 불상, 99기의 석탑과 22기의 석등이 천년 신라의 시간을 간직한 채 산재돼 있다.

이 같은 '불국토' 경주 남산의 불교 유적을 77명의 비구, 비구니 스님이 발로 만났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2012 하반기 승려연수로 실시한 '경주 남산 불적 답사'를 통해서다. 종단 승려교육 사상 처음 시행된 이번 답사 연수 프로그램은 1차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열렸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신라문화원에서 맡았다.

10월 5일에는 입재식과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과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연구소장이 강의가 진행됐으며, 안압지와 첨성대를 체험해 보는 행사를 가졌다.

연수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6일에 진행된 경주 남산 불적 답사. 서남산에서 출발한 77명의 비구, 비구니 스님들은 초입의 삼릉(三稜)을 거쳐 냉골 석조여래좌상, 일명 불두 없는 여래좌상을 만났다. 머리가 없는 부처님이지만, 어깨로부터 내려오는 가사의 선이 뚜렷하고 선명하다.

바로 위에는 마애관음보살입상이 자리하고 있다. 세월의 풍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지만 호상과 수인만은 뚜렷하다. 아슬아슬한 산벼랑위에 조각된 마애 관음보살은 오묘한 미소를 지으며 수많은 시간을 넘어 지금도 중생을 굽어보고 있다.

마애관음보살입상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마애선각육존불이 있다. 마치 병풍을 쳐 놓은 듯한 바위에 아미타삼존상과 석가삼존상을 각각 새겼다. 마애불이지만 선각으로 이뤄져 있다보니 조각이라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운 형상이다. 또한 육존불의 위로 오르니 부처님들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한 물꼴과 천정을 만들었던 흔적들이 보인다. 표면이 불규칙한 바위 위에 펼쳐진 자유로운 필치의 조각뿐만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선현들의 열정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스님들은 모든 불상을 만날 때 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예를 표했다. 또한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필기하거나 카메라로 녹화하며 답사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사이 사이 불상에 대한 진지한 견해와 질문들도 오갔다.

산 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이 가파라진다. 사실 경주 남산은 해발이 500m가 안되는 낮은 산이지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산은 아니다. 울퉁불퉁한 바위와 보기만 해도 아찔한 기암들로 이뤄진 험로(險路)는 산을 오르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한다.

승려 연수교육 첫 답사 시행
남산 동서종주하며 성보 만나
다양한 강의, 체험도 진행돼
스님들 만족도 높아 발전 '기대'

한 무리의 바위 군을 헤치고 나오니 단아하게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보인다. 이 석조여래좌상은 훼손히 심했다. 불두는 떨어져 다시 붙였고, 광배는 군데군데 깨어져 보수한 흔적이 많았다. 그래도 바위와 나무로 둘러쌓인 터에 조화로운 배치가 눈에 들어온다.

양대 봉우리 중 하나인 금오봉을 오르는 길 사이에는 남산에서 두 번째 큰 마애불인 상선암 마애대좌불이 있으나 지금은 생태 보존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돼 있다. 스님들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금오봉 정상 아래로는 용장사지로 가는 길이 있다. 이 길도 만만치 않은 험로다. 가장 먼저 삼층석탑이 눈에 보인다. 그 아래로 용장사지와 삼륜대좌불상이 자리하고 있다. 전각과 불상보다 탑이 위에 있는 구조도 특이하지만, 무엇보다 남아 있는 유구들의 독특한 조형 방식이 눈길을 끈다.

삼층석탑의 경우 하층 기단이 없고, 바로 상층기단으로 이어진다. 용장사 삼층석탑은 200m가 되는 기암을 기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채 5m가 되지 않는 탑으로 하늘에 다다르려 한 조상들의 염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남산의 동쪽 봉우리 고위봉은 능선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 동남산에서 가장 유명한 불적 중 하나가 칠불암이다. 칠불암은 '일곱 분의 부처님이 있다' 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곱 분의 부처님은 마애삼존불과 그 앞 사방불로 구성돼 있다.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고부조로 만들어진 칠불암 마애삼존불은 현재 아쉽게도 보수 중이어서 면모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답사에 참가한 스님들은 일곱 분의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으로 그 아쉬움을 달랬다.

이날 불적답사는 염불사지와 남산동 쌍탑을 끝으로 경주 남산을 동서로 종주하며 마무리됐다. 그 길이로만 10여 km에 달하는 강행군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없이 답사에 임했다. 새로운 형식의 교육 도입은 참가 스님들에게 높은 만족도로 다가왔다. 특히 전문 강사의 설명 들으며, 경주 남산을 둘러볼 수 있었다는 데 스님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관암 스님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오늘을 계기로 신도들과 경주 남산을 둘러보는 새로운 신행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본해 스님은 "사실 경주 남산에 오를 일이 없었고, 이번에 기회가 닿아 참가하게 됐다"며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며, 성보들을 답사했다. 무엇보다 경주 남산의 왕경계 불교미술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답사 내내 가사, 장삼을 수하고 의식을 집전해 온 신흥사 도감 선효 스님은 "경주 남산의 유구들을 보며 집전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져 왔다"며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거창 신원사 총무 돈오 스님과 김제 귀신사 총무 명지 스님도 "'불국토' 경주 남산의 불교 문화재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였다"며 "이 같은 교육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원은 이런 스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권의 답사 코스 개발하고 연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원 연수국장 진광 스님은 "여태까지 모든 승려 연수가 실내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기획된 것이 답사 교육"이라며 "스님들이 이 같은 불교 유적을 통해 새로운 것을 느끼고 이를 자신의 삶과 수행에 투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연수를 위탁 운영한 진병길 신라문화원장도 "이번 연수를 통해 경주 남산이 스님과 신도들의 성지순례 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1차 답사 교육은 석굴암, 불국사 참배와 회향식을 가진 후 마무리 됐으며, 2차 교육은 10월 10~12일까지 진행됐다.

경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율종) 불교 조계종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역경원장 :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사서실장 : 대산 혜산법종 중앙선원장 : 도일

■원 로 원 :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종 회 의 장 : 백공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총무부장: 천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정대
재무국장: 묘현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총무과장: 남산
교육원장: 원광
교육부원장: 광덕
의식원장: 보운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중산청목
기획원장: 진성
기획실장: 노사나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월성
규정국장: 영암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서산
감찰원장: 상산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국장: 수산
감찰1국장: 무아
감찰2국장: 인산
감찰3국장: 봉산
비구니 회장 : 지성
부회장: 해월, 혜산, 월산
부장: 묘현
총무: 정해
재무: 도은, 향인
교무: 현타,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보현
포교: 보명, 홍산
강원: 덕산, 원산
복지: 정해, 보현
감찰: 본각, 련성
불화: 혜담, 인산, 진화
의식: 영산, 지해, 수옥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정산
서울남부종무원장: 보덕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덕산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남종무원장: 혜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경남종무원장: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중부종무원장: 정오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울산종무원장: 혜공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중산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일봉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삼화불교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묘현,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조덕연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관불, 해인, 묘현,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삼화불교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설주성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덕연
기획실장: 조일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조계종삼화불교.kr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신문: www.jogaejong.or.kr
삼화불교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개산조 가르침 기리며 새로 발심해요





전국 사찰은 개산대재를 열고 개산조의 사상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사찰 법통을 바로 세우며 기도·강의 등 불자들의 신심고취를 위한 행사도 마련한다. 사진은 2005년 범어사(좌)와 2008년 동화사(우) 개산대재 모습.

전국사찰, 개산대재 맞아 수계·신행활동 마련

가을의 한복판에 들어서는 10월, 전국 주요사찰의 개산대재가 잇달아 봉행된다.

산문(山門)을 연다는 뜻의 '개산(開山)'은 불교에서 풍치있고 기운 좋은 터를 골라 절을 짓고 유구히 전해온 생명 정신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대중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쓰인다. 각 사찰은 개산대재를 통해 개산조의 사상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사찰의 법통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관음기도, 경전강의, 수계법회 등을 통해 불자들의 신심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도선사… 33일간 7관음기도

범어사… 7일간 혈맥론 강의

석왕사… 6바라밀 실천법회

봉선사·금산사… 보살수계법회

서울 도선사는 10월 17일 개산 1150주년을 맞아 개산대재와 청담문화제를 비롯한 7관음 33일기도 법회를 봉행한다. 10월 한달동안 국화축제를 여는 도선사는 대웅전 특설법단에서 입제식을 봉행한다. 이번 7관세음 기도는 말 머리를 한 모습으로 축생도를 교화하고 제도한다고 알려진 마두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진행된다. 도선사는 기도에 동참하는 불자들에게 〈관음기도 독송집〉을 나눠주며, 주지 혜자 스님이 7일마다 '옴마니 반메 훔' 낙관을 직접 새겨준다.

서울 봉은사는 개산 1218주년을 맞아 10월 15~17일까지 개산대재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 봉은사는 17일까지 경내에서 템플문화한마당, 특별사진전 '당신은 부처님', 보이차 전시 및 체험, 초의다법시연, 행복한 나눔 여여-특산물장터, 무료차보시 행사를 한다. 또한 31일까지 사부대중이 함께 가꾸는 '국화 꽃길 공양'을 경내에 마련한다.

남양주 봉선사는 10월 21일 봉선사 개산대재 및 보살계수계 대법회를 연다. 경내에서 괘불이운식과 역대조사 헌공다례식이 열리며, 월운 스님을 증명법사로 보살계 수계 산림대법회가 진행된다.

부천 석왕사는 10월 15~22일까지 중창 35주년을 기념하는 '6바라밀 실천법회'를 마련한다. 주지 영담 스님이 법사로 나서 6바라밀인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바라밀에 대해 매일 한 주제씩 법문한다. 또한 석왕사는 21일까지 경내에 농수산특산물 후원장터와 바자회를 열며 트랜스픽션, 최백호, 남궁옥분이 출연하는 부천시민음악회를 개최한다.

부산 범어사는 개산 1334주년 개산대재 법회를 10월 26일 오전 10시 범어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범어사는 선찰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10월 19~25일까지 오전 10시 설법전서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을 강사로 '혈맥론' 강의를 마련한다. 26일에는 〈선문촬요〉 영인본(影印本) 경전을 머리에 이고 도량을 도는 '정대불사'를, 27일에는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생명존중 행복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양산 통도사는 창건 1367주년을 맞아 10월 20~23일 통도사에서 개산문화대재를 봉행한다.

개산대재(開山大齊) 법요식을 비롯해 전통 불교의식인 괘불이운(부처와 불보살을 그린 큰 탱화를 행사장으로 모셔옴), 고승들의 부도탑에 차를 올리는 부도헌다례, 음악회, 괘불탱 특별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20일에는 개산기념세미나와 문화공연이, 21일에는 사생대회와 이주노동자 공연 및 음악회가 열린다.

영월 법흥사는 10월 20일 창건주 자장율사와 사자산문 개산조 절중 국사의 수행정신을 기리는 낙성식 및 '10만등 밝히기 5차 천일기도 회향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는 5회에 걸친 천일기도를 통해 법흥사 중흥불사를 위한 10만개 등불을 밝힌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가을작은 음악회'도 함께 연다.

김제 금산사는 11월 3일 경내에서 창건 1413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조사전에서 역대조사에 대한 헌다례와 부도전 참배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기념대법회, 보살계 수계식, 만등불사 점등 및 관등법회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 진관사**는 10월 13~14일 개산 1002주년을 맞아 경내에서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을 천도하고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불교의식인 국행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전국 사찰 개산대재 및 행사일정

사 찰 명	행 사 내 용	일 시	연 락 처
서울 도선사	7관음 33일기도 법회	10월 17일	(02)993-3161
서울 봉은사	개산대재 맞이 템플문화한마당, 특별사진전	10월 15~17일	(02)3218-4800
남양주 봉선사	개산대재 및 보살계수계 대법회	10월 21일	(031)527-1951
부천 석왕사	'6바라밀 실천법회'	10월 15~22일	(032)663-7771
부산 범어사	개산대재법회 및 '혈맥론' 강의	10월 19~25일	(051)508-3122
양산 통도사	개산문화대재 및 개산기념세미나	10월 20~23일	(055)382-7182
영월 법흥사	낙성식 및 천일기도 회향법회	10월 20일	(033)374-9177
김제 금산사	개산대재 및 보살계수계 법회	11월 3일	(063)548-4441

올 겨울, 미국 청소년들과 견문 넓히자!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가 청소년들을 한국불교 인재로 키우기 위해 미국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는 12월 21~31일까지 미국 서부지역에서 '제2회 한·미 청소년 세계불교문화유산행사'를 실시한다.

참가학생들은 정범 스님, 지호 스님(美 불광선원지도법사), 형전 스님(美 보리사 주지)를 지도 법사로 LA태고사, LA정혜사, 샌프란시스코 보리사 등을 순례한다. 또한 UC버클리, 스탠포드, UCLA 등 유수 대학과 그랜드캐년, 실리콘 밸리 등을 방문해 견문을 넓힌다.

한국 15명, 미국 15명 등 총 30명의 청소년을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 문의는 홈페이지(www.dourim.net)를 통해 하면 된다. (02)733-8985 이나은 기자

영어로 불교교리 강의 개설

동국대 국제선센터, 영어강의

불교기초교리를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10월 16일부터 매주 4주간 화·목요일 동국대 외국인 교수를 초청해 △5계 △3법인 △4성제 △8정도 △인과 △소승·대승불교 △종교문화 △포교 등을 영어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제선센터는 "불교를 전공한 외국인 교수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불교와 영어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2260-3891

이나은 기자

성철 스님 열반 19주기 팔만사천배 정진

해인사 백련암(주지 원택)은 성철 스님 열반 19주기를 맞이해 '칠일칠야 참회법회'를 봉행한다.

백련암은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10월 27일~11월 3일까지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는다. 입재는 10월 27일, 회향은 11월 3일 오전 7시 같은 시간 고심원에서 열리며 삼천배 참회기도는 11월 2일 오전 10시 성철 스님 사리탑에서, 추모재는 11월 3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다. 기도방법은 매 두시간 단위로 일천배가 이어져 팔만사천배가 이루어지게 되며 누구든지 원하는 날과 시간을 선택해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께서는 '불교의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니, 남을 위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참회기도를 하라'고 말씀했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051)464-0068 이나은 기자

수원 용주사, 정조대왕 주제 공모전

조선 정조대왕의 효행정신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정신을 기리는 공모전이 마련됐다.

수원 용주사(주지 정호)는 한신대학교와 공동주관으로 '2012 정조문화상 공모전'을 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논문, 수필, 사진을 11월 10일까지 공모한다.

수필부문은 정조·다산의 효행정신과 실학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제로, 사진부문은 정조·다산 관련 행사 등을 주제로 접수받는다. 수상자에게는 특별상 300만원, 논문·수필·사진 부문 각 500만원(대상), 200만원(우수) 등이 주어진다. http://jjds.kr (031)234-0163

충북파라미타청소년協, 가족 캠프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사무국장 연복흠)는 청주시와 문화재청 후원으로 10월 20~21일 정북동 토성 생생체험 1박2일 캠프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충북 청주 정북동에서 대장장이체험, 풍등띄우기, 무심천 생태답사, 토기만들기 및 발굴체험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정북동토성은 미호천변 평야에 흙으로 쌓은 성으로 9세기 말~10세기 초에 축조됐다는 설이 전해지며, 한국 초기의 토성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가족, 단체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cbjikimi.org)를 참고하면 된다. (043)224-5256

봉 축

당 선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선거에서 제 27대 회장으로
당선되신 "대한불교 천태종 황룡사 주지 덕해스님께"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인천불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본 연합회 이사회 이하
인천지역 모든 재가불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불기 2556년 10월 12일

사단법인 인천불교 총연합회 이사회
인천재가불자총연합회 회원 일동

인천불교총연합회 각사찰 신도회장단, 인천불교연합합창단
인천지방청불자회, 인천시공무원불자회, 법원불자회
인천교직원불자회, 인천공항공사불자회, 인천중부서불교회
봉사단체보광회,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 인천지부

건봉사 만일염불회 기도 입재

만일염불회는 서기 758년 발징화상께서 정신, 양순스님 등을 통하여 1만일 (27년 5개월) 동안 염불수행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행복한 삶을 위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할 것을 기원하는 법회를 하였는데 만일이 되어 회향하는 날 기도에 동참했던 스님 31인이 건봉사를 중심으로 1.5km 지점까지 허공위로 날아가 육신은 땅에 버리고 정신은 서방정토에 극락왕생한 이적을 남기셨던 염불대법회로써 금강산 건봉사에서는 이 기도법회를 다시 재현하고자 정현 주지스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전국 만일염불회를 다음과 같이 입재합니다.



◀ 만일염불회 3년 기도안내 ▶

◇ 입재 : 2012년 11월 28일 (음,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회향 : 2015년 11월 26일 (음,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만일염불원
◇ 기도동참금 : 한 가족당 백만원 (분납가능)
◇ 계좌번호 : 농협 247-01-251767 예금주 건봉사
◇ 접수 : 건봉사 종무소 (전화 033-682-8100 팩스 033-682-5994)
◇ 매월 2주, 4주 토요일 철야 기도정진

매일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만일염불 기도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치아사리 봉안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한 달 만원이면 네팔 학생 공부 가능"

향운사 자비공덕회, 60여 네팔 어린이 후원

"저의 목표는 궁핍한 가족들을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는 강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저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 가난한 사람들이 허덕이는 것을 방치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9월 22일 오전 10시, 북한산 자락 수유리에 있는 작은 암자 향운사에 30여 불자가 모여 네팔 학생에게서 온 편지 내용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중풍을 앓는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책임지며 소년 가장으로서 어려움을 딛고 살아가는 사빈 당이(Sabin Dangi · 19) 군의 사연을 들으면서다.

이들 모임은 자비공덕회. 자신들이 매일 아침 집에서 남을 위해 기도를 하며 모은 성금으로 사빈군을 비롯한 네팔 학생 60명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자비공덕회(회장 명조)는 향운사 주지 명조 스님과 지상 스님의 원력으로 2009년에 설립된 작은 봉사단체다. 두 스님은 수유리에 있는 가정집을 개조해 법당 겸 숙소로 사용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명조 스님은 10년 동안 심장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모임을 이끌고 있다. 회원들은 명조 스님이 나눠준 '개인 보시함'을 받아 매일 아침 납을 위해 기도를 하고 보시함에 성금을 모은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보시함을 털어 향운사에 모여 '남을 위한 기도법회'를 갖는다.

회원들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0시 향운사 법당에 모여 명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자비공덕회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한다.

"남을 돕는 일에 많은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모금 되는 즉시 실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첫 사업으로 네팔 어린이 학자금 후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명조 스님은 심장병 환자 등 국내 어려운 이웃돕기도 생각했지만 30여 명이 모은 성금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다 마침 네팔관광청 한국 사무소장 케이피 시토울나(K. P, Sitoula)씨를 알게 됐고, "한 달에 1만원 정도만 후원하면 네팔 어린이 1명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비공덕회는 2010년 1월부터 네팔 동부 칸첸중가 기슭에 위치한 버드러칼리 학교에 다니는 12명의 네팔 어린이를 선정해 이들이 초 · 중 · 고 전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12명의 어린이는 자비공덕회가 네팔에 심은 최초의 '희망의 씨앗'이 된 셈이었다.

처음에는 기금이 적어 10살 이하의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 자비공덕회 취지에 공감한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모여 후원자는 현재 100여 명에 이르렀고, 60명의 네팔 학생이 12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명조 스님은 "처음 모임을 시작했을 때 심은 12명의 '희망의 씨앗'이 60명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보람과 행복은 진실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향운사 자비공덕회는 2010년 1월부터 12명의 네팔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해 현재는 60명의 초 · 중 · 고 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사진은 2010년 10월 버드러칼리 학교를 방문한 자비공덕회 회원들과 명조 스님(두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자비공덕회 장학금 대상자 선발과 관리는 매우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네팔 현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현지 주민 6명이 장학생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어린이들의 가정환경, 학교성적, 품행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한국 자비공덕회가 송금한 장학금은 한국 자비공덕회와 버드러칼리학교 공동명의 네팔현지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은행계좌의 자금 인출은 학교장, 지역주민장학생 선발위원, 회계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된 자금은 매월 학생들에게 1000루피(한화 약 1만3000원)씩 지급되며, 학생들의 영수증과 은행잔고장은 자비공덕회에 보고하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네팔에 전해지자 거리가 먼 곳에서도 버드러칼리 학교 다니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케샵 사르마(Keshab C. Sharma) 버드러칼리학교 교장은 자비공덕회에 보낸 감사 편지를 통해 "이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고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오직 이곳 뿐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공부를 하고자 열망하는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며 "비좁은 컴퓨터 교실에서 4~12학년생들이 줄을 서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오전 · 오후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받고 있다. 많은 네팔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받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자비공덕회는 "장학생 수혜 대상자를 2013년부터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기금이 더 모이는 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비공덕회 후원: 국민은행 354601-04-080007 (예금주:자비공덕회)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buddhajb (02)905-7175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 정신 토대로 복지 모색"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설장 워크숍 개최

불교사회복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종단산하 사회복지법인 대표 · 시설장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조계종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장 성웅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120여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장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굳건한 신심과 원력으로 복지터전을 일궈낸 결과 1200 복지시설과 100여 전문 복지관련단체, 수십만의 불교 자원봉사자들이 오늘날 대승불교의 실천 행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2의 도약기를 맞은 불교사회복지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민관 · 기업과 협력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하며, 양적 확산보다는 불교 유 · 무형적 자원을 토대로 불교복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혁 교수(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가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제'를,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과)가 '21세기 한국사회와 불교적 리더쉽'을, 최종환 사무국장(조계종 사회복지재단)가 '2012 국민의 선택, 불교복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 했다.

최종혁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무자들은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서비스 실천은 단일조직, 전문가에 의하기 보다는 다양한 조직과 상호 연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용 교수는 "불교는 초세간적 종교이기에 현실적인 복지에 무관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라며 "나눔과 보시에 의해 조직과 집단이 함께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도모하는 것이 불교적 리더의 근본자세"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이날 워크숍에는 조계종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장 성웅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120여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장이 참석했다.

스님이 되고 싶은 청년을 도와주세요

생명나눔, 10월 선정환자 유동욱 씨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잠시 방황도 했지만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절에 다녀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다 출가를 결심했고 2010년 5월 서울서 고속버스를 타고 안동의 한 사찰로 향했다. 승복을 입고 책 몇 권을 싼 짐이 다 였던 유동욱(남 · 31)〈사진〉씨는 갑작스런 버스사고로 유리창 밖으로 떨어져 뇌출혈을 입었다.



훤칠하고 성실한 아들이 자랑스러웠던 부모님은 아들이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들이 나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문제는 월 평균 175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다. 유동욱 씨는 사고당시 고속버스 승객으로 과실이 없는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적용도 못 받아 병원비를 본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1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치료비와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어머니의 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소외계층 · 지역 다문화 어린이 함께해요

이웃을 돕는 사람들, 제3회 '성장희망 프로그램' 실시

경불련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지현)이 제3회 성장희망 프로그램(3rd WITH GROWING HOPE PROGRAM)을 개최한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10월 20~21일 동대문구 구립 '희망만들기 방과후교실' 어린이들과 김천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 6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2012년 사회복지 및 NGO단체 공모사업 '저소득가정지원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행사는 도시의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방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인공으로 각자의 꿈을 계발하는 기회를 갖도록 친교의 장(場)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어린이 직업체험센터 '키자니아'에서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희망직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이들은 어린이대공원과 아트센터 Y, 연화사 등에서 문화체험과 친교 시간을 갖게 되며 연화사 신도들 집에서 하루 저녁을 홈스테이로 보내게 된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갈수록 증가하지만 아직도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뿌리깊다"며 "긍정의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나은 기자

전국 지적장애인 볼링대회

이천시장애인복지관, 26일 미란다볼링장서 연다

볼링을 즐기는 지적 · 자폐성 장애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하는 '전국 지적장애인 볼링대회'가 열린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태원)이 운영하는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신운화)은 10월 26일 오전 9시 경기 이천 미란다볼링장에서 '제2회 전국 지적장애인 볼링대회'를 개최한다.

이천시 미란다호텔, (주)빅텍 등 지역사회 기업과 유관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생활시설 등 50개 기관에서 1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선수는 총상금 200만원을 걸고 개인전 및 남녀혼성 게임에 참여하게 되며 개인당 3게임의 종합성적순으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및 전국의 장애인들의 체력증진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031)637-6720 이나은 기자



제7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THE 7TH World SUNCHA Culture Exchange Intercommunions

개 막 식 | 2012. 10. 18 9시 30분 ~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학술대회 | 2012. 10. 18 10시 30분 ~ 1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선차공연 | 2012. 10. 19 12시 30분 ~ 1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

주최 :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한국 국제선차문화연구회, 한국 (차의 세계) 잡지사
협력 : (재)명원문화재단, (사)국제차문화협력교류재단, 숙우회
후원 : 하동군, 보성군, 장흥군, 대한불교조계종, 국립국악원, 아모레퍼시픽
문의 : 02)747-8076

현대불교신문 18주년

창간을 축하합니다 | A8 전면광고

불만족의 마음을 꺽어버리고 아예 뿌리까지 뽑아내어버린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 한가로이 쉬리라 낮이면 낮, 밤이면 밤 – 법구경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慧草

宗正禮敬室長 淸光

僧正院 院長 南坡
副院長 法藏

元老會議 議長 雪峰
副議長 大雲
副議長 錦龍

中央宗會 議長 島山
副議長 慧空
副議長 祥河

總務院長 印空
副院長 靑峰
總務部長 能解
敎務部長 道珍
財務部長 慧山
文社部長 智虛
糾正部長 端峯

護法院長 芸谷
副院長 一雲

종 도 일 동

■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 TEL 02)739-3450 FAX 02)739-3470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현대불교신문 18주년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 전화 02)853-0531~2 팩스 02)853-0533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이사장 경원
재단부이사장 일명
상임이사 혜광
이 사 혜운
도기
경담
자명
법도화
감 사 혜천

원로의장 지공
원로부의장 혜천
원로의원 혜운
도기
수암
원각
봉암

종회의장 법선
호계원장 법성
교육원장 법해
포교원장 도안
감사원장 석성
고시위원장 덕봉
선거관리위원장 동청

총무원장 경원
총무원부원장 용운
교 무 부 장 지언
규 정 부 장 만성

강원동부 보해
강원서부 동청
경기남부 대각
경기북부 도허
경남교구 승원
대구교구 만성
전북교구 석성
인천교구 용운
제주교구 현오
충남교구 호암

※ 00선교종은 본 종단에서 멸빈 및 제적된 자들이 만든 임의 종단으로 일붕존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감언이설에 속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 전화(02)991-8175, 8904 전송 991-8176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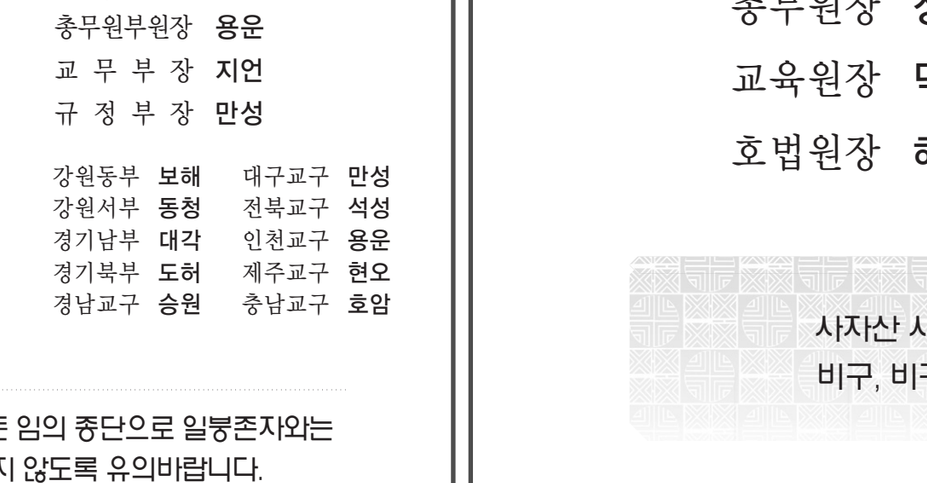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 원
교육원장 덕 원
호법원장 혜 암
사서실장 명선화
교육부장 현 경
문화원장 지 문

사자산 사자암에서 장기간 기도 수행하실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연락주세요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산146 총무원장 : 011-677-8525

대한불교 원효종



현대불교신문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18주년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601호 / 전화 02)735-0501 울산사무소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 / 전화 052)262-6857

세계인 차문화 축제, 한국서 열린다

18~19일 제7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개최

세계인들의 차문화 축제인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세계선차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환)는 10월 18~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제7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를 개최한다.

2003년 4월 한국 〈차의세계〉가 발기한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는 2005년 10월 중국 허베이성 백립선사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이후 중국과 대만에서 열려왔다.

'세계 속의 한국 선차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대회는 10월 18일 오전 9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개막한다. 이어 한국 국제선차문화연구회와 하동녹차연구소의 공동 주관 하에 세계선차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청두 대자사 방장인 대은(大恩) 스님이 '무상 선사와 대자선차' 발제를 통해 한국의 입당구법승인 무상 선사가선차일미 사상의 원류라는 사실을 학계에 제기할 예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은 스님은 '신선소각사지(新選昭覺寺志)'를 소개하며 무상의 선차지법을 학계에 처음 알린 바 있다.

이밖에 국내외의 18명의 학자들이 열띤 발표를 이어간다. 대회에는 40여 논문이 접수돼 발표선별과정을 거친 상태다.

한국 측에서는 기조 강연으로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이 '고청규을 통해 본 한국선가의 차생활'을 발표한다. 의정 스님은 〈선원청규〉 발간시 선가의 차생활을 주장한 바 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경봉정석의 선다일미론'을 통해 조주 끽다거풍이 한국 차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경봉 선사의 염다래 정신을 통해 본 다선일미를 되짚어 본다.

국내 최대규모 차 관련 학술세미나
'무상선사와 대자선차' 눈길 끌듯
한중일 40여 논문, 18명 학자 나서
고궁서 차시연회, 보성 차순례 진행


2011년 항저우 영은사서 열린 제6회 대회에서 펼쳐진 차 시연회.

최석환 불교춘추사 사장 또한 '한국 선차문화의 역사와 미래'를 통해 10여 년간 중국을 오가며 느낀 한국선차문화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차의 시원을 밝히는 가야차에 대한 소고, 고려시대 연고차, 한국차민요, 일원상이 원불교차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조선시대 선다맥 등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측에서도 중국차연구가 구단 선생은 태고보우와 석옥 청공의 사승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며 지주사범대 윤문한 교수가 조주의 끽다거 철감도윤을 들고 나와 철감도윤 선사의 다선일미 정신을 밝힐 예정이다. 같은 대학의 전동환 교수는 남전사지의 사자산문의 발원지를 소상히 짚는다.

일본 측에서는 쿠라사와 유키히로 교수가 '원오극근의 다선일미', 쿠라사와 교수는 '원오와 슈코 그리고 리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가 열린 18일 오후 4시에는 서울 고궁에서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두리차회가 열린다. 19일에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4개국 15개 팀이 선보이는 세계선차공연이 진행되며 오후 6시 30분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폐막식이 거행된다. 이날 자리에서는 차기 대회 개최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20~21일에는 후속 행사로 참가자 일동이 하동 보성 차 산지를 순례하고 한중일 차문화교류와 함께 보림사에서 헌다의식을 봉행한다.

최석환 세계선차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선차는 차문화와 불교의 접합점"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태허 스님 탄신 108주년 기념 행사

관음종, 10일 학술대회 관음보살상 점안…〈이것이 참불교다〉 봉정

"우리들은 겨레를 위해 눈이 되고, 등불이 되고,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해방과 민족분단의 혼란기에도 민중의 깨침과 불법홍포에 앞장섰던 선지식, 태허 홍선 스님. 태허 홍선 스님의 탄신 10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관음종 주최 하에 10월 10일 낙산 묘각사에서 봉행됐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진행한 '태허조사 탄신 108주년 학술대회'에서는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신규탁 연세대 교수,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 양승규 동국대 연구교수, 최봉수 동국대 박사, 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가 주제발제했다.

이날 이평래 명예교수는 "태허 스님의 불입종은 애국, 애민, 자유, 협동의 투철한 국가정신을 드러냈다"며 "승려 중심이 아닌 출재가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태허 스님은 1930년 경운 선사를 은사로 출가해 4년간 유학 후 1940년 낙산에 묘각사를 창건했다.

한국전쟁 직후 1956년 서울로 돌아온 태허 스님은 1957년 일승불교현정회를 조직하고 1958년부터 2년간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거리 설법을 펼쳤다. 1965년에는 법화사상을 중심으로 불입종을 창종했으며 1988년 관음종으로 개명된다.

김경집 위덕 · 진각대 겸임교수는 "태허 스님의 민족의식은 1911년 임제종 대표를 지낸 은사 경운 선사의 영향이 컸다"며 "관음종은 애민애족, 승속일체의 태허 스님의 정신을 이어 대중종단으로 사회구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음종은 학술행사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태허홍선 스님의 다례재를, 오전 11시 11면42수 관세음보살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다례재에서는 한글법문집 〈이것이 참불교다〉의 봉정식이 열렸다. 〈이것이 참불교다〉는 태허 홍선 스님의 법문을 한글세대에 맞춰 풀어 쓴 '불종대의 해제'와 한국 천태종과 법화종 법맥을 푼 '해동천태법화종법맥소고 해제'를 담은 책이다.


태허 홍선 스님 생전의 모습.

또, '불종대의에 나타난 태허 홍선의 출세본회 사상', '불종대의를 중심으로 본 태허조사의 교판론 이해', '불종대의 제3항 신앙문에 대한 일고찰', '관음종(불입종) 창종과 그 의미' 등 태허흥선 스님의 사상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한 연구논문이 함께 실렸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태허조사 탄신 108주년을 맞아 조사스님의 숭고하신 뜻과 삶을 기리고자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그 결실을 책자로 묶어 세상에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천태종 前 총무원장 정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를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관계자, 미야바시 쇼겐 일한불교협의회 회장 등 일한불교협의회 스님들, 주호영 · 김장실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10일 열린 태허 홍선 스님 추모 다래제에서는 미야바시 쇼겐 일한불교협의회 회장 등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실크로드는 불교 통한 韓流 전파길"

'실크로드 속 한국불교'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서역 문물이 실크로드를 통해 한반도로 전해졌다는 기존 통념을 뒤짚어 스님을 비롯한 구법승들의 활동을 통해 실크로드 지역에 전해진 한류문화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월 12~13일 이틀간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열린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 국제학술대회에서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는 7~10세기 중국불교 전개과정에서 한국불교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석길암 교수는 "한국 구법활동의 흥성기(590~907)에 입당한 승려의 수는 185명으로 해동불교인들이 외국 불교보다 불교중국의 활동에서 압도적으로 능동적인 참여자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7세기에 중국에서 활동한 해동출신 승려는 44명, 8세기 44명, 9세기 98명"이라며 "당 전기 고승을 기록한 〈고승전〉을 보면 440명의 고승 중 해동출신이 20명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석 교수는 해동불교인으로 능동적인 활동을 펼친 가장 대표적인 이로 원측과 원효스님을 꼽았다. 석 교수는 "특히 원효의 저술들은 7세기 말의 법장부터 근현대에까지 이어질 정도"라며 "'1126년 고려 사신들이 사명 연경사의 범광 스님을 방문해 법의 1점과 원효가 찬술한 론소 200권을 전해 중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은 원효의 저술이 중국불교계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지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는 '동아시아 고성(古城)의 형성과 불교전래의 연관성 재고' 주제발표에서 실크로드 사막남도와 동아시아 고성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한지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는 "실크로드 사막남도에 위치한 고대 오아시스 국가와 중국 남북조시대, 그리고 한국의 삼국시대는 '불교'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며 "북쪽으로부터 매장지, 불탑, 왕성의 순으로 지어진 구조는 중국 남북조시대, 특히 북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한국에서도 역시 왕성 내에 사원이 형성되어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니야불탑을 조사하는 한지연 교수 등 연구팀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사막남로 지역의 불교문화재, 특히 탑의 조성양식이 간다라를 중심으로 한 인도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특히 누란과 미란을 잇는 지역은 수로를 통한 교역의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정산 스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의 간본에 관하여'(임상희) 등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문화 전파를 조명한 다양한 연구논문이 소개됐다.

노덕현 기자

삼화사 수륙재 학술심포지엄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회장 원명)는 10월 18~21일 삼화사 경내에서 국행수륙대재(國行水陸大齋)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수륙재와 더불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전통성과 그 구조적 의미' 학술 심포지엄이 18일 오전 10시 삼화사 교육관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은 탁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이 '삼화사 수륙재 설행의 역사성과 의미'를, 한상길 동국대 교수가 '근현대사의 수륙재 변화양상',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이 '국행수륙대재와 어산작법',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이 '국행수륙대재와 수인작법', 김태연 대구대 교수가 '불교의례와 지화 장엄'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이즈오카 테츠야 일본 숙덕대학 교수가 '수륙재의 사회학', 김선풍 한중대 석좌교수가 '불교민속', 윤광봉 일본 히로시마대 명예교수가 '삼화사 국행수륙재의 예능적 성격' 등을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죽음과 삶 우주본성파동치유명상법

몸 · 마음 · 정신을 동시에 치유하는 신비한 몸의 체험
건강이란? 몸과마음과정신의 의견이 일치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난치병과 불치병은 몸을 지배하는 무의식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우주본성을 통한 파동으로 우뇌의 자극을 통하면 나의 몸이 저절로 아픈곳을 치유하는 동작이 몸으로 표현하는데 이 동작이 우뇌의 수용력과 가피의 파동에너지와 교감하여 전기나신비한 빛의 형태로 나온다 - 황금빛.녹색.다양한 빛의 에너지

초월의식은 나의 본성과 자아 불성이 존재한다.
무의식은 몸의 자율신경계와 영가장애와 과거의 업식과 삶의 해결과제가 있다.
자신과 영혼 파동치유의 7 단계 = 1.부정 2.분노 3.타협 4.의기소침 5.수용 6.치유 7.새로운 삶의 변화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알수없는 신비한 가피 스님이나 불자님중에 몸이 불편하신분들을 위한 부처님 가피 우뇌파동치유명상법입니다
- 2년회비 1백만원 월 회비 5만원 월~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별 도 - 스님이나 불자님중에 깨달음과 영혼의 자각에 관심이 있는분 중에 뇌의 잠재능력 개발과 우주의식을 체험하고자 하시는분 잠재능력개발.영가천도. 치유 .소원성취. 영적능력. 초월의식. 죽음 이해하기 이론과 빛과 고급영적스승과의 교감 (2시간소요)
사전접수 - 기도수련모임 20명정도. 죽음에 대한 과정이해 교육과 명상실습 비용은 평생회비 500만분납 월회비 7만 기도 수련모임

강의와 수련기도내용

1.빙의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2.죽음 뒤에 벌어지는 영혼의 자각과 혼돈이해
3.죽음에 대한 올바른이해와 삶의 변화와 도약
4.불가의 깨달음의 단계적인 의식의 변화

- 인체전기파동의학원 여산법사 주말 토요일 오후 2시

인체전氣파동의학원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0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0월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호남지역, 음악회로 가을을 풍요롭게

광주생명나눔…공연수익금 기부
전남불교…콩종합센터 기념 공연
화엄사…국제영성음악제

가을만큼이나 풍성한 음악회가 호남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지난 8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생명나눔콘스터 5'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이날 행사에는 생명나눔 홍보가수 주권기 씨를 비롯해 이환희(성악), 강명진(바이올린), 광주현대무용단, 한서운(팬플루트), 유미랑(가수) 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여 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사회는 세계 1등의 물건을 만드는 경제국가는 됐지만, 아직 1등 복지, 1등 의료국가는 되지 못했다"며, "생명나눔이 사회에서 소외된 환우 어린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촛불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후원회장 김진여성 불자는 치료비 후원금 300만원을 광주전남본부에 전달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음악회를 통해 모연된 기부금과 수익금 전액을 환우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장독대 음악회에서는 시설부지에 지어진 한옥과 장독대를 배경으로 카일라스 합창단, 김미옥 교수(성악), 김태곤(가수) 등 출연해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선사했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도 10월 11일 광주 남구 압촌동에서 광주 콩종합센터 전통한옥 준공기념 '장독대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용현 신도회장을 비롯해 무상스님(송광사 주지), 현지 스님(원효사 주지),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인 지신밟기에 이어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준공한 광주콩종합센터는 지난 6월 남구청으로부터 위탁자로 선정되어 향후 2년간 △콩(장류)산업의 육성 진흥 △교육 및 훈련 △연구개발 및 신기술 보급 △생산판매 및 창업지원 △요리 및 공예보급 △문화예술·교양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장독대 음악회에서는 시설부지에 지어진 한옥과 장독대를 배경으로 카일라스 합창단, 김미옥 교수(성악), 김태곤(가수) 등이 출연해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선사했다.

지용현 회장은 "신도회가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통해 불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대표적 국제영성음악제인 화엄제가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에서 오는 10월 27일 화엄사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화엄제 2012'는 '내려놓으니 아름답구나'라는 주제로 한국, 티벳, 인도의 '내려놓는' 영성음악을 준비했다.

행사에는 제주도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굿인 '저승사자의 노래'를 서순실 심방이, 티벳 전통 만트라를 현대음악으로 해석한 디첸 샥 닥사이, 인도 전통음악의 정상급 가수 슈바 조쉬와 월드뮤지션인 마니쉬 비아스가 아름다운 영성음악을 선사한다.

지난 2006년 '첫발자국'으로 시작한 화엄제는 2007년 '길떠남', 2008년 '길을 묻다', 2009년 '길동무', 2010년 '길눈뜨다', 2011년 '기쁨마중' 주제로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선지식에게 배움을 받고자하는 과정을 선사해 올해 한 주기의 완성을 기하는 음악회로 구성됐다.

또한 화엄사는 화엄제와 연개하여 '화엄제 템플스테이'를 27~28일까지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젊음은 열정·노력에서 오는 것"

서원노인복지관 동아리반, 각종대회 상 휩쓸어



서원노인복지관의 자랑인 부부댄스반이 9월 18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서 열린 '제5회 토토시니어 페스티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금산사 복지원(대표이사 원행)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의 동아리 반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서원노인복지관 서예교실 회원인 나대식 씨는 10월 12일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노인 서예대전' 한문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한글서예, 사군자교실 회원 어르신들도 출품해 특선(3명)과 입선(17명)을 수상했다.

서원노인복지관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중인 태극권반은 지난 9월 '제8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우슈대회'에 출전해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복지관의 자랑인 부부댄스반은 9월 18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서 열린 '제5회 토토시니어 페스티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서원노인복지관 댄스반은 10쌍의 부부가 참가해 메달과 트로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으며, 최근 '천안 흥타령 춤 축제'에도 출전해 장려상을 받았다.

또한 복지관 탁구교실을 이용하는 최영란, 황원규 어르신은 최근에 열린 '제5회 전주시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어르신 탁구대회'에서 혼합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처럼 서원노인복지관이 각종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연 스님을 비롯한 복지관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뒷바라지 속에 이루어진 성과여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다.

보연 스님은 수상결과를 전하며 "젊음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서 오는 결과"라며 "규모가 작은 편인 서원복지관의 동아리 반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문화와 예술이 몸에 익은 지역 특성과 어르신들의 열정과 직원복지관 직원, 지도교사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서원노인복지관은 전북 최초의 불교계 노인복지관으로 3000여 명의 등록회원이 이용하고 있다. (063)227-7483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료로 다도 배우고 수행도 하세요

전북불교회관 세심다회, 다도 강습회 개최



세심다회는 10월 10일부터 10주간 다도 강습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보현사 법당에서 개강한 강습회 모습.

전북불교회관 세심다회(지도법사 보연스님, 회장 하유호)는 10월 10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4층 큰 법당에서 '전통 다도 강습회'를 개강했다.

10주간 일정으로 열린 세심다회 다도 강습회는 인사예절, 행다실습, 접빈다례, 다식만들기, 헌공다례, 2인다법의 강의를 마친 후 12월 12일 개인시연회를 회향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하유호 회장은 "지역의 사찰들과 함께 차를 통한 포교와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강좌를 개설했다" 며 "불자들에게 재료비 외에 무료로 다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심다회는 전문다도 강사 자격을 획득한 문성순, 이미경 선생의 지도로 전통다도를 배우게 된다. 문성순 선생은 "수행과 다도를 통해 불자들의 신심을 돋우고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심다회는 향후 완주 와일드 푸드 축제, 세계순례대회, 금산사 개산대재등의 크고 작은 지역 내 행사에 다도 체험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평등·생명존중사상으로 극복해야"

마주협, 12일 이주민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사회는 외국인 146만 명이 넘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중 3분의 1 가량이 불교국가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할 때다. 이런 가운데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도제, 이하 마주협)는 10월 12일 광주시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한국사회 이주현상과 불교적 해법'을 주제로 이주민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마주협은 10월 12일 '한국사회 이주현상과 불교적 해법'을 주제로 이주민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주민을 위해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제 스님이 기조연설로 '한국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 발제를 맡았으며, 이주성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장이 '이주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가 한국생활에 미치는 요인'을, 김남욱 조선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이 '다문화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법적과제'를, 김선임 마주협 상임고문이 '불교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불교계의 통합정책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도제 스님은 기조연설에서 "1980년 이후 시작된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최근 제노포피아(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불교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불교의 평등사상과 생명존엄사상을 통해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성 센터장은 "3D업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정한 임금체계, 근로기준법 준수 등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욱 전임연구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외국인 처우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임 고문은 "불교계의 이주민 지원단체의 전문화와 조직화, 네트워크화를 강화해야 하며, 종단의 공식부서로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소사, 불교문화 진수 괘불재

10월 27일 중창불사 회향·산사음악회도 개최

전북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가 중창불사를 회향하는 괘불재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내소사는 10월 27일 오전 중창불사를 마무리 하는 회향법회와 오후 1시부터 보물 1268호 내소사 괘불이운, 고불문 낭독, 육법공양, 통천(通天), 음성공양, 만등공양(萬燈供養)을 봉행한다.

오후 6시 부터는 '제11회 가을산사 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에는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을 비롯해 가수 김태곤, 안치환, 자전거 탄 풍경 등이 출연한다.

이밖에 가야금 병창 박선옥,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 등이 무대에 올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가 펼쳐진다.



보물 제1268호로 지정된 내소사 괘불

진학 스님은 "산문을 열고 처음 열리는 내소사 괘불재는 불교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단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앰프를
웅장하고, 맑은 소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 방법 : 앰프와 마이크 또는 스피커와 마이크 등 좋지않은 장비를
고급 신형 제품으로 교체 해 장엄한 소리를 보시하겠습니다.

● 보완 보시기간 : 2012년 10월 – 11월 30일까지
(예약 순으로 일주일에 2곳만 설치 해 드립니다)
● 해당지역 : 서울, 경기, 일부지역
(이외 지역은 출장비 일부가 추가됩니다)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20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화합과 통일의 꽃을 피우다

총지종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 나눔과 공감의 장 펼쳐

총지종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가 10월 6일 총지종 종립 부산 동해중 운동장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부산지역 불자, 총지종 교도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산스님, 수석부회장 화산스님, 부회장 법민스님, 자인스님, 진각종 부산·경남 교구장 효원정사, 진각종 명륜심인당 주교이자 전 통리원장 회정정사,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보문종 기획실장 금주 스님, 이진복 국회의원, 조길우 동래구청장, 이병두 문화관광부 종무관,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부산불교연합합창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정사는 봉행사를 통해 "오늘 음악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



총지종은 10월 6일 부산 동해중 운동장서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사부대중 2천여 명 참석 '성황'
지역 단체에 후원금 전달 '훈훈'

의 대중들에게 따뜻한 법음으로 전해드릴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지종 효강 종령은 법어를 통해 "동생동사, 동고동락의 대진리를 하루 빨리 깨달읍시다. 그리하여 모두가 시기와 질투, 아집과 집착의 굴레를 버리고, 상부상조의 손을 맞잡고 서로 도우며 힘차게 정진합시다"라고 서원했다.

종립 동해중학교 총동창회장이자 동래구 국회의원 이진복 의원은 "정통밀교종단 총지종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자리다. 오늘 이 무대를 통해 종립동해중학교가 지역 최고의 명문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며 축하를 전했다.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후원금은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사단법인 단미, 다문화 가정 틴터민, 새터민 김선희 이송이,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동해중, 평양예술단 등에게 전달됐다. 특히 이주민 몬테 가오리 씨에게는 총지종 부산 정각사 자비회에서 마련한 후원금이 전달됐다.

이날의 하일라이트인 공연에는 서울 마니합창단, 대구 금강합창단, 부산 만다라합창단, 가야금병창 강세영국악인, 비움 중창단, 관무용단, 평양예술단, 초청가수 조항조의 무대에 이어 총지종 연합합창단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흥을 더했다.

'사회화합과 계층 간의 융화의 한마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축제는 천여 발의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막을 내렸다. 총지종은 앞으로 사회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 지사장

"나라 사랑 정신 잊지 말자"

사명대사 추모 대법회



402주기 사명대사 추모대법회가 10월 11일 사명대사 호국광장에서 열렸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 연합 신도회가 주최하는 사명대사 열반 402주기 추모대법회가 10월 11일 부산 어린이 대공원내 사명대사 호국광장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주관했으며 부산시지방무형문화재인 호국영산대재로 봉행됐다. 행사는 이윤희 회장(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의 발원문 낭독에 이어 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산스님의 사명대사 행장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은 " 365일 한시라도 사명대사의 업적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잊지 말고 항상 가슴속에 간직합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불사 기금에 써 달라"

안국선원 범어사에 10억 전달

안국선원 신도회가 범어사에 불사 기금 10억 원을 전달했다. 범어사는 10월10일 경내 주지실에서 범어사 불사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안국선원 신도회는 범어사 불이문 불사를 위해 이번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불이문을 비롯한 범어사 불사 기금으로 10억 원을 전달하고 차후 나머지 10억 원도 발전 기금 형식으로 보시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산거림회 40주년 법회

사부대중 300명 참석

부산 거림회는 10월 9일 연산동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당에서 창립4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증명법사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최수황 회장, 공병수 前회장 등과 거림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종범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산 거사림 불자회가 부산 불교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자. 앞으로 거사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법주사, 원어민 영어 교사 템플스테이

10월 13일 80여 명 참선 등 체험

속리산 법주사는 10월 13일 1박2일 충북 교육청 소속 영어 원어민 교사 80여명을 대상으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첫날 우리나라 유일한 국보 목탑 팔상전을 비롯, 대웅전 등 불교 문화재를 관람한 후 숲속 명상과 저녁예불, 참선 등을 체험했다. 둘째날은 새벽 3시 예불과 108배, 스님과의 차담 등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국장 보관 스님은 "본 과정을 통해 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한국 학생들과 잘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며 템플스테이의 취지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무질서하게 축조한 호안석축은 우리나라 전통사찰의 못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식이다. 경상북도 ㅂ사찰에 새로 조성한 못.

전통사찰에서 볼 수 없는 연못

사찰의 못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하나는 불교의 상징인 연을 심어 연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교에서 존숭의 대상으로 삼는 탑, 불상 그리고 산의 그림자를 비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못을 연지(蓮池)라 하고 뒤에서 말한 못은 영지(影池)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사찰의 못은 불교가 도입되면서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교도입 초기에 지어진 사찰에서 발굴조사된 못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 사찰의 못은 인도나 중국사찰의 못과 양식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찰의 못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호안석축이다. 호안석축은 대체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자연석을 잘 다듬어 층층이 쌓아올리는 형식을 보인다. 단순한 듯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돌을 쌓아올리는데 질서가 있고,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여 돌을 조합한 솜씨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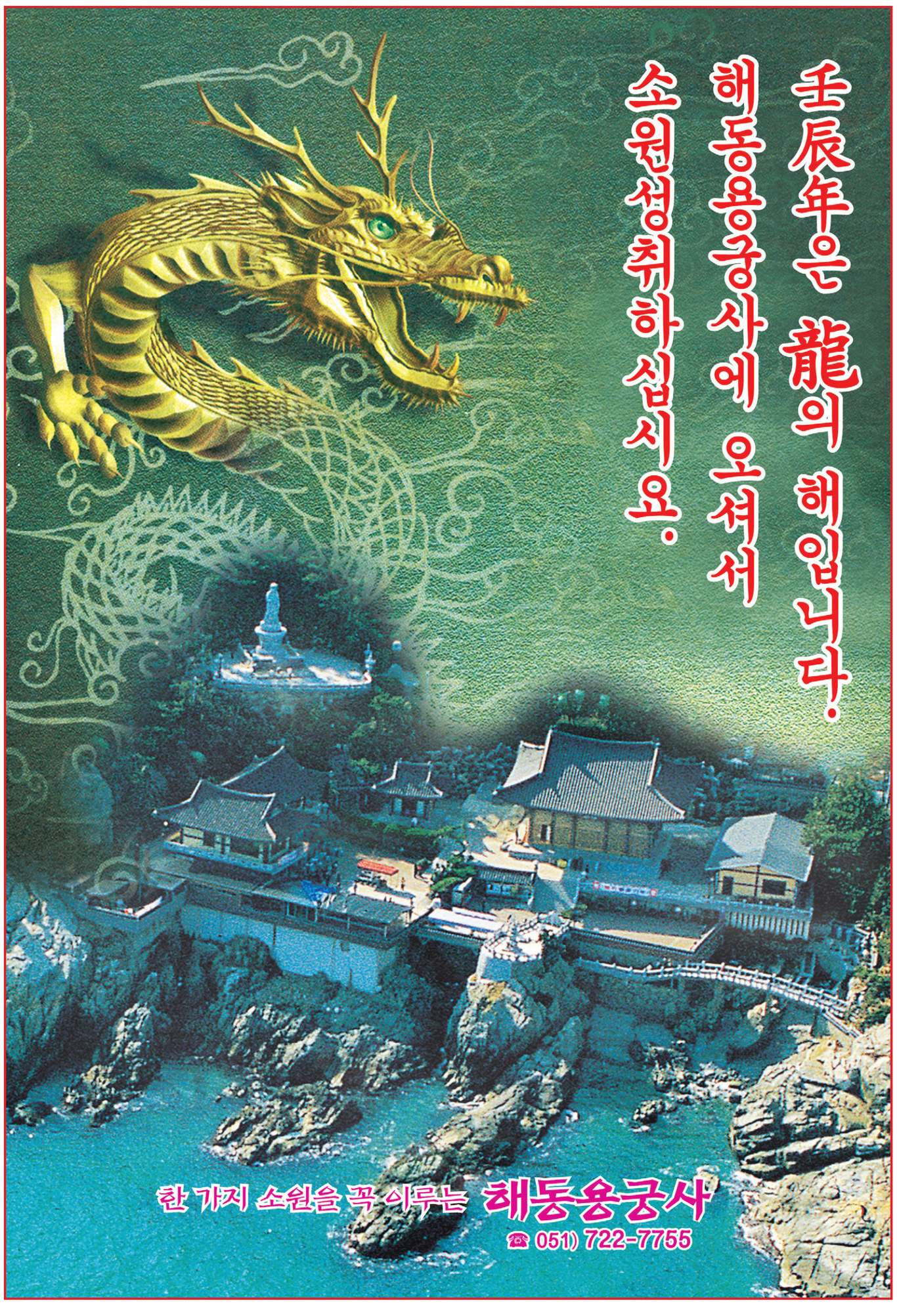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우리사찰의 못에는 못 주변에 경석을 놓는다든지 못 속에 섬을 만들거나 수석을 심는 경우가 흔치않다. 이렇게 별다른 수식 없이 못에 담고 싶은 기능성에만 정신을 집중한 것을 보면, 못 자체보다는 못 속에 심어진 연꽃을 중요시하였고, 못물에 비친 불상이나 탑 혹은 산의 그림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주와 객을 분명히 구분하였던 스님들의 지혜와 사물을 통찰하는 혜안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도 여러 사찰에서 못을 파고 그 주변을 장엄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찰에서 만들어 온 못의 양식을 계승하여 아름답고 의미있는 못을 만들어내는 사찰도 있지만 우리네 전통성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못을 만드는 사찰도 많아 실망스럽다. 더구나 풍수적으로 볼 때 못이 있으면 오히려 건강한 환경을 헤치게 되는 곳에도 무리하게 못을 파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사찰의 못은 상징적 효과와 경관적 효과는 물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환경적 효과까지 생각해서 만든 하나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사찰의 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 아무리 아름다운 못을 만든다 해도 그것은 사찰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현대불교신문 18주년

| 창간을 축하합니다 | A12 전면광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도다. 반야를 얻은 이는 남들의 찬탄에도 비방에도 동요하지 않네 – 법구경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사)여래불교조계종
종 도 모 집

삼보 귀의 하옵고!
여래불교 조계종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 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종단, 청정종단, 열린종단을 지표로 한국불교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종단으로 그 첫 걸음을 내 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세계화를 염원하는 (사)여래불교 조계종 종단과 함께 하실 제방의 청정승가의 동참을 바랍니다.

종 정 무 여

총무원장 현 산 (서울 마장동 여래사)
종회의장 혜 견 (성남시 보통정사)
사무총장 자 운 (서울 상도동 미타사)
감찰원장 법 성 (전남 나주시 유원사)
교육원장 중 무 (대구시 남구 기원정사)
문화원장 향 지 (성남시 향지선원)
포교원장 만 경 (춘천시 온의동 보통정사)

- 입 종 서 류 -

- 종단 가입 신청서 1부
- 사찰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 사진 3매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수계증 및 도첩 사본) 각 1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 종단 총무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재산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음 .

※ 불기2556(2012)년 가입 종도는 입종비를 면제 하여 드립니다.

(사)여래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 산

■ 총무원 : 사무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8-14 여래사 전화 : **02) 2282-5830 / 010-6710-8300**(사무총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량종

현대불교신문 18주년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팩스 292-4586
■ 총본산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팩스 883-7796

대한불교 삼 론 종

현대불교신문 18주년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전 종 도 일 동

■ 총본산 : 충북 충주시 대가미 15길 11 우암정사(2층) / 전화 0502)321-3333 / 팩스 043)847-0118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종 정 **법정 홍인**
총무원장 **혜 상**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도 일 동

※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장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총무원 054)632-2799. 011-228-7813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종 정 **홍산 현불** 부 종 정 **돈 오** 총무원장 **원 각**

승정원장 **홍구** 원 로 원 **영암. 혜승. 명공. 혜광. 응관** 불교대학장 **정호** 중앙선원장 **천륜** 법계고시위원장 **여산** 감사원장 **혜각**
사서실장 **보경** 종 회 의 장 **청인** 의 산 장 **성종** 율 원 장 **금담** 종 회 의 원 **만덕. 현우. 혜천. 지연. 도행**

총 무 원

부 원 장 **공심**
총무부장 **도현**
재무부장 **도우**
규정부장 **진산**
기획실장 **성오**
의식부장 **해일**
교육원장 **정수**
사회부장 **덕성**
호계원장 **남경**
복지부장 **인덕**
해외협력부장 **무임**
감 찰 부 장 **혜암**
문 화 부 장 **지훈**
포 교 원 장 **보견**
포 교 부 장 **원오**
호 법 부 장 **진공**
교 무 부 장 **도성**
비구니회장 **조명**
비구니부장 **금화**
비구니총무 **재범**
선거관리위원장 **혜원**

지방 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무운**
경기종무원장 **두인**
인천종무원장 **일현**
강원종무원장 **도림**
충북종무원장 **규봉**
경남종무원장 **지심**
경북종무원장 **혜산**
울산종무원장 **혜명**
대구종무원장 **자은**
대전종무원장 **동우**
부산동부종무원장 **명종**
부산중부종무원장 **도성**
전북종무원장 **장봉**
전남종무원장 **성덕**
제주종무원장 **보산**
홍콩종무원장 **무영**
중국종무원장 **선무**
일본종무원장 **혜령**

이 사 회

회 장 **백산**
초 무 **일경**
재 무 **무애**
이 사 **무상 일호 도림 무경**

유발 승가단

비 구 **무착 일찬 무공 경종**
비 구 니 **정각 수연 보화 자량 보덕 구련**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종정원 :** 전북 부산군 상서면 통성리 567-1(관음사) 전화 063)583-8807 팩스 063)584-4153 ◇ **총무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산 47-4 (수도사) 전화 041)531-3792 팩스 041)544-1080 ◇ 총무원종단사업부 055)534-0180

생태사회와 불교

잡초는 없다. 해충도 없다

‘잡초·해충’ 존재해야 할 이유 있다

농사는 풀과 잡초와의 전쟁

벌초를 가면 쑥대밭같이 되어 버린 산소와 매등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이놈의 잡초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농사짓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게 뭐냐고 묻는다. 돌아오는 대답은 풀매는 일이란다. 농사는 그야말로 풀과의 전쟁, 잡초와의 전쟁이다. 농부가 음독자살을 해도 농약을 먹으면 살가망이 있지만, 제초제를 먹으면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농약중에서 잡초를 뿌리째 죽이는 제초제가 가장 독성이 강하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잡초’란 ‘이름 없는 풀, 이름을 모르는 풀’이라는 뜻이외에 ‘쓸데 없는 풀, 소용없는 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대게 이름은 결국 사람이 붙여주는 것이라서 후자의 의미로 ‘잡초’라고 부른다. 여기서 ‘쓸 데없다, 소용없다’는 말은 인간에게 쓸데없고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사에 방해가되는 귀찮은 것이라 농사를 짓거나 벌초를 할때 제초제를 뿌려 한꺼번에 모두 제거하고 싶어한다.

‘잡’이라는 접두어는 다양하게 쓰인다. 별볼일 없는 쓸모없는 것은 ‘잡것’이라고 하고, 사람에게는 ‘잡놈, 잡년’, 불필요한 나무는 ‘잡목’이다. 이처럼 인간에게 필요없는 것은 모두 ‘잡’이라고 붙이고, 결국 잡초는 제초제로 모두 없애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잡’의 기준은 누구일까? ‘사람’이다. 이롭고 해로운 것, 필요하고 불필요 한 것의 기준은 ‘사람’이다. 사람에게 불필요한 것은 악이며 나쁜 것으로 모두 절멸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들에 핀 이름없는 풀들이 무슨죄가 있길래, 인간에게 존재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판단받아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처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인간은 누구에게 그런 권리를 위임받았는가?

이것만이 아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벌레를 ‘해충’이라고 하며 이로운 것은 ‘익충’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충은 ‘박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인간으로부터 이로운지 해로운지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 생존되거나 절멸 당할 운명에 있는 것이다.

과연 해충은 해충약으로 절멸시켜야 하는 존재인가? 잡초는 제초제로 완전히 제거해야할 존재인가? 식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서로 상호의존하는 존재로 생태계에서는 촘촘히 얽혀있는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인간의 이로움과 해로움의 판단을 뛰어넘는 대상들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아닐지라도 생태계내에 어느 동물이나 식물에게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존재들인 것이다.

인간은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종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한 인간이 지구상에 오로지 가장주인으로 행세하고 생물을 죽이고 살리는 여탈권을 판단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데서 바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인간중심적 가치’, 또는 ‘인간중심성’이라고 표현한다. 때로는 ‘탈생물적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시 결론을 말하면, 잡초란 없는 것이다. 모든 풀은 인간의 필요성으로 판단, 그 이전 존재들이다. 아니 그러한 가치판단을 뛰어넘어 생태계내에서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들이다. 해충이나 익충 이라는 인간중심적 편견과 관념이 모든 식물과 생물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종시키는 근본인식이 되어왔다.

이른바 ‘박멸’한다는 사고

한 생명을 해충으로 규정하면, 나쁜 것은 없애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박멸이다.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는 해충약, 제초제, 세균을 박멸하는 약을 개발한다. 서구의 의학의 역사는 세균의 박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현대 생물학에서는 그 생명들이 박멸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가까운 장래에 결국 우리에게 나쁜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에는 해로웠을지 모르지만 먼 장래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이롭다 · 해롭다’ 생명 구분은
‘인간 중심성’…반자연적 행위

생태계 주인 행세하는 인간
누구에게 권리 위임 받았나?

인간은 ‘좋다. 싫다, 이롭다. 해롭다’를 자기식 기준을 근거로 식물을 구분하고 곤충과 동물을 구분한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해로운 것은 박멸한다. 더나아가 싫은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분한다. 나쁜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분하며 천사와 악마를 구분한다. 그래서 악마를 처단하고 사탄을 죽여야만 좋은세계, 편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분법은 곧 대립을 의미한다. 대결과 경쟁, 전투를 의미한다. 상대를 제압하여, 결국 자신만이 주도권을 쥐고 승리해야한다고 생각이다.

생명은 ‘좋고 싫음, 이익과 해로움’이라는 인간의 집단적 주관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구분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반자연적 행위를 저질러왔고, 그러한 자연인식이 대립과 경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결국 인간과 인간의 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생명에 대한 박멸이 곧 타인종과 타국에 대한 박멸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농가에서 해충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살포하는 모습들. 하지만 소수의 세균과 해충들은 내성을 확보해 자신을 보호한다. 결국 더 강한 해충약과 제조체가 사용돼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생명은 박멸한다고 그리 쉽게 박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세균이나 생애주기가 극도로 짧은 생명들은 박멸의 상황에서 대부분 죽지만 돌연변이를 통해 소수는 내성을 확보하며 열악한 상황을 견뎌 유전자를 보호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결국 더욱 센 해충약, 제초제를 사용해야만 효과를 발휘하는 생명으로 진화된다.

우리는 옛날에 모깃불을 놔서 모기를 쫓았다. 모기약을 뿌려 박멸하려는 지금과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귀신도 굿을 해서 ‘쫓는다’고 표현했다. 원한을 풀어주고 왕생극락하게 하며 나아가 접근하지 않게 쫓는 것이다. ‘박멸’과는 전혀 다른 관념인 것이다.

돼지와 소에 대한 인간중심적 생각

생명을 바라보는 인간중심적 주관적 사고를 더 살펴보기 위해 사고실험을 해보자. 보통 돼지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미련하고 더럽다’이다. 소는 아마도 ‘우직하고 성실하다’는 생각, 여우는 ‘교활하다’는 이미지, 뱀은 ‘사악하다’는 생각, 쥐는 더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미련하다. 우직하고 성실하다. 교활하다. 사악하다. 더럽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누구인가? ‘인간’이다. 사람의 관념, 편견, 선입관이다. 실제 우리가 볼때 더럽다 미련하게 보일뿐이다. 소는 우직하고 성실하게 보일뿐이다. 실제 성격이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다. 실제의 성격은 우리의 판단과 선입견 저넘어에 있다. 그처럼 실제의 사실이 아닌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착각하여 동물과 식물, 곤충과 벌레에 대해 ‘좋다. 싫다’라는 분별을 갖게 되었다. 이로운 동물, 해로운 동물, 더러운 동물, 징그러운 동물… 등. 이러한 분별이 곧 생명들을 함부로 하게 하여 멸종과 종다양성을 파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지구의 허파이자 산소를 생산하는 공장인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고 있는 한편, 아마존의 엄청난 벌채로 그곳에 사람에게 발견되거나 학술적으로 등제되지 않은 수천만종의 곤충, 식물, 동물들이 하루에도 수십종씩 멸종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들은 몇십억년간의 생명 진화의 마지막 산물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도 되기 전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신경세포인가 암세포인가

의학적으로 우리 몸속의 세포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위치에 맞게 증식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신경세포’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몸전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무한 증식하며, 다른 조직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증식하는 것을 ‘암세포’라고 한다. 결국 주변과 조화, 전체속에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그 조화와 균형을 성찰, 조절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의 증식, 자기만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인 것이다.

암세포는 대단히 빨리 자라고 성장하며 퍼져나간다. 살기좋은 다른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옮겨간다. 암세포 자체로 보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의 다른 기관과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증식하지만 몸전체를 죽게 하고 자신도 죽게 만드는 ‘미친세포’인 것이다.

자기만 증식하는 암세포처럼
분별이 멸종 · 종 다양성 파괴

모든 생명은 상호의존적 관계
자연이 살아야 다함께 공존

인간은 지구상의 수많은 동물중, 포유류의 한 종일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주인인양 행세하며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작은 생명을 멸종시키면서 스스로 거대한 경제적 발전을 통해 무한히 증식해간다. 자신만을 본다면 분명 발전, 성장이다. 그러나 지구전체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여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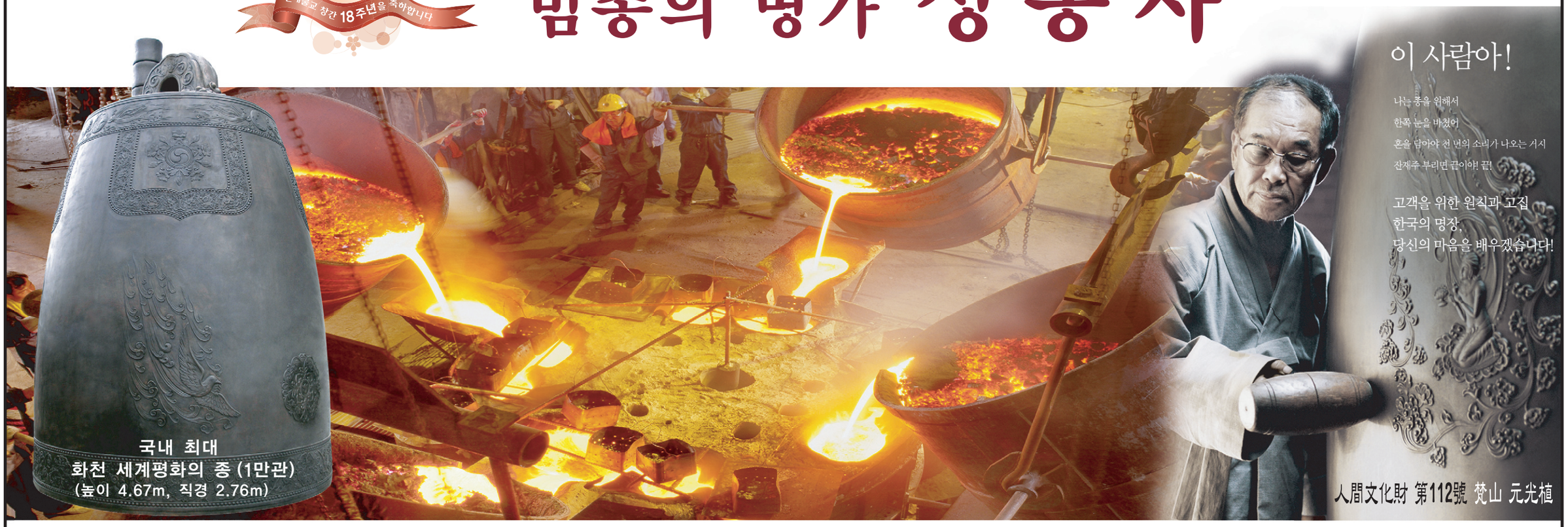
부처님의 연기법은 바로 신경세포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인간이 지구전체와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살아야 내가 살고, 자연이 살아야 나도 살며, 모두가 더불어 함께 공존해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위기는 바로 실제를 제대로 보도록,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제대로 살도록 깨닫게 해주는 일종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범종의 명가 성종사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어둠 깃든 숲에 사리불과 부루나 설법이…

⑥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

〈상〉출가 인연

부처님 십대제자 가운데 설법을 너무나 잘 했던 부루나 존자의 이야기다. 그의 설법으로 제도된 이들이 무려 9만 9천 명이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를 설법제일이라고 했다. 〈불본행집경〉 부루나출가품에서 "너희들은 꼭 알아두어라. 법을 설하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제일인 사람은 부루나이니라."고 했다. 경전이 전하는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는 두 사람이다. 초기불전에 등장하는 부루나와 대승경전에 등장하는 부루나가 있다. 출신과 출가 동기 등이 다르다. 여기서는 〈불본행집경〉에서 전하는 부루나 존자를 근거로 했다.

부처님과 같은 날 태어나다

룸비니동산. 왕비는 산기를 느꼈다. 왕비는 산통도 없이 오른쪽 옆구리로 태자를 낳았다. 태어난 아기는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당당하게 말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니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三界)를 내가 평안하게 하리라." 기원전 624년 사월 초파일, 카필라국의 태자 싯달타가 태어났다. 부처님이다. 왕비의 고향 꼴리야 룸비니에서 부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던 바로 그 날, 카필라국의 국사(國師)였던 부루나의 아버지도 아들 부루나의 탄생 소식을 듣는다. 카필라국의 왕이자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도 국사의 득남을 축하했다. "축하하오. 훗날 태자가 보위를 받으면 국사의 아들 또한 국사의 자리를 잇게 할 것이오." 부루나는 그렇게 부처님과 같은 날 태어났고, 싯달타 태자가 왕위를 이어야 하듯 부루나 역시 국사의 자리를 이어야 할 인연을 타고 났다. 하지만 태자와 부루나 모두 그 길을 가지 못한다.

카필라국 국사의 아들 출가

"나의 부친은 이미 정반왕의 국사가 되어 돌보는 일이 많고 여러 가지 기예를 갖추어 왕을 돕고 백성을 위해 일한다. 정반왕의 아들 싯달타 태자는 정반왕과 다름없어,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나의 부친이 안 계시게 되는 날, 내가 싯달타의 국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의 부친은 잠시도 한가하지 못하니, 나 또한 국사가 된다면 나의 삶도 그럴 것이다." 부루나는 국사의 자리에 마음이 없었다.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좋을 것인가. 나는 지금 오직 집을 떠나 출가할 생각 밖에 없는 것이다." 부루나는 오직 출가할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부루나는 일찍이 베다(브라만교 성전의 총칭)를 비롯한 여러 서적에 두루 통달했고, 이미 많은 학문에 도달해 있었다. 여러 학문과 사상에 일찍 눈뜬 그 역시 생사(生死)의 괴로움만이 넘어야 할 산이었다. "지금 어떤 일을 하여 어떤 인연을 지을 것인가. 나는 지금 오직 집을 버리고 출가함이 옳을 것이다." 〈불본행집경〉에서 적고 있다. 불면의 밤들을 보내던 부루나 존자는 부모님께 인사도 올리지 못한 채 도반 30명과 함께 출가한다. 설산(雪山)에 들어가 정진한 그는 신통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신통으로 부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

부처님의 성도와 첫 설법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없어져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리수 아래서 싯달타 태자가 눈을 떴다. 샛별이 마지막 빛을 사르는 동녘 하늘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이 땅에 오신 지 35년, 진리를 찾아 궁을 나선 지 6년째인 기원전 589년 12월 8일이었다. "번뇌는 모두 사라졌다. 번뇌의 흐름도 사라졌다. 더 이상 태어나는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괴로움의 마지막이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진리를 전해야 할까." 부처님은 하늘의 눈으로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섯 수행자들을 본다. 부처님은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향했다. "수행자들이여, 잘 들어라. 여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대들도 머지않아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부처님은 설법했다. "수행자들이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괴로움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팔정도(八正道)를 설하셨다. "정견(正見 바로 보는 것), 정사유(正思惟 올바로 생각하는 것), 정어(正語 올바로 말하는 것), 정업(正業 올바로 행동하는 것), 정명(正命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 정정진(正精進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정념(正念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정정(正定 올바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괴로움에서 그대들을 구할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수행자들이 말했다. "거룩하신 스승이여, 부처님께 출가하겠습니다. 받아주소서." "오라, 비구들이여." 그렇게 부처님의 첫 설법이 있었다.

부처님을 만나다

"싯달타 태자가 성왕위를 받을 시절에 이르렀으니 멀리서나마 태자를 보아야겠다." 싯달타 태자의 출가를 알지 못했던 부루나 존자는 자신의 신통으로 태자를 본다. 태자는 부처님이 되어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고 있었다. 부처님의 존재를 알게 된 부루나는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시는 마가다국의 왕사성으로 향한다.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부처님 설법 들으러 갑니다." 부루나도 도반들과 군중들을 따랐다.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던 부루나는 멀리 군중 너머로 부처님을 본다. 법석이 열렸다. "나를 보기 위해 멀리서 온 수행자들은 앞으로 나오라." 부루나는 죽림정사에 계셔야 할 부처님이 이곳에서 법석을 연 이유를 깨달았다. 부처님은 부루나가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부루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부루나입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여, 부처님께 출가하겠습니다. 받아주소서." 왕의 자리를 버린 태자와 국사의 길을 버린 국사의 아들은 그렇게 만났다. "오라, 비구여!"



그림 · 김홍인

국사의 길보다 출가에 마음 둬
비유설법의 백미 칠거경 남겨

부루나 설법의 백미 칠거경(七車經)

부처님께서 죽림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고향에서 안거를 마친 비구들이 돌아왔다.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물었다. "고향 마을에서는 여러 비구들 중에서 누가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가?" 비구들이 말했다. "부루나 존자가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부루나 존자의 설법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때 대중 속에 사리불 존자가 함께 있었다. 부루나 존자의 존재를 알게 된 그는 부루나의 설법이 듣고 싶어졌다. 그리고 얼마 후, 부루나를 만나게 된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로 옮겨 계실 때였다. 안거를 마친 부루나가 부처님을 찾아 예배했다. 그리고 숲으로 돌아갔다. 해질 무렵. 사리불이 수행 중인 부루나에게 다가갔다. "현자여, 그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범행(梵行)을 닦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어 사리불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곱 가지 '청정'을 가지고 법을 청한다. "현자여, 그 말은 계행(戒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부처님을 따라 범행을 닦는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루나는 "아닙니다."고 대답한다. 사리불이 다시 묻는다. "그러면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부처님을 따라 범행을 닦는 것입니까?" 부루나는 다시 "아닙니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견해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 범행을 닦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의심을 끊는 청정, 길과 길이 아닌 것에 대한 지견의 청정, 출세간적 길에 대한 지견을 통한 청정, 지견에 의한 출세간적인 청정을 위하여 부처님을 따라 범행을 닦는 것입니까?" 사리불은 출가수행의 근본 목적을 묻고 있는 것이었다. 출가하여 수행하는 것은 집착이 없는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불은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루나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루나가 "아니다."고 대답한 것은 각 물음의 명제들은 '궁극'이 아니라 방편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부루나 역시 사리불의 물음이 무명에서 온 물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상수제자 사리불과 설법제일로 존경받는 부루나가 부처님의 법을 서로에게 설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부루나의 위대함은 사리불의 물음 아닌 물음에 '부루나'의 설법을 했다는 것이다. 사리불이 다시 묻는다.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부처님을 따라 범행을 닦는 것입니까?" 부루나가 대답한다. "무여열반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숲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다. 설법제일 부루나의 '비유'의 설법이 이어진다. "사리불 존자여, 들어주십시오. 옛날 구살라왕 바사닉이 사위국에 있었는데, 바계제에 볼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방법을 써야 사위국에서 바계제까지 하루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계제에 이르는 길 중간에 일곱 수레를 나누어 놓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수레에 오른 그는 두 번째 수레에 이르자 지친 첫 번째 수레를 놓고 두 번째 수레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수레에 이르러서는 역시 지친 두 번째 수레를 놓고 수레를 갈아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루 만에 바계제에 도착했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천왕께선 하루 동안에 사위국에서 바계제까지 오셨습니까?' 일곱 번의 수레를 타고 왔다고 하자, 신하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수레를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레를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수레를 타고 오셨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첫 번째 수레를 타고 두 번째 수레에 이르러서는 첫 번째 수레를 놓고, 세 번째 수레에 이르러서는 두 번째 수레를 놓고, 일곱 번째 수레에 이르러서는 여섯 번째 수레를 놓고, 일곱 번째 수레를 타고 왔느니라.' 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일곱 가지 청정은 일곱 번의 수레였던 것이다. 다음 수레를 타기 위한 과정 속의 수레인 것이다. 지계수행으로 청정범행을 닦고, 선정수행으로 마음을 닦고, 지혜수행으로 진리에 대한 의혹이 사라진 정견을 성취한다. 계,정,혜 삼학을 닦는 수행이다. 정견을 갖추면 진리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끊어서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바른 길을 완전하게 알고 보는 눈, 즉 청정지견을 갖추면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탈지견을 갖추어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다는 부루나의 설법인 것이다. 중아함경에서 전하고 있는 '칠거경'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한 분으로, 부루나는 이름의 앞부분을 줄여 부른 음사어다. 갖춘 이름의 음사어는 부루나미다라니자이다. 한역은 만자자(滿慈子)이다. 만(滿), 즉 부루나는 자신의 이름이고, 자(慈), 미다라는 어머니의 성이다. '자씨성을 가진 어머니의 아들'이란 뜻이다. 아버지는 부처님의 아버지, 카피라국의 정반왕의 국사였다. 부처님과 같은 날 태어났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굴리자, 부처님을 찾아가 귀의했다. 비구계를 받고 수행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했으며, 변재에 능하고 이치를 잘 분별하여 법을 설하고 교화하는데 전념했다. 그의 설법을 듣고 해탈한 이들이 9만 9천 명에 달했다. 하여 부처님은 그를 설법제일이라 불렀다. 자신의 고향 수로나에서 삼명(三明)을 얻고 열반에 들었다.

(그림은 조향숙씨의 석굴암 부루나 판화)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주 지 성 타

관	장	종상	재	무	종천
학	장	덕민	사	회	종민
선원장		종우	포	교	성요
총	무	종천	호	법	각천
기	획	정문	사	서	정빈
교	무	정수	회	계	성명
			신도회장		변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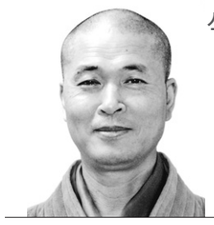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제대로 넘어져라

학승이 물었다.
"조의(祖意)와 교의(教意)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조의를 알게 되면 교의도 알게 돼."

問 祖意與教意同別 師云 會得祖意便會教意

조사의 뜻과 부처의 뜻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 납자는 조주 선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본 납자라면 "조사는 부처를 모르고 부처는 조사를 모른다네." 하고 대답하겠다. 본 납자의 대답이 조주 선사와 더불어 뜻이 같은가? 다른가?

학승이 물었다.
"이류중행(異類中行)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옴 부림(bhūrim). 옴 부림."

問 如何是異類中行 師云 唵 部林 唵 部林

이류중행이란 전혀 다른 무리 속에서 행(行)하는 것을 말한다. 번잡한 사바 속에 살면서도 수행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매일 진언이나 화두, 아니면 염불 수행하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높고 험하여 오르기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스스로 산봉우리 정상에 주하고 있네."

학승이 물었다.
"조계로 가는 길은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조계로(曹溪路)는 악로(惡路)야."
학승이 물었다.
"지금 어찌 도달하지 못합니까?"
조주 스님은 말했다.
"그것은 높고 험준하기 때문이야."

問 高峻難上時如何 師云 老僧自住峰頂 云爭奈曹溪路側何 師云 曹溪是惡 云今時 爲什麽不到 師云 是渠高峻

어찌하여 조주 선사는 스스로 정상에 도착해있는가?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이라면 조주 선사가 신발도 닳은 바 없이 정상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곳에 본 납자도 숨소리 한 번도 거칠게 쉬지 않고 도착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악로(惡路)는 길이 나쁘다는 의미이다. 순로(順路)라면 길을 따라 곧장 걸어가 도착하면 된다. 그러나 악로는 길이 험하여 미끄러지기도 하고, 길이 끊어져서 있는 듯 마는 듯도 하고, 신작로를 만나 순탄한 듯 하다가 사도로 빠지기도 한다. 가는 도중에 만나는 길 안내자 선지식들의 가리킴도 일정하지 않다. 화두를 들라하다가, 묵언하라하다가, 방을 들어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놀라게도 한다. 그 가리킴이 난폭하여 어린 사미의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문지방에 발목을 내밀게 한 후 문을 받아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구순피선(口脣皮禪)을 하는 선사들의 설법도 이랬다저랬다, 부처라고 했다가 부처가 아니라고 하고, 깨달음이 있다가 하다가 깨달음이 없다고도 하니,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갈등하고 재신심 내기를 여러 번, 그렇게 세월을 보내어서 결국 조계로 끝에 당도하게 되면 비로소 모든 선사들의 가리킴이 하나에 귀착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손가락이 5개이나 모두 손바닥에 모이듯이 천 가지 만 가지 설법은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는 무엇일까? 만일 나에게 묻는다면 "66번을 넘어져도 모르는 것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보배로운 달이 중천에 걸려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 귀를 막고 말았어."

問 如何是寶月當空 師云 塞卻老僧耳

보배로운 달이 중천에 걸려있다[寶月當空]는 것은 항상 일심과 평정을 잃지 않고 자동으로 중심이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 소위 동정일여니 몽중일여니 하는 경계를 얻은 것인데, 이 경계에 들어가려면 피눈물 나는 수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설사 이런 경계에 들어갔다해도 스승에게 그 경계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은 스승의 귀를 막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인가? 선사에게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아무 말도 듣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는 것 자체가 그 이유이다. 선사를 만난 후 마음이 답답하거든 얼른 두꺼비에게 큰 소리로 물어보라. 거기서 틀림없이 깨달을 분이 있을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35〉

'苦' 벗어나는 수행 출발점…삼세인과 윤리

업-② 업보윤회설(業報輪廻說)

선한행위에 대해서는 즐거움이라는 결과가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긴다는 자업자득의 윤리가 불교의 업설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선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 가는 경우도 있고, 악한 행위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온갖 영화를 누리다 가는 경우도 많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에 걸친 인과관계[三世因果]로 설명하고 있다. 삼세인과의 가르침에 의하면 현재에 괴로움이 지속되는 것은 과거에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한 과보이고 이 생이 끝날 때까지 누리는 부귀영화는 과거에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한 과보라는 것이다. 여기서 과거는 전생까지 포함시킨 과거를 말한다. 그리고 현세에 행한 행위는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선악의 업이 그 행위에 대한 과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삼세에 걸쳐 존속하고, 그 과보에 의해 각각 지옥 · 아귀 · 축생 · 아수라 · 인간 · 천상의 세계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업보윤회설이다. 이 여섯 세계[六道]중 지옥 · 아귀 · 축생을 3악취(惡趣)라 하고, 아수라 · 인간 · 천상을 3선취(善趣)라 한다. 인간의 선악의 정도에 따라 악한 행위를 한 자는 악취에, 선한 행위를 한자는 선취에 태어남으로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과보를 받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업보설을 부정하는 것이야 말로 사견(邪見)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견이란 선도 악도 선악의 과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견이 있는 한 사제설(四諦說)이나 연기설(緣起說)과 같은 불교의 독자적인 가르침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보윤회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명 가능한 윤리의식이고 이러한 윤리의식이야말로 부조리한 고(苦)의 세계에 대한 자각과 그 고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수행의지의 출발점인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업보윤회설을 절대적인 숙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인도의 신분계급제도인 카스트(caste)가 기원전 1300년 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고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것은 인도인들이 전생의 업에 의해 현생의 삶과 계급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카스트란 제사 종교 학문을 담당하는 바라문과 왕족이면서 군대 정치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농업 상업 등에 종사하는 평민 바이샤, 노예계급인 수드라의 네 계급을 말한다. 이 중에 자신이 현생에 수드라 혹은 바이샤로 사는 것은 전생의 악업 때문이므로 현생에 자신의 계급 속에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면 내생에는 크샤트리아나 바라문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것은 업보윤회설을 숙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잘못 해석한 경우이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업설은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예컨대 십이연기설중 첫 번째 괴로움의 원인인 무명을 멸하지 못한 자는, 즉 연기에 대해 무지한 자는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행(行), 즉 업의 잠재력 혹은 업에 의해 여섯 갈래의 세계[六道]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명을 멸한 자는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짓지 않게 되고 육도에도 윤회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육도에 윤회하며 집착과 고통속에 사는 중생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에는 반드시 책임과 과보가 따른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업에 대한 과보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노력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노력이란 다름 아닌 무명을 멸하고 사제와 연기법을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다. 진리를 깨달아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는 이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㊵



어떤 존귀한 수행자들은 신자들이 보시한 음식을 향유하면서 삿된 삶을 산다

〈잘리야숫타(Jāliyasutta)〉

여기 섬(島)이 있다. 섬은 고독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섬에게도 바다가 있지 않는가. 또 육지와의 왕래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섬과 그 섬을 둘러싼 환경(사회)와의 관계로 출가의 교단을 설명한 것은 사사키 시즈카((佐々木 閑)) 교수다.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원영 스님 옮김, 민족사)에서이다. 섬은 그를 둘러싼 바다나 육지의 지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승가 역시 사회의 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승가라는 하나의 '섬'을 사회로 만들어 주는 것, 마치 섬을 지지해 주는 바다나 육지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밥'이다. "신자들이 보시한 음식"이다. '밥'을 통해서 승가와 사회가, 출가자와 재가자가 서로 연결된다.

신자들은 음식을 보시한다. 음식을 보시하지 않는다면, 신자라 할 수 없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다. 재가자, 즉 사회는 출가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야 한다. 다행히 인도는, 그렇게 수행자들이나 유행자(遊行者)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전통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곧 신이다"라는 말이 바라문교의 고전 우파니샤드에서 이미 설해졌다.

그럼 출가자들은 '밥'을 보시해주는 재가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법'이다. '법'을 잘 닦아서 얻은 뒤에, 그 '법'을 전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정답을 말씀하시는 데 급하지 않으셨다. 그 이전에 먼저 자각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출가자들은 "신자들이 보시한 음식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想起)시킨다.

특히 〈잘리야숫타〉는 많은 생활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늘 이 말씀을 그 앞에 위치시키고 있다.

예컨대 "어떤 존귀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신자들이 보시한 음식을 향유하면서 이와 같이 (----) 점술과 같은 저속한 지식으로 삿된 삶을 삽니다." (전재성, 〈디가니까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원문의 '혹은'을 '어떤'으로 고침)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히 강박관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올바른 수행의 출발점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이리라. '법'을 추구하는 출가수행자들이지만, 정작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밥'의 문제이다. '밥'의 엄숙함을 잊고서는 '법'의 터득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자, 생각해 보자. 세속 사람들이 얼마나 '밥'을 위해서 고투(苦鬪)하고 있는가.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다시 결혼시키고, 자신의 노후대책까지 다 마련하는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모든 인생사, 즉 가정기(家庭期,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의 시기)의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우리는 한마디로 '밥'이라 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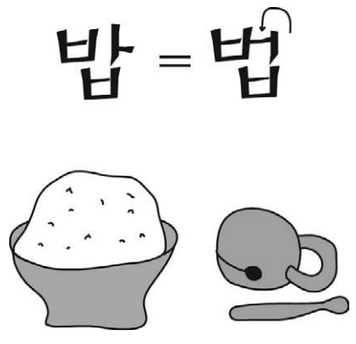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그렇게 어려운 '밥'인데, 그 '밥'을 출가자를 위해서 보시하였다. 떼어놓았던 것이다. 그런 '밥'을 신도들로부터 그냥 얻어서 향유(享有)한다면, 출가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것 아니겠는가. 물론 경전은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늘 잊지 않는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신도들이 보시해 준 음식"의 무게는, 잊으면 잊을수록 무거워질 뿐이다. 다음 생에라도 다 갚아야 할 빚(債務)의 무게로 말이다. 파산신청이나 신용회복과 같은 탕감(蕩減)받을 길은 애당초 없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 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온라인통장(농협) : 227027-51-090791 · 예 금 주 : 남궁성균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전문가인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모 심인불교대학 집
제2기생

근본불교(根本佛教)와 기본교리(基本教理)는
밀교사상(密教思想)의 진리(眞理)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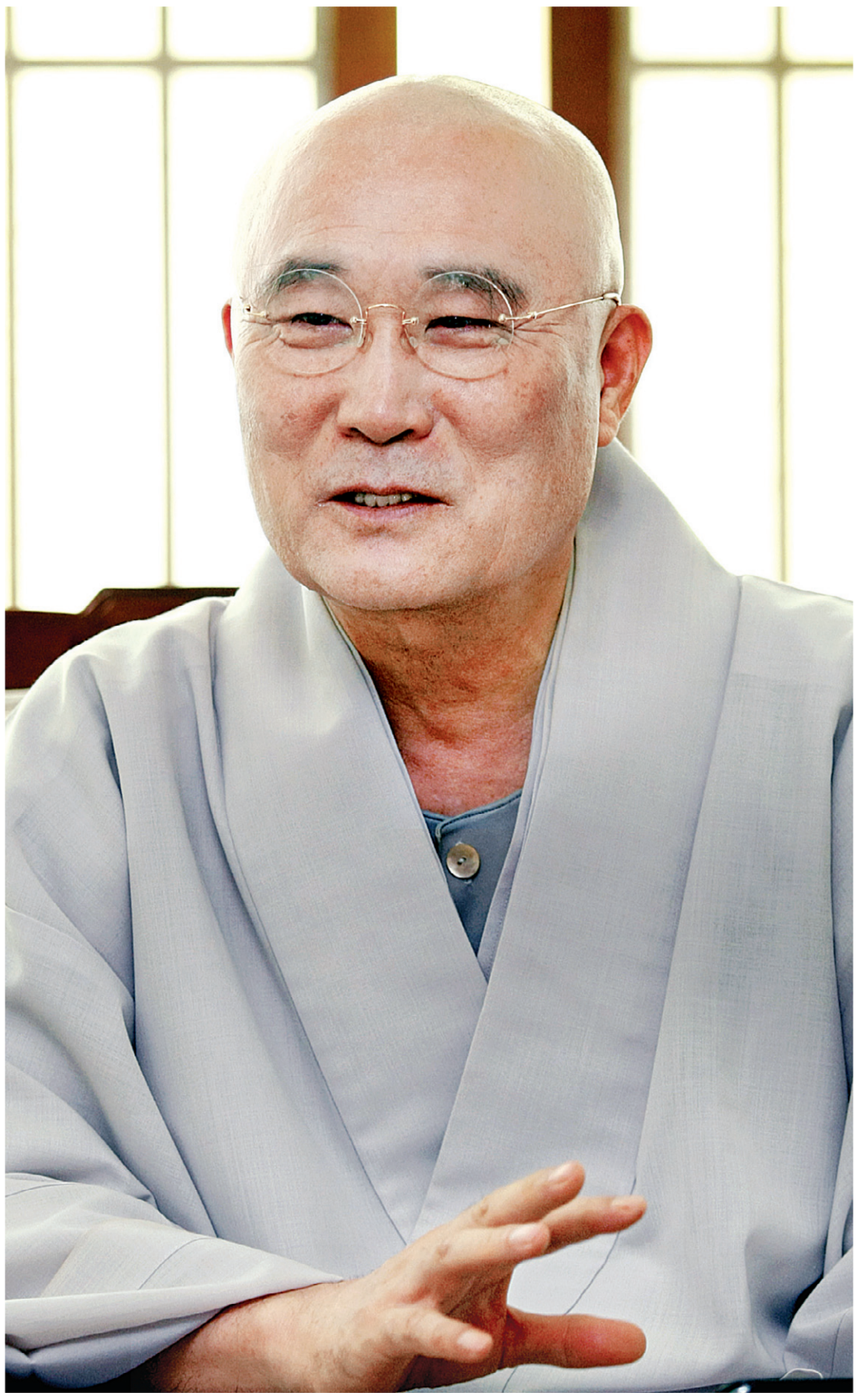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대 상 : 남녀노소(男女老少) 누구나 환영합니다.
◆과 목 : (1) 불교의 기본교리,
(2) 밀교사상과 수행법.
(3) 만다라의 세계,
(4) 현밀(顯密)의 성불론(成佛論)
◆강 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
◆준 비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제출
◆등록금 : 100,000원
◆교재비 : 30,000원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무애정사〈심인불교대학〉
전화 031)692-3653 / 팩스 031)692-3654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9〉

“포교는 시대를 앞서 읽고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삼보사 ·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은 … 문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지원 스님은 196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 했다.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포교원 포교국장, 칠장사 · 법흥사 · 삼보사 · 육지장사 주지, 제9대 · 14대 · 15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조계종 포교원장과 서울 삼보사 및 양주 육지장사 회주를 맡고 있다.
시집 〈장명등〉과 서간문집 〈마음이 열리면 천당도 보이지요〉가 있다. 논문으로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해결중심 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선불교적 접근방식을 중심으로(석사)’가 있다.

“법당을 굳이 찾지 않아도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회주로 있는 육지장사에서는 3년 전부터 법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혹시 나이가 많으신 보살님들이라도 종무소로 스마트폰을 갖고 오면 어플도 다운받아 주고 자세히 동영상 법회도 볼 수 있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삼보사 · 육지장사 회주)은 자리에 앉자마자 스마트폰 포교에 대한 얘기부터 말문을 열었다. 그만큼 지원 스님은 변화하는 포교 환경을 미리 예상하고 남보다 한 발 앞선 포교 전략을 세워 한국불교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어린이법회’ ‘도심 포교’ ‘찬불가 포교’ ‘산사음악회’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지원 스님은 “포교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감동과 환희를 전해줘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앞서는 포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9월 제 6대 포교원장에 선출된 지원 스님은 취임하자마자 역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포교 전략에 주목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미디어부문을 강화하겠다고 표방한 것이다. 1년여의 결실이 최근 빛을 보기 시작했다.

내달부터 인터넷 모바일TV 방송인 에브리온TV 안에 포교원TV가 개국을 한다. 이에 포교원은 지난 10월 9일 현대HCN과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 이로써 포교원은 현대HCN이 운영하는 에브리온TV 채널에 (가칭)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TV(108번 채널)를 확보해 지속적인 포교콘텐츠를 방송한다.

“종교채널을 확보해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 ‘한글반야심경’ ‘예불문’ ‘찬불가’ 등 다양한 포교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HCN은 방송콘텐츠 제작에 대한 기술기능을 협조하고 포교원 콘텐츠의 화질개선, 용량압축 등 콘텐츠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포교원 채널 활성화를 위해 에브리온TV내 배너광고 및 지역 뉴스채널을 통한 홍보에 나설 것입니다. 이에 포교원에서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포교원 TV 시험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 · 공간을 초월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 역시 현대에 사용되는 소셜네트워크(SNS)와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하는 지원 스님은 이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얼리 어답터다. 스님은 불자들을 비롯한 신도단체회원들과 1만명 팔로어 맺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스님은 “포교도 시대와 계층에 맞게 진행돼야 합니다. 포교원 종도들을 비롯해 포교원 산하단체가 소통이 돼야 하지요. 이 시대야 말로 포교하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소통이 되면 포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집니다. 이미 종단에서 2~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층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소통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지원 스님은 사회에서 대두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불교가 책임의식을 갖고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혼, 자살, 알코올중독 등 여러 사회 문제에 불교계가 앞장서서 근절할 때 국민들이 감동해서 불교에 관심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교입니다.”

40여 년 가까이 현장에서 포교활동을 해온 지원 스님이 전법활동중 가장 잘한 일로 ‘어린이 · 청소년 법회’ 개설을 꼽았다. 1984년 처음 15평짜리 임대법당서 포교를 시작했던 지원 스님은 “처음에는 포교의 ‘포’자도 몰랐습니다. 삼보사 인근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며 볼펜으로 직접 쓴 ‘공부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직접 학생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3명의 학생들이 법당을 찾더군요. 그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비법보다는 공부를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인내심을 심어 줬습니다. 스님들이 강원서 교육받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교육시켰지요. 정신집중을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매일 108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반에서 30등 하던 학생이 10등을 하는 등 아이들 성적이 오르더군요. 점차 입소문이 퍼져 1984~1985년도에는 100명의 아이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삼보사, 육지장사 창건은 서원불사
어린이 법회와 문화포교 등에 새바람
‘건강 템플스테이’ 개발 큰 호응

“계층에 맞는 어플 만들어 소통확대 할 터”
SNS 등 미디어를 포교에 적극 활용
11월 인터넷 모바일 포교원TV 방송 개국

지원 스님은 그 후 15평짜리 법당서 50평짜리 법당으로 옮겼다. 아이들이 점차 모이자 학부모들도 함께 스님의 법당을 찾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 계기로 삼보사와 육지장사가 창건된 것이다.

지원 스님은 “당시 어린이법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임대료 낼 돈이 없어 겨울에 중부시장에서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김을 팔기도 했지요. 부처님께서도 길에서 전법을 시작해, 길에서 생을 마쳤듯이 포교는 직접 대상을 찾아다니며 해야 합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어느 정도 정착되자 지원 스님은 문화포교에도 힘썼다. “1993년부터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지방순회공연을 다녔습니다. 당시 100여명의 어머니합창단과 30명의 관현악단을 구성해 3년 동안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노래는 사람 마음에 커다란 감동을 전해 주지요. 그래서 문화포교야말로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해 주는 포교 방편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1995년 4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서 열린 민족통일 기원 불교성가 대합창 음악제는 6천여 명이 몰릴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환희심과 법열감에 휩싸인 관객들은 장엄한 찬불가 선율에 매료돼 많은 박수를 보냈다.

당시 ‘삼보사 합창단 순회공연’은 불교계에 핫 이슈가 됐고, 문화포교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지원 스님은 이런 대규모 공연들을 통해 한국 찬불가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당시 유명 작곡가였던 변규백 선생과 뜻을 모아 천수천안 관음송가 교성곡을 만들기도 했다.

지원 스님의 포교 원력은 1997년 경기도 양주 도리산 기슭에 육지장사를 창건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법수행 정진도량’을 표방하고 나선 육지장사는 2001년부터 시작된 ‘주5일 근무제’를 고려한 ‘주말수행, 레저포교’를 펼치기 위해 건립됐다.

1997년 4월 개산제를 올리고 첫 삽을 뜬 육지장사는 이듬해 미얀마 양곤 마하보디수도원에서 부처님 사리 이운불사로 총 5과의 오색사리를 봉안하여 육지장사에 황금쌍탑을 봉안했다. 그리고 6년만인 2003년 10월 대웅보전에 본존불, 석가모니불, 육지장보살 등을 점안했다. 천상계와 인간계, 아수라계와 축생계, 아귀계와 지옥계 등 육지장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도량이라 사명(寺名)이 육지장사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육지장사는 도심에 지친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산사프로그램을 운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고즈넉한 산사’다.

육지장사를 참배한 이는 누구나 청량한 기운과 산세에 반하고, 웅장하게 장엄된 가람에 놀란다. “육지장사는 ‘숲속의 절’입니다. 청정한 감로수가 있고, 노루와 고랑이가 뛰놀고 산새소리와 백옥으로 장엄돼 있어 도시민의 심적 불안과 갈등, 온갖 스트레스로 찌든 삶을 정화할 수 있는 일종의 수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원 스님이 설계한 ‘휴식형 사찰체험’ 프로그램도 이같은 맥락이다. 조석예불과 공양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스스로 산사생활을 체험하며 휴식을 취한다. 1박2일도 좋고 2박3일도 괜찮고 3박4일도 무방하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사시설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심신 개선을 위한 명상, 요가, 단식 수련회도 육지장사만의 톡톡 튀는 포교프로그램 중 하나다. 좋지 않은 생활습관과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강과 장수’를 화두로 운용되는 행사다.

지원 스님은 “수련회는 오염된 신체를 걸러내고 마음을 비워줌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화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와 물 좋기로 유명한 육지장사가 단순한 수행도량이 아닌 ‘생기도량(生氣道場)’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란 단어도 일반화 되지 않은 때 지원 스님은 일찌감치 현대인들의 고민에 맞춰 건강템플스테이라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중 상시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지원 스님은 서울 삼보사와 양주 육지장사를 넘나들면서 생활불교와 대중포교를 실천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행복공동체’를 현실화했다. 뿐만 아니라 미군 대상 군포교에 매진했고 20여년 간 꾸준히 펼쳐온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감동과 환희 전해야죠”





경기도 양주 도리산 육지장사. 15년 전, 주5일근무제를 대비해 도심서 벗어나 템플스테이와 다양한 수련회를 통해 문화적 수행과 포교를 실천하기 위해 창건된 도량이다. 사진 왼쪽은 1997년 육지장사 창건 법회 장면. 오른쪽은 육지장사 전경.

해외 포교에도 적극적이었다. 미얀마 낙후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대량의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기증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의 해외 한인청소년과 외국인 2세를 위한 ‘재외교포 한민족 전통문화체험 수련회’ 등 좀처럼 보기 힘든 이례적인 문화포교행사도 보란 듯이 열었다.

“포교의 기틀은 체계적인 조직과 원만한 시설, 그리고 참신한 인재발굴에서 구축됩니다. 절이 있고 스님이 있고, 또 스님의 원력이 갖춰졌다고 해도 성공적인 포교를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신도조직을 체계화하고 포교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완비돼야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두루 갖춰졌다고 해도 포교를 선도할만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원활한 포교를 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까이에 있는 신도들을 잘 관찰하면 활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할 것입니다. 신도의 개성과 적성, 전공과 특이점을 살펴서 포교인재로 발굴 육성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빌딩불사에만 집중하면서 스님 혼자 법회보고 포교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지원스님이 2000년 이후부터 천착해온 ‘문화와 복지 포교’ 혹은 ‘동호회 포교’의 출발 이유다.

지원 스님의 ‘맞춤포교’는 삼보사 초창기 신도들이 2세 3세까지 대를 잇는 결과로 나타났다. 30여 년 전 삼보사의 사격(寺格)을 함께 갖춰왔던 ‘원조 신도’들은 지금까지 삼보사 신도회의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다. 지원 스님에 따르면 초창기 신도 임원의 상당수가 여전히 삼보사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신도들을 끄는 포교도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신도들과 변함없는 마음을 나누며 신도조직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철저한 신도관리가 관건입니다. 어느 사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신도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는 신도만큼이나 소중한 것이지요. 신도카드에 신도의 생일과 가정환경, 잘하는 장기나 전공 등 신도의 다양한 정보를 수록합니다. 카드에 수록된 생일을 뽑아 사찰에서 생일불공을 올립니다. 또 수시로 신도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특히 관혼상제를 철저하게 챙겨드리면서 사찰과 스님이 신도들의 삶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30여년 전 만들어져서 이제는 누렇게 찌들어 빛바랜 신도카드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수행과 신행에도 권태기가 오기 마련”이라며 “그런 시기에 마음을 움직여주는 다채로운 포교프로그램을 꺼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젊은 신도들에겐 인터넷 이메일로 경전구절이나 마음공부하기 좋은 이야기를 전송하기도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어린이 화술수련회를 개최, 관찰에 길들여진 영상세대들에게 제대로 말하는 법을 깨우치도록 돕는가하면, 사찰에서 성대한 성년식을 열어서 성인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스님의 철저한 신도관리와 맞춤포교는 ‘불자 인재’의 양성으로 귀결된다. 어린이. 청소년법회를 뿌리로 다재다능한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과 능력이 드러나기 마련이며, 그 실력은 사찰을 시범무대로 해서 빛을 발한다.

요즘처럼 사찰에서 각종 문화행사가 성황을 이룰 때, 공연기획을 공부하는 신도가 있으면 그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아마추어에게 어떻게 맡기나?’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 더 참신하고 더 훌륭하다는 게 경험해본 스님의 조언이다.

“사찰운영은 시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얼마의 금전이 아니라 신도의 능력과 기능을 보시받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보다 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건물불사를 했을 때도 설계나 건축자재 등에 있어 신도들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더니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나 절감했습니다. 원력과 신심이 있으면 조언자와 동참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기술적 시주가 가능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스님이 최근 들어 ‘동호회 포교’에 방점을 찍은 이유도 불교가 생활과 문화의 중심축이 되리라는 확신 때문이다. “우리는 왜 수행을 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포교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수행하고 포교하는 것입니다. 복지의 근본사상인 동사섭(同事攝)의 목표와 상통합니다. 삼보사에는 현재 10여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사찰 동호회라고 해서 경전읽고 기도만 하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댄스동호회, 와인동호회, 골프동호회, 뮤지컬동호회, 미디어동호회 등 다양하지요.”

스님은 ‘동호회 포교’에 활기를 불어넣어서 문화와 복지를 아우르는 ‘미래포교’의 새로운 전력을 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적인 가족상담을 통해 심층적인 복지 심리포교를 구축해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 “가족은 바른 사회의 주춧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베풀면서 웃음과 행복을 나누면 부처님의 자비를 통해 가정이 달라지고 마침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0여년 전 삼보사합창단을 만들어 문화 포교의 큰 중심을 이루기도 했던 지원 스님에게 문화포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지원 스님은 “과거 5년전 산사음악회가 붐을 이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사찰들에서 음악회를 2~3회 해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 둘 중단돼 지금은 침체기라 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을 바꿔서 대규모 산사음악회를 지양하고 2~3명이 나와 이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도 연주 할 수 있는 하우스식 소규모 공연을 한다면 비용 부담도 해소 할 수 있고 문화포교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오히려 큰 규모 보다는 단순하고 소규모를 더 좋아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트랜드에 맞는 맞춤포교도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 30~40대 청년 불자들에게 ‘재즈’ ‘와인’ 등 동호회를 만들어 소모임 포교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글=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싸리꽃 필 때면



동국대 명예교수

우리 생활에 친근하고 삶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함께 해온 싸리나무. 조직이 치밀하고 탄력이 뛰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빗자루 · 소쿠리 · 삼태기 · 바지게가 그렇고 싸리담장이나 사립문 역시 싸리나무를 이용해 만들었다. 이렇게 생활용품을 싸리나무로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한다. 쌀이 항상 집안으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기야 농경사회에서 주 수입원이 쌀이었으니까 그럴 만도 할 일이다. 싸리나무의 용도는 또 있다.

예전엔 방 한 켠에 회초리 한 두 개쯤은 놓여 있었다. 회초리는 서당 훈장님만 사용했던 전유물이 아니고, 부모님들도 자식 교육과 예절을 가르치느라 집안의 상비약과 같이 마련해 두었던 게 흔한 일이었다. 회초리를 싸리나무로 쓰는 이유가 있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종아리에 상처를 내거나 어혈이 들 경우 성장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공부하는 데도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서 싸리나무를 곧잘 썼던 것이다. 그야말로 사랑의 매였다.

어느 경우 상대에게 지도편달을 바란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글로 쓰기도 한다. 이 때 편달의 편(鞭) 자는 관리를 벌 할 때 쓰는 말이고, 달(撻) 자는 매질한다는 뜻이다. 편복이라고도 하는 데 칠복(?) 자는 학생을 훈계할 때 쓰는 말이다. 편이던 복이던 간에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사람 노릇 잘 하라는 가르침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살 쯤이었는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린 날의 추억이 있다. 이 싸리꽃이 필 때가 되면. 추억이라기보다 어찌 생각하면 큰 공포가 나의 잠재의식 속에 똬리를 틀고 있다. 전말은 이렇다. 둥지에서 나오는 암탉을 보고 닭장에 들어가 계란을 내어 먹으려고 꺼내들고 닭장문에 톡톡쳤다.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험이 쌓이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의도하는 만큼 적당히 깨어지지 않았다. 바싹 깨져 줄줄 흐르는 흰자위를 입에 가져갔다. 웬걸, 비린내에 물려 이내 손에서 떨구고 말았다. 이러한 행위는 어른들의 일상 모습에서 보아왔던 터라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유희를 보신 것이다.

넓다란 마당 가운데 세워 놓고 금세 두엄간에 놓인 싸리빗자루를 추켜들고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아 드셨다. 종아리를 걷으라 하시고 두서너 차례 때렸다. 천둥소리 없는 번갯불이 오갔다. 왜 맞았는지 이유를 설명하셨다. 어째서 말을 하지 않고 먹었느냐는

것이다. 사실 먹은 것도 아니지만. 정직하지 못하다는 질책이었다. 막내아들이 계란 하나 쯤 먹었다는 것이 뭐 그리 아까운 일이었을까. 아깝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식에게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간곡한 가르침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님의 마음은 다양하기도 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을 이르는 말을 시례지훈(詩禮之訓)이라고 한다.

아버지 앞을 뛰어가는 아들을 보고 ‘시를 배웠느냐’ 고 물었다. ‘아직 못 배웠습니다.’ 하자,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잘 할 수가 없다’ 고 하였다. 또 한 번은 ‘예를 배웠느냐?’ 고 묻자, ‘못 배웠다.’ 고 대답하자, ‘예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갈 수가 없다’ 고도 하였다. 물론 여기서 시니 예니 하는 말은 〈시전〉과 〈예기〉를 이르는 말이다. 공자가 아들을 가르친 내용인데 〈논어〉 계씨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시서를 익혀 입신양명하고 예의범절을 잘 익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선 하는 일은 정직이 아닐까 한다. 정직이 상실된 세상은 황량하다. 뿐만 아니라 불신이 만연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준 힘은 무엇일까. 세상사에 뒤엉키지 않고 살 수 있었던 힘은 정직이었노라고 회상해 본다. 아버지의 가르침. 싸리빗자루에서 뽑은 회초리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지금의 아이들 마냥 밥상머리 교육을

아버지, 정직 중요성 강조

싸리 회초리 교육용 상비약

받으며 ‘뭐 하라, 뭐 하라’ 조목조목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짧은 만남이었으니까. 다만 정직하기를 가르쳐주셨다. 참 간단명료한 가르침이다. 부자의 인연을 맺어 소중한 선물을 받았으니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다.

학교에 가면 교훈이 있다. 교실에는 급훈도 있다. 물론 가정에는 가훈도 있기 마련이다. 나의 좌우명이 된 정직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 정직하지 못하면 얼마만한 혼돈을 일으키는지 〈어린왕자〉에서 가르치고 있다.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나온다. 만약 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면 그가 그린 지도는 얼마나 엉터리가 될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 엉터리 지도를 들추고 길을 찾아가려고 나서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시행착오가 있을까를 역설하고 있다. 세존도 바라이를 중죄라 하여 교단에서 추방하는 벌을 내렸다. 바라이 죄는 살 · 도 · 음 · 망을 일컫는데 대망어(大妄語)가 있다. 수행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거짓말 하는 것이다. 거짓말이야말로 교단을 어지럽히고 서로 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경계했던 것이다.

난 생각한다. 나를 있게 한 회초리도 찾을 길 없고 자식을 훈계하시던 아버지의 결연한 모습 또한 찾을 길 없다. 그러나 연중행사처럼 싸리꽃이 필 때면 잔잔한 물결같이 가슴에 밀려온다. 미풍의 속삭임으로 귓전을 스치고 있다. 그 모습과 그 어조가.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2012년 신제품 경전학습기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경을 일부씩 공부하다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며 기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이센스 경전학습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일관성 있게 편집하여 탑재하므로써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화면을 보면서 듣고 반복할 수 있도록 체계성과 정확한 강사의 음성을 들어 학습할 수 있도록 짜여진 시청각 경전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Tel. 02-488-2061 P.h 010-5699-872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농협 : 302-1737-6214-71 김보균(2~3개월무이자 카드결제가능)

현대불교신문 18주년

| 창간을 축하합니다 | A18 전면광고

과거, 현재, 미래의 것 모두 놓아 버려라. 윤회의 바다 건너 피안에 올라서는 때 그대 마음 온전히 해탈하리니 두 번 다시 생사의 흐름에 들지 않으리 – 법구경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종 정 범담 정각

원로부의장 **명종** 원 로 간 사 **법운**
원 로 의 원 **청송 유공 도기 지공 미산 법헌**

총 무 원 장 **호월 화엄** 종 회 의 장 **원경 삼주**

호 계 원 장 **용암** 포 교 원 장 **진공** 감 사 원 장 **해동** 선거관리위원장 **보월**
총무원부원장 **상원**

총 무 부 장 **광은** 교 무 부 장 **법광** 재 무 부 장 **동해** 규 정 부 장 **정원**
포 교 부 장 **지현** 홍 보 부 장 **일성**

재비실천나눔회장 **광명심** 봉사위원장 **청정심** 조직위원장 **문상철** 사 업 부 장 **김유광**
사 회 국 장 **보성**

경기남부종무원장 **일성** 경기북부종무원장 **지산** 경북교구종무원장 **해동** 전남교구종무원장 **지현**
전북교구종무원장 **성각** 충청교구종무원장 **상원** 제주교구종무원장 **대성** 대전교구종무원장 **정원**
부산교구종무원장 **정일** 울산교구종무원장 **지운** 대구교구종무원장 **보각**

종정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 1동 323~194 미룡사. 051)404~4300
총무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2층)
전화 041)566-2277, 566-2278 / 전송 041)566-6141

◈ 입 종 안 내 ◈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초대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유훈을 계승하여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의 큰 발원으로 일붕존자의 수법제자이시며 재)일붕선교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법담 정각 대종사님을 초대종정으로 모시고 지난 7월 24일『창종선포대법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지면을 빌어 본 종의 창종에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원근각지의 청정승가와 불자여러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열린종단 · 교육 · 수행종단 · 개혁과 혁신의 종단』을 표방하는 본 종단에서는 "일붕"의 큰 그늘아래 하나 되고자 하는 일붕문도와 일붕존자와 소중히 인연된 청정승가, 법사, 재가불자님들께 언제나 입종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사오니 함께하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불기2556년 10월 17일

(사)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호월 화엄

(사)대 한 불 교 본 조 계 종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원로위원 용 담. 혜 암. 지 연
종 정 회 암
사서실장 용 광

총무원장 융호 수석부원장 산수
고시원장 혜공 법규원장 혜산 중앙선원장 보륜 감사원장 정민
법사원장 마생 복지원장 진묵 호법원장 청암 교육원장 법향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묘건. 대공. 혜철. 중무. 혜운. 법묵. 현덕. 정주. 법향.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여진

총무부장 성공 재무부장 고운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도문 복지부장 덕화 문화부장 자은
조직부장 무진 규정부장 법장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보광 포교부장 철유 교육부장 자운

서울교구종무원장 청담 경기교구종무원장 법묵 대전교구종무원장 혜철 강원교구종무원장 보륜
부산교구종무원장 대안 대구교구종무원장 중무 경북교구종무원장 무진 전남교구종무원장 독성
충남교구종무원장 여진 경남교구종무원장 경덕 전북교구종무원장 보명

고문변호사 이종일.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스님

서울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제76호 전화 02)3436-0796~7 팩스 02)2201-1163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타종

현대불교신문 18주년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 총무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305호 전화 02)2242-1049 . 011-9090-1049

(사) 현대불교조계종

현대불교신문 18주년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 총무원 : 대전 동구 가오동 293-1 보광사 / 총무원장 · 주지 동화 전화 042)283-5896 / 011-769-0300



태고종 영산재보존회가 세계 각국을 돌며 시연하고 있는 영산재 공연에 세계인들이 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2010년 3월 잠실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영산재의 한장면.

세계 문화유산 '영산재'… 인류 정신문화 상관성 모색

영산재 보존회, 제10회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

10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하며 한국불교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영산재(靈山齋)가 수 세기가 지난 후에도 본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의 보존과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한 국제학술세미나가 영산재 1번지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열렸다. 2003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10회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는 1987년 이후 영산재보존회를 중심으로 매년 세계 각국에서 영산재를 시연하는 등 문화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려오고 있다. 특히 영산재보존회는 2003년 1회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표적 불교예술로서 세계적 무형문화재 보존가치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 공연과 텔아비브대학에서 거행된 제9회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는 유대교와 불교 등 종교 간의 통섭을 통해 내적 · 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회째를 맞이한 10월 5일 신촌 봉원사 옥천범음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 영산재 학술세미나에는 보존회 소속 스님 50여 명과 관련학자 100여명이 참여해 장엄을 더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심상현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영산작법이 모든 재의식에 선행되는 의식임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심 교수는 '영산수륙' '영산각배' 등 영산작법이 당시 모든 불교의식에 사용됐음을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원허 스님 "영산재, 불교 최상법식"

이날 신촌 봉원사 범음대학 세미나실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학회 주관 하에 '불교의식의 현황 - 과거 · 현재 ·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해 영산재보존회 총재 구해 스님, 옥천범음대 학장 원허 스님,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 등 관련 스님들과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법현 스님 등 각계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옥천범음대학 학장 원허 스님은 개회사에서 "영산재는 불교의식 중 가장 장엄한 최상의 법식"이라며 "이제 우리는 영산재가 세계 다른 문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류 공통의 정신문화와의 상관성에 대해 연구할 것"이라고 방향을 밝혔다.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은 "일제강점기 존폐 기로에 섰던 영산재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 등의 노력이 있었다"며 "영산재 원형을 찾고 우리 자산을 물려주는데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상현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재의 종류와 분류법에 관한 일고찰' △양은용 원광대 교수의 '한국 불교의례의 전통과 석문의범' △박진태 대구대 교수의 '한국 영산재와 작법무' △정재만 숙명여대 교수의 '승무와 불교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김세종 동국대 교수의 '불교음악 선율분석' 등 국내 학자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심상현 교수 "영산재는 불교 선행의식"

"영산재는 모든 의식의 선행의식으로 여타 재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됐다. 모든 전통의식은 영산작법이 구성된 11세기 이후 비로소 '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심상현 동방대학원대학교 동방문화학과 교수는 영산재 의식이 불교의식에서 필수요소임을 역설했다.

심 교수는 "지금까지 재와 작법의 구분 없이 혼재된 상태에서 사용됐지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영산작법은 헌공의식인 상단권공을 의미하고 '영산재'는 시련 절차 등 전체 의식을 말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영산 작법이 구성되기 전 수륙재를 예로 들면 엄밀히 말해 수륙작법으로 불러야 한다"며 "영산작법와 수륙작법을 합친 재라는 의미에서 '영산수륙'이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런 예는 영산각배라는 재의 명칭이 사자성어 처럼 당시 통용됐음에서 살필수 있다"며 "한국의 모든 재는 영산재로 통일되고 그 세부 목차에 '영산' '수륙' '예수' '각배' 등 4종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심상현 교수는 또 "봉원사 영산재는 '영산 수륙' '영산 예수' '영산 각배'를 아우르는 의미의 영산재"라며 "영산재 기능보유자가 수륙재, 예수재, 각배재 등을 모두 봉행할 수 있어야 함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불교 의식의 명칭도 영산 수륙재 등으로 고쳐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박진태 교수 "작법무 미학 가치 충분"

박진태 대구대 교수(문화재위원)는 영산재의 작법무가 그 사상적 미학뿐만 아니라 운동미, 구성미, 감정표현의 미학도 우수한 불교공연 예술이라고 평했다.

박 교수는 "영산재의 작법무 중 법고춤과 타주춤은 정중동의 예법과 우주적 생성의 미, 몸과 소리의 파동 등을 표현한 최고의 예술"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바라춤과 나비춤 또한 분석하면 작법무의 미학적 특성이 총제적으로 파악될 것"이라며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 예능보유자인 정재만 숙명여대 교수도 "불교의식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중동의 움직임은 윤회사상을 비롯해 당시 철학사상을 반영한 몸놀림"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 중국 등 국 내외 석학 15명, 영산재의 문화적 요소 조명
세계문화 가치 재확인, 불교문화 보급 통한 국민정서 순화 효과

의은 스님 "불교예술이 국민정서 순화"

서울 불광산사 주지 의은 스님은 대만에서 불광산 불교문화예술 전파가 국민정서를 순화하고 문학 희곡 등 다양한 문화영역의 저변확대에 기여했음을 들고 영산재를 비롯한 불교문화예술의 보급을 주장했다.

의은 스님은 "대만에서 불교예술은 문화예술영역에 영감과 깨우침, 그리고 풍부한 창작내용을 불러넣고, 서로 융성하게 하는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일 중국연변대 교수도 "불경 번역과정에서 중국에 전파된 범문의 병음자모는 중국문화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며 "중국 전통 음악의 표현형식을 바꾸었으며 민간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최근 북경, 상해의 불교음악단이 세계순회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음악단 역시 세계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영산재 세계순회공연 또한 불교문화를 통한 세계문화 선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전에서 영산재 및 범패의 기반을 찾기 위한 연구 논문도 발표됐다.

김세종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조교수는 '한국 범패선율의 사성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 범패선율의 4성 체계는 음운이 아닌 발성과정에서 나오는 고저장단"이라며 "1826년 긍선 스님이 편찬한 〈작법귀감〉에 그 음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은용 원광대 교수는 "1935년 안진호가 찬집한 〈석문의범〉은 영산재를 비롯한 전래 의식을 한글로 편집해 전하고 있다"며 "불교의례집의 존재는 당시 작법의식이 꾸준하게 요청됐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국제학술세미나에는 150여 대중이 모여 영산재 의미를 되새겼다.



원허 스님



법현 스님



심상현(만춘) 교수



김세종 교수



박진태 교수



양은용 교수



정재만 교수



의은 스님

불교 세계무형문화유산 무엇이 있나?

제10회 학술세미나에서는 해외 발표자 투고논문으로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방글라데시의 바울 노래 (BAUL SONGS OF BANGLADESH)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존활동에 대한 소개가 법현 스님의 사회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방글라데시 바울 노래

방글라데시 벵골인들의 고대 음악은 대부분 기도음악이다. 대부분의 민속노래는 신에 대한 찬양과 창조와 연관돼 있다.

바울들은 방글라데시 시골지방과 인도 서벵갈의 신비주의 음악가들로 그들의 음악과 삶의 방식은 벵갈 문화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인도시인 타고르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바울들은 마을 근처에 살거나 이곳 저곳을 떠돌며 '엑타라', 줄이 하나인 '루테 도타라', 북의 일종인 '둡키'를 이용해 반주하고 노래한다.



부탄 드라메체 북춤

2005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탄의 고전 춤은 종교적 가장행렬과 의식적 춤의 일종이다. 8세기 만들어졌으며 마하야나 불교 전통의 한 부분으로 뿌리내렸다. 15세기 들어 부탄 문화생활로까지 영역을 넓힌다.

부탄 탈춤은 퇴마의식의 일종으로 춤을 보는 것으로 죄악을 벗고 깨우침의 길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수 있다고 믿어진다.

매년 체추, 드롬초에 같은 축제기간 사찰과 수도원 등에서 3~5일간 진행된다. 이 춤은 16명의 가면을 쓴 남자무용수들이 춤을 춘다.



인도 쿠티야탐

2001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인도 쿠티야탐은 고대 산스크리트 연극에서 파생된 극의 일종이다. 최근까지 공연 날짜는 점성술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됐으며 공연 자체는 죄악을 속죄하는 극적 봉헌으로 간주됐다. 쿠티야탐 공연은 두 브라만 문중에서만 가능하다.

공연은 몇일 밤낮으로 진행된다. 현재 트리슈르에 칼라만다라람 센터, 트리반드룸에 말기 센터, 이린잘라쿠드에 차키아르 매드혼 센터 등이 지어져 다양한 인도 계층과 외국인들에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노오

노오(能)는 14세기 후기 정립돼 600여년간 전승돼 온 일본 고전극이다. 현재 대본이 남아있는 노오의 종목은 1700여종에 달하며 현행 노오로서 상연 가능한 곡만도 약 240여종에 달한다.

노오의 원류는 사루가쿠(猿樂)라는 것으로 11세기 헤이안 시대부터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흉내는 내는 것으로 행해졌다.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는 직업적인 예술단체인 좌(座)가 생겨난다. 16세기 후반에는 노오의 질적 변화가 시작돼 노오를 익히는 것이 사교의 조건이 되고 신분 상승을 위한 조건이 되기도 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54번째 선지식 '생텍쥐페리'

선재동자와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는 선재동자를 보고 어린왕자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오행산에서 풀어주어 제자를 만들어 서역으로 떠나는데, 가는 길에 여섯 명의 강도를 만난다. 강도들을 본 손오공은 그들을 모두 때려죽인다. 손오공의 살생을 본 삼장은 엄히 꾸짖는데, 손오공은 버럭 화를 내고 떠나 버린다.

이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석가세존이 만드신 세 개의 머리테를 건네는데, 그것이 바로 긴고아와 금고아 등이다. 그리고 긴고주와 금고주를 외우면, 그 테는 머리를 파고들어 눈이 튀어나오고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겪는다.

그리하여 옥황상제도 어찌 못하는 신통력을 지닌 손오공은 순한 양처럼 삼장법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두 개의 머리테는 서역길에서 만난 흑풍산 흑풍괴와 화염산의 홍해아에게 씌워지는데, 여기부터 흥미진진한 사실이 전해 온다.

사하라 사막 조종사와의 만남

보현행원 찾는 구법행의 하나

흉악한 바람으로 삼장 일행을 괴롭힌 흑풍괴는 금고아를 쓴 뒤 관음보살이 거주하는 낙가산을 지키는 수산대신이 된다. 관음보살은 우마왕과 나찰녀의 아들 홍해아에게 금고아를 씌워 제압한 뒤 선재동자로 삼는다.

즉 낙산사를 지키는 보타락가산 산신은 흑풍괴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 고려불화의 수월관음도마다 그려져 관세음보살을 시봉하는 홍해아는 선재동자가 된 것이다. 홍해아가 살던 화염산(火焰山)은 사실 신장 자치구의 텐산 산맥에 위치한 붉은 사암 언덕이다.

여름이면 지금도 섭씨 50도 이상 올라가는 불덩어리인 이 산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상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에 수행하던 승려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8미터 크기의 삼장법사 일행과 우마왕들의 동상이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충선왕 2년(1310)에 그려져 왜구에게 약탈당해서 지금은 일본 경신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가미진자 수월관음도에 보면, 머리에 띠를 달고 있는 선재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수월관음도인 이 탱화를 그린 여러 화원들은 이미 선재동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화엄경에 따르면 선재동자는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을 구한다. 구도의 열정에 불타는 선재는 "원컨데 저에게 해탈의 문을 열어 주시고 모든 뒤바뀐 헛된 꿈을 멀리 여의게 해주소서(願開解脫門 遠離諸顚倒)"라고 문수보살에게 간청한다.

그 간청을 받은 문수보살은 "깨달음의 높은 뜻을 발하여(發菩提心) 선지식을 구하고(求善知識) 보현행원을 갖추어라(具足普賢行願)"라고 충고해 준다. 즉 선재동자는 화엄사상을 실천하는 전방위의 보살인 것이다.

이런 선재동자와 어린 왕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1943년 발표한 소설인 〈어린 왕자〉는 사실 그가 수월관음도의 선재동자를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한다.

지금은 저작권도 없어서 많은 출판사들이 아직도 다투어가며 작자가 직접 그린 아름다운 삽화를 넣은 많은 판본들이 시중에 넘쳐난다. 현재까지 18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아직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는 자기의 작은 별에서 여러 별을 거쳐 지상에 내려온 어린 소년왕자와 만난다. 비현실적인 이 만남은 실은 선재동자의 구법행의 하나이고, 그 조종사 쌩떼쥐베리는 쉰네번째 선지식이 되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소설속에서 말한 대사들은 지금도 주옥(珠玉)처럼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탁해져버린 어른의 세계에서 다시 한 번 순수와 원형으로 돌아가는 지침이 되어준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매우 간단한 거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야!" 어릴 적 읽은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100년 격동기 지켜낸 '문화재 이야기'

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展

1997년 문경 김룡사 화장암에서는 절도범과 마주친 스님들이 도난범과 사투 끝에 진영 3점을 되찾는다. 도갑사 목조문수보현보살상과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도난이 미수에 그쳐 가까스로 문화재를 지켜냈다. 무량사 삼층석탑에 봉안되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지장보살좌상, 충북영동 영국사의 영산회상도 등은 재판을 통해 되찾은 문화재의 예다.

지난 100년, 우리의 역사는 혼돈 그 자체였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며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왔다. 시대의 격동기, 우리의 문화재 또한 적지 않은 곡절과 수없는 사연을 담고 격동기를 거쳐 왔다.

때로는 약탈당했고, 때로는 소실되었고 때로는 훼손됐다. 지난 100년 우리 문화유산이 걸어온 구구절절한 사연을 담은 전시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 스님)은 10월 17일~12월 9일까지 '불교문화재 다시 읽기-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展을 연다. 불교문화재 131건 140점(국보 1건, 보물 10건, 시도유형 7건 포함)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단순한 문화재의 나열이 아니라 시대적 의미를 부여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전시는 ▷Ⅰ근현대사 역사 속의 문화재 수난 ▷Ⅱ되찾은 문화재 이야기 ▷Ⅲ한국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수난 ▷Ⅳ되살린 문화재 이야기로 나뉘어 관람객을 찾는다.

'Ⅰ근현대사 역사 속의 문화재 수난'은 해외로 유출되었다가 돌아온 불교문화재를 선보인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상당수의 문화재가 조직적으로 약탈되거나, 도난 당해 국내외로 반출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직까지 그 과정에 대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1965년 한일협정과 불교계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은 문화재 환수 운동 등이 있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거치며
지켜낸 불교 문화재 140점 전시
불교중앙박물관…12월 9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은 10월 17일~12월 9일까지 '불교문화재 다시 읽기-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展을 연다. 사진은 도갑사 문수보현동자상.

왔다.

'Ⅱ되찾은 문화재 이야기'는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불교문화재에 얽힌 사연들을 작품과 함께 담았다. 이들은 제 각각 구구절절한 사연을 품고 있다. 고창 선운사 관음전 금동지장보살좌상과 참당암 동종 등은 절도범이 죄책감에 스스로 원 소장처로 문화재를 돌려보낸 경우다. 이는 불교문화재에 깃든 종교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Ⅲ한국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수난'은 한국 전쟁 중 무수한 고난을 이기며 지켜낸 문화재 이야기를 담았다. 전쟁의 광풍 속에서도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많은 이들이 있었다. 군과 경찰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절을 폭격하고 소각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슬러 천년 고찰과 문화재를 지켜냈다. 작전상 절을 불태우려는 군인들에 대항해 목숨 걸고 사찰을 지켜낸 스님, 문화재를 땅에 묻어 전쟁의 광기에서 보호한 스님들도 있었다. 제3부에서는 이런 노력으로 전쟁을 이기고 우리에게 전해진 문화재와 그에 얽힌 사연을 선보인다. 또한 'Ⅳ되살린 문화재 이야기'는 보존처리를 통해 되살아난 지류·금속·석조 등 다양한 재질의 문화재를 선보인다. (02)2011-196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국사 해체 복원 과정 한눈에"

한양대박물관 '한국건축문화재…'

1990년대 이후 문화유적답사가 대중화된 이후 건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일반인들 대부분 건축문화재가 어떻게 유지 관리 되고 복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한양대박물관이 문화재의 복원과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양대학교박물관과 동대학 건축학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이 10월 15일~2013년 2월 23일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건축문화재가 어떻게 유지, 관리되며 복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불국사를 통해 본 건축문화재 복원 과정이다. 해방 이후 첫 대규모 복원사업이었던 '불국사의 복원'은 중요한 시대적 상징성을 지닌다. 특히 당시 불국사 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현존하는 복원 과정과 단계를 이번 전시에서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전시되는 상당수의 관련 자료들은 1970년대 당시 실제 복원공사의 현장 감독이었던 유문용 씨가 일괄 기증한 자료들이다.

복원 공사 40주년 기념 특별전
현장 감독 유용문 씨 자료 기증

한양대 박물관은 "올해는 불국사 복원공사가 완료된 지 40주년이 된다. 문화재 복원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불국사 복원공사 관련 서류와 도면으로 꾸민 코너를 따로 마련했다. 기타 목조건축문화재의 복원 사례와 그 활용 유형을 정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문화재 복원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한 국가적 사업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당시의 자금과 기술력이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대내외적 정세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한양대학교박물관은 10월 15일~2013년 2월 23일까지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 특별전을 개최한다. 사진 왼쪽은 경주불국사 70년대 장면, 사진 오른쪽은 현재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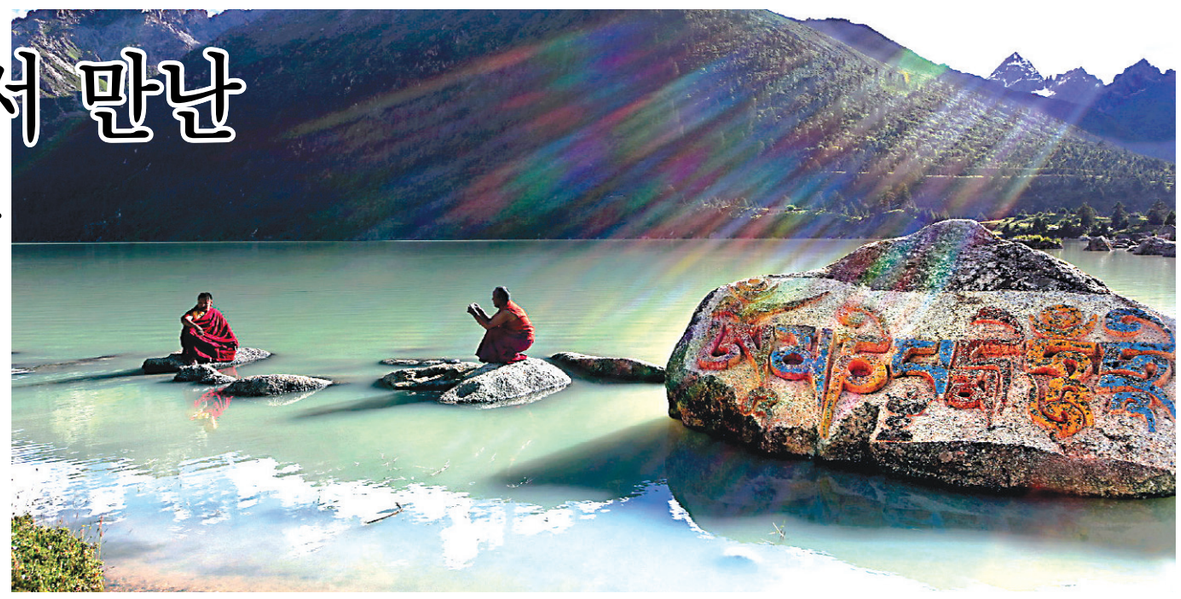
불국사의 복원과정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복원을 둘러싼 당시의 복잡다단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짚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왜 복원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해체 보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철학적 기술적 차원의 종합적 배려가 필요했는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덕사 대웅전 수복 전후 과정 등을 통해서 본 '복원의 다의성과 다양한 방법론' ▷복원된 건축문화재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각자료에 보이는 건축문화재' ▷펜화에 담긴 건축문화재를 살펴보는 김영택 화백의 초대전 등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히말라야서 만난 자연 사람 그리고 진리”



리카르 스님의 사진 전시가 11월 4일부터 종로구 사간동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스님은 히말라야를 품은 네팔, 북인도, 티벳, 부탄 등 고산국가들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왔다.

마티유 리카르 스님 사진전

11월 4일…불일 미술관서
히말라야 주변 여행하며
40년 동안 풍경 담아
전시 강의 수익금 전액 기부

세상은 온통 현란한 것들로 넘쳐난다. 있는 그대로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하고, 더 높고, 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질주에 질주를 거듭한다. 하지만 이 질주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공허하고 삶은 늘 불만족이다. 무엇이 진짜인지 또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혼돈의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존재 가치의 이유를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마티유 리카르 스님의 사진은 광활한 히말라야를 담았다. 그곳의 풍경과 사람 그리고 수행자를 렌즈를 통해 보여준다. 그것은 자연이고 우주고 생명이었으며 또 하나의 순수다. 그래서 그의 사진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과 조용한 탄식과 자연에 대한 경이와 삶에 대한 희망을 일깨운다.

리카르 스님의 전시가 11월 4일부터 종로구 사간동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스님은 히말라야를 품은 네팔, 북인도, 티벳, 부탄 등 고산국가들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광활한 풍경은 물론 종교행사와 사원 구석구석까지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일반 사진작가가 아닌 스님이었기에 가능했다.

그의 카메라는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순수한 자연과 또 그것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담아낸다.

이번 전시는 히말라야, 스승, 사람 세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초원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말떼, 안개에 휩싸인 히말라야의 절경, 고산지대 마을, 날아가는 새 등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풍광들은 평화롭고 장엄하며 온화하다.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 낱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준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일렬로 서서 자유로운 포즈를 취하는 스님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를 자아낸다. 그들의 순박한 눈빛과 표정에서 흐렸던 마음은 환해지고 우울했던 감정은 일순간 밝아진다. 또한 티벳불교 고승들과 명상수행가들의 표정에서는 세상 걱정근심을 녹여낼 만큼의 안정을 얻는다.

마티유 리카르 스님은 세계적인 명상수행가이자 달라이라마의 프랑스어 통역담당, 세포유전공학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사진작가다. 이처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스님은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던 자신의 고민과 환희를 히말라야를 통해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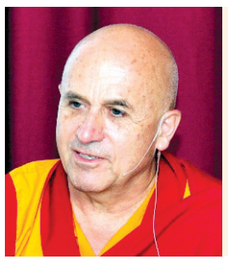
그는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를 여행하기 시작하며 심오한 정신세계로의 탐구를 시작한다. 특히 티벳불교 고승들과 명상수행가들과의 만남으로 스님은 영적 성장을 거듭해 나갔다.

그렇게 그는 히말라야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고 티벳, 자신이 수행하던 사원, 그리고 네팔, 부탄, 인도, 티벳 등 히말라야를 품고 있는 나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40년 동안 사진으로 담아냈다. 이렇게 히말라야 문명을 보존하려는 스님의 노력에 감동한 프랑소아 미테랑 대통령은 그에게 프랑스 국가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그의 작품은 뉴욕, 파리, 페리피낭, 스톡홀롬, 홍콩 등 다양한 도시에서 전시됐다. 그리고 사진집과 전시회, 강연, 인세 수익금은 세계의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 쓰였다.

한편, 11월 1일 입국 예정인 스님은 ▷2일 좌담회 및 토론, 공동 기자회견 ▷3일 대중강의 ▷4일 명상워크숍, 사진전시회 오프닝 등을 펼친다. (010)9588-518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마티유 리카르 스님

마티유 리카르 스님은 1946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스물여섯 살에 분자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고, 노벨상 수상자인 생물학자 프랑수아 쟈콥의 지도 아래 연구 활동을 하던 촉망받는 과학자였던 그는 서른세 살에 승려가 되었다. 현재 그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불교 전문가가 되어 히말라야에서 기거하며 달라이 라마의 통역, 사진작가, 불교 경전의 번역, 국제구호활동 등을 하고 있다.

옥으로 빚어낸 ‘반가사유상의 미소’

광주시청 장주원 작가 전시

녹옥봉황연향로, 다보탑, 반가사유상을 옥으로 재현한 우리 문화재가 광주시청을 찾았다. 광주시는 옥장 장주원 작가의 기증 작품 50여점을 전시한다. 광주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된 옥장 장주원 씨의 작품을 광주시청 상설전시장에서 선보인다.

장 씨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옥작품 46점을 광주시에 기증했다. 시민들이 한자리에서 문화재를 관람할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다. 제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작품을 기증하게 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번 상설 전시에는 작가의 최고 걸작품으로 평가받는 ‘녹옥봉황연향로’ 등 기증품 15점과 선생의 소장품 중 가장 큰 작품인 다보탑과 반가사유상 2점 등 17점이 전시된다.

특히 반가사유상에 대한 장씨의 사랑은 각별했다. 그는 “우리 문화유산의 미적 아름다움을 옥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년 같은 순수한 미소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희노애락과 미추를 융화시키며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할만한 미소라고 생각한다. 그 미소를 제 작품을 통해 다시 표현해보고자 했다”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립미술관에서 소장중인 작가의 옥작품 중 이번에 전시되지 못한 작품에 대해서도 앞으로 6개월 단위로 교체,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장 주원 작가는



장주원 作 ‘미륵반가사유상’

문화재 옥으로 표현한
기증 작품 50여 점 선봬

1937년 목포에서 태어나 1960년 옥공예에 입문했으며, 1996년 옥 공예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됐다. 특히, 용의 입 안에서 따로 도는 여의주를 깎아내는 환주(環珠) 기법과 ‘고리연결기법’ 등 신비스러운 옥공예 기법은 옥공예 종주국이라 자처하는 중국에서도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신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혜숙 기자

“지장경 17680 자에 담았다”

최규일 작품전…10월 17일부터

전각가 현로 최규일 작품전이 10월 17일~23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서 열린다. 작가는 강원도 횡성의 작업실에서 지난 5년간 작업해온 〈지장경〉 17680글자를 65개의 작품에 담았다.

그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새벽 4시에서 밤 12시까지 하루 꼬박 20시간을 작업에 매진했다. 그에게 있어 전각 작업은 수행과 같은 것이다. 최 씨는 “오랜 시간 불심으로 작업을 해왔다. 금강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보원행원품, 아미타경, 원각경 ‘보안보살장’ 등 불경을 돌에 새기며 나를 닦고 있다”고 전한다.

최씨는 전각을 불심을 담는 가장 아름답고도 위대한 도구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두를 던져 작품에만 매진한다. 문화기획자 강준혁 씨는 그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선생의 전각은 문자를 조형예술로, 도장을 전각예술로, 전각을 판화로 바꾸어 놓았다. 선생의 전각은 이제 더 이상 케케묵은 유물처럼 취급당할 필요도 없으며 산사화나 붓글씨의 여백을 메우는 치장물일 필요도 없다. 달인의 경지에 이른 장인의 손만이 보이지 않는 예술가의 고귀한 영혼을 돌 속에 새겨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최씨는 25년 동안 작업하고 있는 한국의 역사를 고대에서 현재까지 아우르는 작품 ‘코리아 환타지’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앞으로 법화경 2만자를 새겨넣은 작품도 탄생시키고자 한다.

최규일 작가는 85년 경인미술관 초대전, 독일문화원 초대전(1990년), 국립전통공예관의 초대전(1995년), 리투아니아 빌리니우스미술관, 일본경도 국제교류관, 프랑스 코인아트갤러리 등 국내외의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시를 통해 우리 전각을 세계에 알려왔다. 011-9733-6600

정혜숙 기자



최규일 作 ‘지장경’ 전각 일부

신라시대 여성의 삶과 문화

국립경주박물관 강좌 진행

요석공주와 원효,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은 시대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성사적 관점에서 불교미술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시대 여성의 능묘와 부장품’이라는 주제로 문화강좌를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박물관 수묵당에서 진행되는 ‘박물관 여성 문화강좌’는 1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신라시대 사랑이야기’를 비롯해 여왕들의 삶과 신라시대 여성들의 생활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강좌로 진행된다.

강좌는 ▷10월 16일 신라시대 사랑 이야기-요석공주와 원효, 아사달 아사녀 설화(강석근 동국대 교수) ▷10월 23일 선덕여왕을 비롯한 신라의 여왕 이야기 조경철 연세대 교수) ▷10월 30일 신라시대 여성들의 이야기(김정숙 영남대 교수) ▷11월 6일 여성사적 관점의 불교미술 (임영애 경주대 교수) ▷11월 13일 역사 속 여성들의 화장 문화(이지선 화장박물관 학예연구사) ▷11월 20일 조선시대 규방문화-목공예를 중심으로(황지현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11월 27일 조선시대 왕실정치와 왕비들의 생애(윤정란 숭실대 교수) ▷12월 4일 ‘특별강좌’ 경주 여성으로서의 삶-경주의 연극을 이끌다 (이애자 경주시립극단) ▷12월 11일 ‘특별강좌’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법(이왕재 서울대 의과대 교수) 등으로 진행된다.

(054)740-7536





탄생 100주년 맞는 탄허 스님의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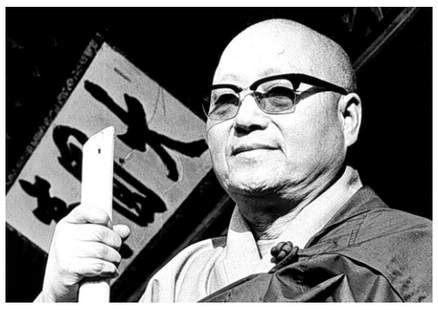
탄허 대종사 연보

탄허불교문화재단 오대산문도회 지음 | 교림 펴냄



"집안의 누(累)와 외부의 사정으로 인욕(人慾)이 날로 불어나 귀는 소리에 끌려가고 눈은 빛깔에 어두워져서 마치 우산(牛山)의 나무가 도기와 연장의 토벌을 당하고 게다가 소와 염소에게 뜯어 먹힌 꼴이 되었습니다. 비와 이슬이 적신다고 해도 싹이 자랄 수 없을 지경이니 그 밖에 남아있는 것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제라는 암흑시기 속에서 나라의 정체성과 해방 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교육과 계몽에 매진했던 탄허 스님(1913~1983 · 사진)의 연보(年譜)다. 탄허불교문화재단이 탄허 대종사 탄생 100주년(2013)을 맞아 발간했다. 서두는 연보에 실린 것으로, 스님이 출가하기 전 20세 때 한암 스님께 보낸 서신의 일부다.



스님은 1913년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에서 태어났다. 이른 시기에 한학과 도학 등 학문에 눈뜬 스님은 오대산 한암 스님과 서신을 주고받은 뒤 1934년 22세의 나이로 오대산 상원사에서 출가했다. 오대산 월정사 조실을 지냈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선원 원장을 지냈다. 동국역경원 초대 원장이 되어 역경에 큰 공을 세웠다. 동양철학에도 해박하여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 열린 동양학 세미나에서 화엄학을 강의하기도 했으며, 특히 대만대학교에서 비교종교에 대한 특강을 하여 세계적인 석학으로 추앙받았다. 1983년 월정사 방산굴에서 세납 71세, 법랍 49세로 입적하였다.

700쪽에 달하는 연보는 한암 스님과 주고받은 서신을 비롯해 경봉 스님에게 올린 서신, 상량문과 중창기 등의 기록문과 상원사 사적비 등의 금석문, 신문 기사, 각종 저술, 사진자료 등이 담겨 있다. 열반 후의 자료들도 별도로 묶었으며, 〈방산굴법어〉의 내용도 담겨 있다.

"보내온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도(道)로 향하는 정성을 족히 보겠노라. 장년의 호걸스러운 기운이 넘쳐 업을 지음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를 때에 장부의 뜻을 능히 세워 위없는 도를 배우고자 하니, 숙세(宿世)에 심은 선근이 깊지 않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으리요. 축하하고 축하하노라." 앞의 서신에 대한 한암 종사의 답신이다. 700쪽의 연보 한 권이 생전의 한 순간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남겨진 후학과 당신을 잊지 못하는 불자들에겐 충분한 '의미'다. **박재완 기자**

능엄경이 있는 곳은 정법이 있는 곳



능엄경 강설 상,하
반라밀제 번역
선화 상인 강설
정원규 편역
불광사 펴냄
8만4천원(각권 4만8천원)

"불교에는 매우 중요한 경전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전은 바로 〈능엄경〉이다. 〈능엄경〉이 있는 곳은 바로 정법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능엄경〉이 없어지면 이것은 바로 말법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각각의 불교도는 반드시 힘을 다하여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 〈능엄경〉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중국 위앙종 9대 조사 선화 상인(宣化 上人, 1918~1995)의 능엄경 강설이다.

〈능엄경〉은 705년 당나라 때 반라밀제가 한역한 것으로, 갖춘 이름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이고 줄여서 〈수능엄경〉, 〈능엄경〉 등으로 부른다. 총 10권으로 되어있는 〈능엄경〉은 스님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교과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불교에서는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과 함께 강원의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는 경전이다. 인도의 나란다에서 비장(秘藏)하고 있으면서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왕명에 의하여 당나라 이전까지는 중국과 한국 등에 전해지지 않다가 705년 중인도 스님 반라밀제가 가지고 와서 한역했다. 이 경의 가르침은 분별하는 버릇을 버리고 자신에게 불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아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 가르침의 폭은 대, 소승의 현교뿐 아니라 밀교사상까지 가미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정을 역설하고 있으므로 밀교 쪽보다는 선가에서 환영을 받아 주석가들 대부분은 선가의 스님이었다. 불교의 대(大), 소(小), 현(顯), 밀(密)을 두루 갖추어서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으로 불리기도 하는 〈능엄경〉은 선불교의 소의 경전 가운데 하나이자 한국불교의 근본정신 가운데 한이기도 하다. 그런 중요성으로 인해서 한글 창제 후 첫 번째로 번역된 불교 경전이기도 하다.



대불정수능엄경 권 2~4, 권 6~10. 보물 764호

제1권에서는 칠처징심(七處徵心)을 주제로 하고 있다. 부처님이 제자 아난과의 문답을 통해 마음을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밝힌다. 몸 안, 몸 밖, 감각 기관, 어둠으로 감춰진 곳, 생각이 미치는 곳, 감각기관과 대상의 중간 지점, 집착하지 않는 곳 등 일곱 장소를 들면서 마음이 있는 곳을 물었으나,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도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아난은 다시 마음이란 마치 돌과 나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그것 또한 분별망상이라고 설한다. 제2권에서는 깨달음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개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한다. 제3권에서는 세간의 만법이 모두 여래장의 미묘한 진여성이라 하여 마음의 영원불멸성을 깨우치고 있다. 제4권에서는 여래장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중생들이 미혹하게 된 원인과 업을 짓는 근원, 수행할 때의 마음가짐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3, 4권은 여래장 사상의 발달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제5권에서는 수행할 때 풀어야 할 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풀어야 할 근원적인 업의 매듭은 육근(六根), 육경(六境), 육식(六識) 등이며, 이를 풀어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인연을 법회에 참석한 제자들이 각각 체험담으로 진술한 것이 이른바 25원통이다. 제6권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몸으로 화현함을 밝히고, 이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관음의 능문문(能聞聞)의 수행문임을 설한다. 제7권에서는 해탈의 문에 들어가는 주문인 능엄다라니를 설하고 그 공덕을 밝히고 있다. 제8권에서는 보살이 수행하는 단계로 57위(位)를 설한 뒤 경의 다섯 가지 이름을 밝히고,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신선, 천인, 아수라라는 일곱 갈래의 중생이 생겨난 원인과 그 각각의 생존양상을 설명했다. 제9권에서는 말세에 중생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50가지 마(魔)에 관해서 그 원인과 종류를 밝혔으며, 제10권에서는 공덕과 유통에 관하여 부언하는 것으로 맺는다.

임제종, 조동종, 위앙종, 법안종, 운문종 등 선가 5종의 법맥을 이은 허운 선사(虛雲, 1840~1959)의 제자 선화 상인은 10권으로 이루어진 〈능엄경〉을 내용별로 23개의 부로 나누어, 어렵고 복잡한 구절을 명쾌하고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이번 선화 상인의 〈능엄경 강설〉은 196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불교강당에서 '능엄경 하계연수반'을 열어 96일간 강의한 것을 정리한 9권의 〈선화 상인 해설 능엄경〉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원본의 내용이 방대하여 중요한 강설만 따로 추려서 2권 1질로 엮었다. 처음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를 묶은 것이라서 상인의 꼼꼼하고 자상한 해설은 전문수행자가 아니라도 〈능엄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참선 수행과 함께 이루어진 경전 강의 덕분에 중국불교의 실제 신행 생활과 수행 가풍을 엿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교+사회복지=불교사회복지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손능인, 김혜도, 최영신 저 | 운주사 펴냄 | 2만원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 가족 부양 의식의 약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 개인적 이기주의 팽배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증가 속에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불교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커다란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회적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책은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폭넓은 영역의 이해를 통하여 불교사회복지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불교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에게 불교사회복지의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불교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총 8장으로 구성하여, 불교사회복지의 개념과 대상부터 불교사회복지의 과제까지 살펴본다.

불교계는 종단 산하에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그동안 개별적 관심 수준에서 진행되던 불교계의 사회복지활동들이 보다 효과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교사회복지의 역할 정립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교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폭넓은 영역의 이해를 통해 불교사회복지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에게 불교사회복지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불교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책은 총 여덟 개의 장에서 불교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의 관점에서 정립하고, 종교와 사회복지가 만나 종교사회복지가 성립된 배경, 개념과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불교의 본질에 입각하여 불교사회복지의 사상을 자비, 평등, 연기, 생명존중사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사상들의 핵심에 부처님의 자비가 바탕이 되고 있음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불교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실천원리로서 보살 사상과 보살도로서의 보시행과 복전사상, 윤회사상과 사회봉사, 보은사상과 복지활동 등을 제시하면서 사섭법, 사무량심, 육화경, 대기설법 등 그 밖의 불교사회복지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사회복지를 비교했다. 제5장에서는 불교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전달하는 근거가 되는 체계를 법 규정과 전달체계로 나누어 고찰했다. 제6장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교정, 의료, 지역복지와 자원봉사 등 적용분야별로 그 개념과 현황, 그리고 과제를 다루고 있다. 제7장에서는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 종단 차원의 사회복지와 사찰 차원의 사회복지 실천의 당위성과 현황 모범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불교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과 궁극적 목적,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책은 불교사회복지의 전반에 걸쳐 그 개념과 사상, 원리와 역사적 발달과정, 실천체계와 각 분야론, 현 실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불교사회복지에 관한 종합적 개론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3~10/9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6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7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8	김치나무에 핀 행복	일운	담앤북스
9	백일법문	성철	장경각
10	선화 상인 능엄경 강설	정원규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minjoksa.org

경전 강의시리즈 출간!

그동안 수많은 불자님들의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 교재

경전강의시리즈는 다른 책과 다릅니다.
1. 대학승 · 대강백 스님들의 경전 강의 내용을 한 권의 책에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2. 경전 원문과 그 독음, 번역, 강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어려운 한자를 골라내어, 그 독음과 뜻을 원문 바로 옆에 달았습니다.
4. 경전 강의를 들으며 직접 필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5. 한 권만 있으면 다른 보충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6. 경전 강의를 하려는 선생님께, 경전 강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재용으로 적합합니다.
7. 실양장제책을 하여 360°로 짜악 펼칠 수 있습니다.

교재 01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
472쪽 | 25,000원

대학승이신 성본스님의 금강경 강의!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중생심을 끊어버리고 타파하는 경전이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교재 02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624쪽 | 28,000원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의!

유마경은 출가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불교를 철저하게 비판하여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엄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 240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왕초보 한문 박사 되다



김형중 지음 | 288쪽 | 12,000원

불교 한문 초보자를 위한 맞춤 도서

1. 최초의 불교 한문 공부 교재
2. 해석 방법과 문법 소개
3. 경전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소개함
4.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는 한문, 이제 글자로 보인다!

금강경, 유마경서 찾은 긍정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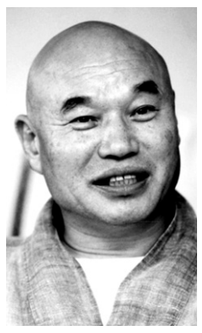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무비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2만8천원

금강경, 깨지지않는법

성본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2만5천원



무비 스님



성본 스님

〈민족사 경전강의시리즈〉는 경전 강의 수업을 들으며 불편했던 고충 해결을 위해, 한 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경전 원문과 독음, 번역을 실었으며, 또한 경전 원문 옆에는 어려운 한자 풀이를 함께 넣어, 옥편 없이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추가 메모장 없이도 강의 내용을 직접 필기할 수 있도록 메모 공간을 충분히 둔 것도 특징이다. 민족사는 앞으로도 경전강의시리즈를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유마경〉… 대승불교 핵심 총망라

〈유마경〉은 재가 거사인 유마힐을 내세워 출가중심주의의 형식적이고 소승적인 부파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진의를 드러내고 있다. 유마힐은 세속에 있으면서도 대승의 보살도를 성취해 출가자와 같은 종교 이상을 실현하며 살고 있었다. 유마힐은 방편으로 병이 들었는데 문병 오는 사람에게 설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제자들에게 유마힐의 병문안을 명했지만, 일찍이 유마힐로부터 힐난을 들은 적이 있는 제자들과 보살들은 병문안 가는 것을 극구 사양한다. 유마힐은 비록 세속에 있지만, 대승의 궁극적 가르침을 자각하였기에 십대제자들과 보살들이 그를 상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문수보살이 부처님 명을 받아 유마힐의 병문안을 가게 된다. 두 사람은 상대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대화한다. 여기에서 진정한 불이법문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유마힐의 침묵은 〈유마경〉의 압권으로 꼽힌다. 유마힐은 기존 출가 중심의 불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당시 불교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승적 삶을 탈피해서 남을 배려하고 세상을 먼저 구제하는 대승보살 정신을 밝힌 가르침이다. 이에 저자인 무비스님은 '유마경은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 라고 표현한다.

무비 스님, "유마경 대승불교 선언서"
성본 스님, 난해한 부분 쉽게 해설

옛사람들은 〈유마경〉의 큰 뜻을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두었으나 저자는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생명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산천초목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라는 가르침을 그 큰 뜻으로 삼고 있다.

〈유마경〉은 대승불교의 근본과 줄기들을 총망라해 불교공부의 진실로 돌아갈 바를 남김없이 제시하고 있다. 참으로 화려하다 못해 현란하다고 서슴없이 표현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무비 스님은 〈유마경〉을 통해 갖가지 번뇌에서 고통받는 현대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자 하는데 이 책을 펴낸 목적이 있다고 전한다.

〈금강경〉… 대승경전 요체 집약

〈금강경〉 법문을 최상, 제일 희유(第一希有)한 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소승불교의 법문이 많이 유행되는 시대에 공(空)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공, 법공, 일체개공의 경지를 깨달아 대승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성본 스님(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은 이렇듯 대승경전의 요체가 집약된 〈금강경〉의 난해한 개념을 명확히 짚어내어,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강경〉은 한국불교에서 가장 널리 읽혀지는 경전이지만, 그 심오한 깊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면서도 심리적 거리감을 느낀다. 하지만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은 모두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어렵게만 느껴지는 〈금강경〉을 친숙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저자인 성본 스님은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대승경전을 꿰뚫어 강의, 해설한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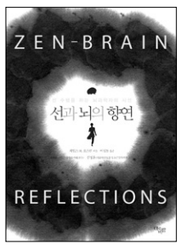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매사의 모든 일이 새롭고 신선하고 진실된 생명활동이 이루어진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이 안보이는 것은 여법하게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점과 사유가 부족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로 판단해 포기한다.

원력으로 이루는 긍정의 지혜는 중생을 부처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과 무기력의 포기에서 희망과 지혜로운 생명활동을 되살리는 힘이다. 선근 공덕을 이루는 원력의 힘은 중생심의 의심을 불심의 신심으로 전환하게 하며, 불가사의한 지혜인 부처를 이루고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의 회향이 된다. 저자는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바로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김주일 기자**

선과 뇌의 상호적 관계 독특하게 재해석

선과 뇌의 향연

제임스 H.오스틴 지음 | 이성동 옮김
대숲바람 펴냄 | 6만2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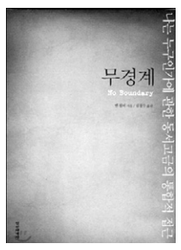
최근 종교적 체험 혹은 선 체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뇌 영상 촬영 기술이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뇌과학 혹은 신경과학 분야에서 종교적 신비 체험, 선 체험 등을 하는 인간의 뇌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량화된 연구가 신속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 책 저자인 오스틴 박사 역시 불교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오랫동안 해온 본인의 선 수행 체험을 바탕으로 선과 뇌의 상호관계를 독특한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의 핵심 탐구 영역은 선이란 무엇이고, 선 수행을 할 때 실제로 인간 뇌는 어떻게 움직이며, 명상과 깨달음의 경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이다. 오스틴 박사는 선이 갖는 신경 생물학적 기반과 그 신경 생물학적 바탕 위에서 이뤄지는 주관적 체험 현상을 단순화시키려는 목적 아래 최근의 뇌과학 연구와 뇌 영상 연구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해답을 탐색해나간다. 특히 선의 깨달음과 달빛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문헌적 · 예술적 전통의 탐색을 통해 새롭게 성찰하는 것은 저자가 가장 공들인 부분 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선과 뇌과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 두 분야가 서로를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아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9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내면적인 개별 자아' '일반적 뇌 영상 연구가 갖는 한계' '의식에 대한 탐구' '의식의 변화에 대한 몇 가지 기초적 이론' '의식 상태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 유무' '몰입' '핵심적 통찰에 해당하는 견성과 깨달음' 등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마지막 제9부에서는 '달빛' 이 견성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동서양 심리기법과 치료 등 포괄적 안내

무경계

켄 윌버 지음 | 김철수 옮김
정신세계사 펴냄 | 1만5천원



〈무경계〉는 정신분석에서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실존주의에서 탄트라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여러 심리학적 접근과 기법, 치료법을 두루 안내해주는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지침서이다. 켄 윌버는 그것들을 전부 통합한 하나의 큰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의식의 전모를 쉽게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나는 누구인가?" – 아마도 문명의 여명기부터 인류를 괴롭혀왔을 이 물음은 오늘날까지도 인간에게 가장 성가신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역사상 실로 무수한 답들이 제시되어왔지만, 그 어느 것도 아직 속 시원하게 우리의 존재론적 의문을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답들을 일일이 검토하는 대신에,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다"라고 답할 때 반드시 선행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작업' 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스로 '나' 를 묘사하거나, 설명하거나, 또는 느낄 때마다 당신은 예외 없이 마음속에다 일종의 정신적인 경계(境界)를 긋는다. 그런 다음 그 경계의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을 '나' 라고 느낀다. 반면에 그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나 아닌 것' 으로 느낀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그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달려 있다. 즉,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의 본질은 "당신은 어디에 경계를 설정했는가?"라는 의미인 것이다.

윌버의 첫 번째 저술인 〈의식의 스펙트럼〉의 핵심주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일반 독자를 위해 간소화 내지 대중화시킨 책으로, 일반 독자들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애쓴 저자의 노력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제철 재료로 해먹는 음식이 단연 최고 음식"

김치나무에 핀 행복

일운 스님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7천원



일운 스님(전국 비구니 선문회 부회장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지난해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레시피〉에 이어 최근 김치를 주제로 한 〈김치나무에 핀 행복〉을 펴냈다.

이 책에는 경북 울진 불영사 천축선원의 안거 수행과 더불어 불영사만의 특별 비법으로 버무린 84종의 김치 관련 요리 레시피가 담겨져 있다.

사찰음식은 식감을 높이기 위해 몸에 해로운 재료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꾸준히 먹으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며 과격한 성격도 변화된다. 몸이 더욱 건강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져서 행복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이웃도 함께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사찰음식에 담긴 의미다.

이 책은 불교의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우리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함께 발전해 온 발효음식 김치를, 불영사 천축선원의 안거 수행과 더불어 소개하고 있다. 신라 진덕여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불영사는 동해 일원의 최대 비구니 선원 도량으로도 유명하다. 나물을 캐고 밥을 짓는 등 살림 일체를 비구니 스님들이 도맡아서 한다. 일운 스님 밑으로 출가한 비구니만 63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김치 요리에는 자세한 레시피가 함께 들어 있어 굳이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직접 가정에서 해먹을 수 있다. 사계절 내내 다른 맛과 모습으로 건강을 책임지는 김치를 통해 단순 음식 개념을 떠나, 그 하나하나의 소중함과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좋은 기회다.

책의 구성은 봄안거, 여름안거, 가을안거, 겨울안거 등 4편으로 나눠 계절에 어울리는 김치 및 김치활용 요리를 싣고 사이사이에 계절별 절집 살림살이를 수행 이야기로, 삽화로, 에세이로 풀어놓았다.

저자 일운 스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고 너무 바쁘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음식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스님은 "재료를 제철에 손쉽게 구해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좋아요. 봄에는 상치 · 쑥 · 냉이, 여름엔 열무김치 · 민들레김치, 가을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가지 · 호박 요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역시 김치죠."라고 계절 음식을 소개한다.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일운 스님은 건강의 비결로 역시 음식을 꼽았다. 그는 "불영사 하면 열무김치와 보리밥, 된장이 최고로 꼽힌다"며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고 영양도 충분하다"고 추천했다.

한편 일운 스님은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매년 사찰음식축제를 열고 있다. 김치 · 버섯 · 나물 · 장아찌 등 108가지 이상의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축제에 온 이들에게 무료로 공양을 제공하는 자리로, 올해가 4회째다.



김장 김치를 꺼내고 있는 일운 스님

김치 요리 84종 레시피 담아
불영사 천축선원 안거 소개
일운스님, 매년 사찰음식전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강화 고려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 / 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초음파 방역 시스템

기화방제소독, 방충, 훈증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각종 해충 및 흰개미로부터 예방과 살충에 특화된 첨단의 제품으로 문화재, 박물관, 사찰, 한옥, 전원주택, 목구조물, 공공장소, 기타에 사용합니다.

방역, 방재 .소독기술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정부에서 시행한 기술재발과제로 상용화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인증(HT제2008-0001/36호) 을 받은 환경보존형 공간 소독기술입니다.

•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 (내부 분사)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열(고온)에 의한 기체화 방식이 아닌, 연속다중 초음파를 이용하여 방역약품을 실온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극 초미립자 상태로 기화하는 환경보존형 공간방역소독기술인 보건복지부 보건 신기술인증기술입니다.

• 초음파 연무방제소독기술 (외부분사)
초음파 연무살균소독기는 일반적인 노즐과 공기충돌방식이 아닌, 압전(PIEZO)진동형 V-Hom Nozzle를 이용하여 방역소독약품을 분포도가 균일한 초미립자 상태로 분사하는 공간 살균,방역 소독기술입니다.

www. 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
031)451-6232 팩스 031)451-6238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청년 미륵 즉 미륵반가사유상 모델은?

화랑과 원화로 세상에 나퉈 불법 홍포

1. 젊은 싯다르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의 참다운 면목은 무엇인가?', '저 벌레는 왜 새에게 먹혀야만 하는가?',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대자유인의 길' 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젊은 시절의 싯다르타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半倚] 한쪽 손가락을 턱에 괴고 사유(思惟)하는 젊은 미륵의 모습은 젊은 싯다르타의 모습과 겹쳐진다.

그의 모습 속에서 서울 남산 자락에 앉아 자신의 미래를 고뇌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모습과도 겹쳐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또는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는 메시지가 장안의 지가를 높이는 지금 젊은 싯다르타의 모습이 청년 미륵과 겹쳐지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지금 일본 용곡대학에 교환강의를 와서 나라(奈良)시대 이래의 옛 수도인 교토(京都)의 광륭사 법당에 앉아있는 미륵반가사유상과 한국의 수도 서울 용산 국립박물관에 앉아있는 국보 83호와 78호 미륵반가사유상을 나란히 떠올려 보고 있다.

『삼국유사』「탑상」편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彌勒善花 未尸郎 眞慈師) 조목에는 미륵대성이 화랑(花郎)으로 화현(化現)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지왕(眞智王)대에 흥륜사의 승려 진자(眞慈, 貞慈)는 늘 법당의 중심인 미륵상 앞에 나아가 발원하여 맹세하였다. "바라건대 우리 대성(大聖)께서 화랑으로 화작(化作)하여 세상에 나타나시어 제가 항상 대성의 얼굴을 가까이 뵙고 받들어 시중들게 해 주옵소서."

그 정성이 간절하고 지극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날로 두터워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경전 속의 미륵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미륵대성이 화랑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하도록 지극히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다.

즉 미륵을 도솔천에 상주 설법하는 보살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신라 사회로 청해 내려서 국선화랑으로 현실화하여 신라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지점이다. 그리하여 진자를 비롯한 신라인들은 미륵의 화현을 신라 사회 속에서 실현시키고 있다.

어느 날 밤 진자의 꿈에 한 승려가 나타나 말하였다. "네가 웅천(공주) 수원사(水源寺)로 가면 미륵선화(彌勒仙花)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꿈에서 깨어 놀라고 기뻐서 그 절을 찾아갔다. 열흘 걸리는 길을 걸어가는데 한 걸음[一步]마다 한 번씩 절하면서[一禮] 그 절에 도착했다. 절 문 밖에서 복스럽고 섬세하게 생긴 한 소년이 있었다. 어여쁜 눈매[盼]와 예쁜 눈맵시로 그를 맞이해서 작은 문으로 모시고 들어가 객실로 안내하였다. 진자가 올라가면서 읍하며 말하였다. "그대는 평소에 조금도 알지 못하는 터에 어찌하여 이렇게 은근하게 대접하는가?" 그 소년이 말하였다. "저 역시 서울 사람입니다. 덕이 높은 스님께서 먼 길을 걸어 이곳까지 오시는 것을 보고 위로했을 뿐입니다." 이윽고 소년은 문 밖으로 나가더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진자는 그저 우연한 일이라고 여겼을 뿐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절의 승려들에게 지난밤의 꿈과 여기까지 온 뜻만을 이야기 하였을 뿐이다. 또 말하였다. "잠시 이 절에 머무르면서 미륵선화를 기다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절의 승려들은 그가 말하는 정황이 허황하다고 생각했지만 활달하고 은근한 그의 정성을 보고 말하였다. "여기서 남쪽 부근으로 가면 멀지 않은 곳에 천산이 있는데, 옛날부터 현인과 철인들이 머물러 살았으므로 은미한 감응이 많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자는 그의 말을 좇아 천산 아래에 도착하였다. 산신령이 노인으로 변하여 나와서 맞이하며 말하였다. "여기에 무엇하러 왔느냐?" 진자가 대답하였다. "미륵선화를 보고자 합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얼마 전에 수원사의 문 밖에서 이미 미륵선화를 보았는데 다시 누구를 더 찾고자 왔는가?" 진자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급히 달려 즉시 원래의 절로 돌아왔다.

2. 미륵선화와 선화공주

한 달쯤 있자 진지왕이 이를 듣고 조서를 내려 진자를 불러 그 사유를 묻고 말하였다. "소년이 스스로 서울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인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왜 성안을 찾아보지 않는가?" 진자가 왕의 뜻을 받들어 많은 사람들을 모아 동리와 거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를 찾았다.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斷紅] 눈썹이 수려한 한 소년이 영묘사의 동북쪽 길 옆 나무 아래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婆娑] 놀고 있었다. 진자가 그를 보가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이 분이 미륵선화이시다." 곧 나아가 물었다. "낭의 집은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성씨도 듣고 싶습니다." 낭이 대답하였다. "저의 이름은 미시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를 모두 잃어 성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에 가마[肩輿]로 모시고 대궐에 들어가 왕을 뵈었다. 왕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국선(國仙)으로 봉하였다. 그가 여러 자제들과 화목하고 예의와 풍속을 교화시키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 그의 풍류가 세상에 빛난 지 거의 7년이 되자 홀연히 간 곳이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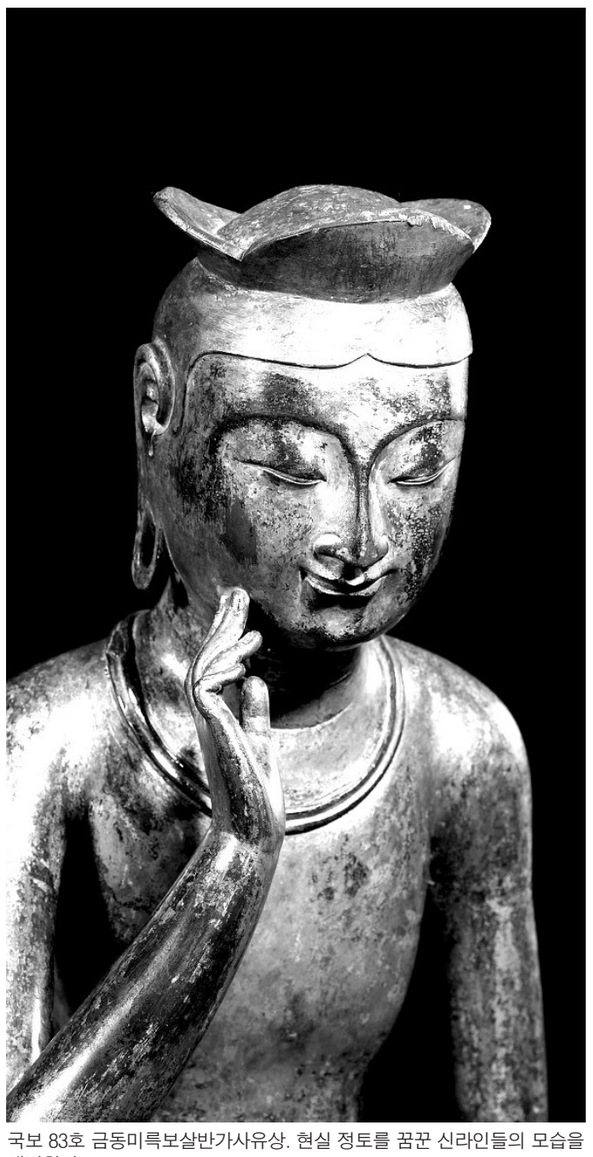
진자가 미륵선화를 애타게 그리워함이 매우 심했다. 그런데 그는 미륵선화의 자비로운 혜택을 흠뻑 입었고[飮沐] 맑은 교화를 받아서 스스로 뉘우치고 정성을 다하여 도를 닦았으나 만년에는 그 또한 끝마친 데를 몰랐다. 때문에 논설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未) 자는 '미'(彌) 자와 음이 같고, '시'(尸) 자는 '역'(力) 자와 모양이 비슷하므로 그 근사한 것을 따서 서로 바꾼 것이다."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정토 선남선녀 상징
일본 목조미륵반가사유상에도 같은 사상 드러나
미륵신앙, 현실적 정토사상 반영
미륵선화에 백제 · 신라 이상 담겨

미륵대성이 유독 진자의 정성에만 감응한 것이 아니라 이 국토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따금씩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도 나라사람들이 신선을 일컬어 미륵선화라 말하며 남에게 중매하는 사람을 미시(未尸)라고 하는 것은 모두 진자가 남긴 풍습이다. '선화'(仙花)는 '선화'(善花)와도 통하며 '예쁜 꽃' 을 의미한다. 진평왕의 셋째딸 '선화' 공주 역시 '예쁜 꽃' 이었다. 결국 신라와 백제의 '미륵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에 동참한 청춘 남녀들은 모두 '원화' 와 같은 아름다운 미소녀이자 '화랑' 과 같은 미소년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신라의 흥륜사 승려 진자가 백제의 중심부인 공주 수원사까지 찾아가 미륵선화를 모셔간 이 사건은 승려로 변장한 서동이 권모를 써서 공주를 배필로 맞아 온 이야기 구조와 겹치고 있다. 때문에 이 두 사건을 하나의 계기 선상에 놓고 신라와 백제 사이에 벌어진 '미륵 쟁탈전' 으로 보는 연구 시각도 있다. 즉 앞서 진자가 모셔 간 미륵선화를 서동이 되모셔 온 것과 같은 의미로 보고, 이를 그가 민심을 얻어 백제의 왕으로 오르게 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 진자가 찾아낸 미시랑은 하생한 미륵이었다. 그는 신라에서 국선으로 7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적 없이 사라졌다. 이즈음 신라에서 건너온 선화공주 앞에 미륵 삼존이 출현하였다. 무왕과 선화는 미륵 삼존이 머물 가람을 창건하여 이 땅 위에 미륵의 세상을 활짝 열 희망을 품었다. 이처럼 『미륵하생경』에 입각한 미륵하생 신앙은 '예쁜 꽃' 인 선화공주와 미륵선화와 겹쳐 읽게 하고 있다.

삼산관을 쓴 국보 83호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일본 국보 1호인 광륭사 목조미륵반가사유상과 이미지가 겹친다. 그런데 두 사유상을 잘 들여다보면 이들은 모두 실제의 인물상이기보다는 이상의 인물상처럼 보인다. 날렵한 손가락과 가냘픈 허리, 아름다운 눈썹과 고운 입술은 여성의 이미지와 중첩된다.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의 이미지와 다른 젊은 수행자 또는 보살의 모델은 과연 누구일까? 청년 싯다르타 혹은 청년 미륵의 이미지는 꽃처럼 아름다운 미륵선화 즉 선화공주와 겹치고 있다. 당시 신라의 진지왕과 백제의 무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비록 왕위에서 폐위가 되었지만 도화녀(桃花女)와 인연을 맺고 비형랑(鼻荊郎)을 낳은 진지왕은 진자를 통해 어떤 미륵선화를 탄생시키려 했을까? 그리고 백제의 무왕은 진흥왕 이래 시작된 진종설(眞種說)을 본격화시키고 신라 삼보(三寶)를 창안한 진평왕(眞平王)을 '벤치마킹' 하였던 것은 아닐까? 무왕은 선화와 결혼한 뒤 전륜성왕을 꿈꾸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륵을 통해 이 땅을 희망의 세상인 즉 미륵의 세상으로 만들려 하였다.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현실 정토를 꿈꾼 신라인들의 모습을 대변한다.

3. 현실정토를 꿈꾸었던 신라인들

당시 삼국은 끝이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가야를 합병한 신라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백제를 압박했고, 또 백제는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신라의 진흥왕-진지왕-진평왕-선덕여왕은 백제의 성왕-위덕-혜왕-법왕-무왕과 때로는 연합을 하고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 시기 전쟁의 횟수는 국지전을 포함하여 년 50여회에서 150여회에 이를 정도였다. 이들 전쟁으로 인해 무수한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상대국들에 대한 적개심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불교는 삼국인들 사이에서 신행되면서 정치와 문화 및 종교와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백제와 신라는 『미륵하생경』에 입각한 미륵하생신앙에 의지하여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했다. 때문에 통치자들의 전륜성왕의 이미지 확보는 필수적인 전략이었다.

삼국의 백성들이 체감하는 전쟁의 고통은 극심하였다. 이들은 불심에 의지하여 이 고통을 이겨내려 하였다. 백성들은 타방정토를 염원하면서도 차방정토 즉 유심정토를 꿈꾸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아미타불을 지송하면서 현실정토를 염원하였고, 한편으로는 미륵불을 지송하고 용화정토를 염원하였다. '남백월산 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조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미타정토와 미륵정토를 동시에 꿈꾸었다. 부득은 관음보살의 안내로 미륵불로 화현하여 미륵정토를 구현하려 했고, 박박은 미타불로 화현하여 미타정토를 실현하려 하였다. 반면 '효소왕대 죽지랑' 조에서는 술종공(述宗公)이 죽지령(竹旨嶺)에서 길을 닦던 거사가 꿈에 나타난 뒤 죽자, "필경 거사는 내 집에 태어날 것이다"하고는 시체를 묻어주고 그 무덤 앞에 돌미륵을 만들어 세웠다. 이 상은 다시 태어날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세운 미륵상이었다.

또 '생의사 석미륵' 조목과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조목에는 꿈을 꾸고 돌미륵을 발굴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러한 기록들에는 이상의 꿈을 꿈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내 오려는 신라인들의 사유방식의 투영되어 있다. 월명의 '도솔가' (兜率歌)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영응적(靈應的인)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 경덕왕 때 하늘에 두 해가 나타나 열흘 동안 함께하였다. 왕은 월명사(月明師)를 청하여 '도솔가' 를 지어 산화공덕(散花功德)을 짓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도솔가' 의 내용은 꽃을 뿌리며 꽃으로 하여금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대성을 맞아서 모시라는 의미이다. 결국 왕은 월명에게 차와 수정염주를 주자 동자로 현신한 미륵이 나타나서 가져갔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륵이 동자로 나타난 것은 천상(天上)의 보살을 지상인 신라의 현실로 끌어내린 것과 국가 행사의 신앙 대상이 미륵이었다는 지점에서 미륵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진표전간' 의 미륵이 진표(眞表)에게 "너는 이것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삼아라"고 하는 대목에서 신라 미륵사상의 현세이익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또 경주 남산 용장사(茸長寺)의 장육미륵존상이 주위를 도는 태현(太賢) 대덕을 행해 얼굴을 따라 돌렸다는 것은 현세이익적 미륵신앙이 신라에 성행하여 늘 생활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신라의 미륵불이 낭자로 현신한 관음보살의 도움으로 이땅에 현신하여 성도하였다는 남백월산(南白月山)의 노힐부득(努肹夫得)의 이야기 또한 현실정토 내지 현세이익적인 미륵신앙이 성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나아가 노힐부득이 현신성도(現身成道)하였다는 것은 신라 미륵신앙의 필연적인 귀결이자 현실적인 신라불국토를 실현하고자 한 신라인들의 표현이며 현실정토사상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원화' 와 '화랑' 으로 이어지는 '예쁜 꽃' 미륵선화에 대한 백제와 신라인들의 꿈과 이상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최완수,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2』(대원사, 2007).
정 민, 『불국토를 꿈꾼 미륵』(문학의 문학, 2012).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 자녀가 있는 자는 자녀로 하여 근심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하여 근심한다. 실로 인간이 집착하는 것이 근심이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숫타니타파-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무속 선, 앉은거리 장단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양 도 공 고

(법인 등기된 종무법인임)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불교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수익사업 공고

1. 연못장 가족화분 납골묘 설치
개별납골 그 위에 연꽃을 심어드림
500~2천만원(유리뚜껑은 선택)
2. 기일제사 안하고 명절재사만 지낼 집
3. 육지 부주갱이 나물 튀각용, 효소 주문용
울릉도 부지갱이와 같은 종류 부주갱이 나물
4. 전자납골당 500~1천만원 활용 1년
041)544-4441 한학선원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룡길 192-21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어찌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가?

한제원
<대구 남구 대명동>
053)623-2202
010-7507-2105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번뇌의 굴레에서 해탈을 생활의 고통을 벗어나는 생명의 글문 비방

- 빙의(특히 신에게 고통받는 중생)
- 불치병상담(병명이 안나오는 병)
- 아토피 질환 해탈법
- 산소탈이나 풍수탈 해탈
- 사업성취, 소원성취 상담 • 가정사 상담
- 생활 속에 활력을 찾는 달마상

<작은곳에서 큰 희망의 기쁨을 안으시길>
대한불교 불정사 도정스님
051)558-5585
010-4593-2918

동양철학 15년째 판매 중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무료제공)
동양철학CD(PC용),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일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삼풀이,가족운세,애정운,건강운,직업운,
궁합,점성술,꿈해몽,작명,개명,개운법
사상체질의학 진단 및 체질별 처방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신도시 지역)
011-9514-372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강원 횡성)
010-3738-033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보은 속리산)
010-4502-65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011-825-3181

염불 잘하는 스님이 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49재,바라,
나비, 회심곡
010-6569-1010

범음범패 학인모집

예비승려(행자교육)지도
각종의식(예불 및 49재 의식)
실전위주 속성과정 지도
특 강 : 작법무(바라무,나비무),호적(태평소),
사물작법(북,태징,목탁,요령 등)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수 강 료 : 전과정 무료강의
교육장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618 (삼보사)
010-4910-6358. 010-8612-6914
대승불교염불원

빙의 퇴마 교육

사주로 작해귀신 찾는 법
귀신과의 대화법 (다양한 비법전수)
천도 및 퇴마비법
지금까지 수년간 전문퇴마사를 양성했습니다.
이제 저렴한 보시금으로 마지막 교육을 하려 합니다.
최고의 퇴마사로 소중한 인연이 되실 분을 모십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신영동 일붕선원 내 교육장
문의 : 010-5472-5928
전문퇴마법사 경담 합장

불교 종무법인을 구합니다

불필요 한 분 연락 바랍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584-8844
김 만 허

심 와 기 도

• 소원을 성취시키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연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미니 납골당 신축 전문 시공사

- 결로방지 100% / 온난방 100% / 환기 100% / 인테리어 100%

안치대 설치 전문 업체

- 황금색 스텐 안치대. 원목 안치대. 주물 안치대 . 강화유리 안치대

성심 시공사의 안치대 명성

- 성심시공. 믿음시공. 완벽시공. 심플시공 . 엄숙경건. 최상의 인테리어
※ 꼼꼼한 판단과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010-3390-1161

계룡산 천황사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무병,정신병,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10-3565-0492
041)855-3492

관상 · 손금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개인지도(나이 관계없음)
스님특별지도
철학원,포교원,무속인,일반인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강의함
대학교 강의중. 사찰 무료로 보시함
(상아철학교육원)
010-4014-8822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 051)721-6444

비구니 행자(예비스님) 모집

1. 부처님 공부는 큰 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철저한 행자(예비스님). 자율교육
3. 2년 공부 후 주지발령
4. 학력, 나이에 관계없음
010-2669-1800

광명주(靈珠) 수익 사업공고

선망조상님들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섭씨 2,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고인의 유골을 광명주(靈珠)로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납골사리 1기당 180만원 / 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보은의 사랑. 네이버 보은영옥

단씨맹파명리 전문교육처

맹파명리 원저자 중국 단건업 선생 혼인증기특강
일 시 : 10월 27일 ~ 11월 3일 (토,일 : 주간 6시간, 평일야간 : 3시간)
내 용 : 다혼, 독신, 도화, 데릴사위, 부모반대결혼, 남편.
처를 극하는 명, 나쁜혼인, 좋은혼인, 음란명.
강의장소 : 서울 / 홈페이지 : www.mangpa.com
학산맹파명리연구원 011-1743-0543
한국단씨맹파명리학회 031)918-7550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http://cafe.daum.net/indelamang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은 장소, 시간, 남녀노소 어느것 하나에도
구애됨 없는 우리불교인 모두의 인터넷 사이버법당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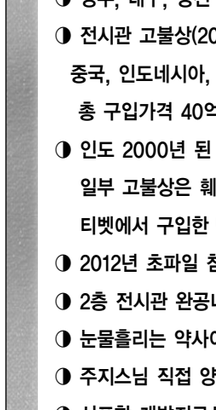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법문DVD와 CD무료보시



예천 법연선원 대공스님은
불교TV무상사 초청
일요법문 내용을 담은
DVD와CD를 무료 보시합니다.
011-861-6252



김윤경승복
since 1980
김윤경
승복 · 우리옷
www.kyksb.co.kr
◎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신행단체복, 템플스테이 수련복, 소품 일체 등
◎ 공장 직영 도소매,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
들께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스님들과 불자님
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제작 · 보급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폐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 금 계 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
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
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10월 19일 (금) 오후 2시
• 대 상 - 역학 왕초보자, 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기 초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딛히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통신반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은행) 옆

약사여래불의 가피로 몸을 살린다

약사여래불 치유도량
활 인 사



덕운 큰스님은 질병치유의 중생구제에
영험하신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습니다.
수십년간 육신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위해 기도끝에 선몽하신
"활인 발효방"!.
한약재를 첨가한 순수발효열
65℃로 체내독소배출! 건강증진!
면역강화! 질병예방!
건강 침술 강좌
초 • 중 • 고급반(3개월과정)
*장소관계로 예약 접수 받습니다.
사당역 11번출구 활 인 사 02)3487-23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분 거리)
◑ 전시관(2009년 준공) 2층 240평
대웅전, 종각, 지장전(120영가 분 모셔있음)
산신, 용왕전 외 2,500여평 (국도변 마을 안에 있음)
◑ 경주, 대구, 영천 30분 거리
◑ 전시관 고불상(20년 전부터 한국, 인도, 태국, 티벳,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직접구입 한 원품 불, 보살님)
총 구입가격 40억 이상.
◑ 인도 2000년 된 목재화상 고불상, 1000여년된 고불상,
일부 고불상은 훼손이 심하여 크리스탈 개금, 순금 개금불,
티벳에서 구입한 만다라.
◑ 2012년 초파일 참여인원 : 약 2500 불자님
◑ 2층 전시관 완공내역 : 15억원
◑ 눈물흘리는 약사여래불 좌상 있는 곳
◑ 주지스님 직접 양도
◑ 서포항 개발지로서 준 주거지, 매매해 두시기만 하여도
배 이상 매매가 보장.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26억 급 양도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일부 공개됨.
연락처 : 010-4504-01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10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1(목조)
- 요사 : 70평
- 부지 : 5,0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전남
- 법당 : 20(목조)
- 요사 : 10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 7억 (은행 3억 가능)

바다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부지 : 약 2500평
- 목조법당 32평(아파트 대단지 인접)
- 공양간 50평, 요사채, 대종각 외 건물 5동
- 주차장 300평, 텃밭 1200평
- 총가액: 13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 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도심 속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 대지 75평
- 건물 : 법당 50평 (2층)
- 요사 50평(1층)
- 최고의 포교 요람지, 전통 30년
- 법당, 요사 내 외부 최상급
- 급 사정상 헐값
- 가액: 3억 5천만원

010-3621-8747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달성군 현풍면소재
- 상가4층 건물 3층
- 3층 총평수 62평
- 법당 30평,공양간20평, 방 2개, 창고,
- 기타 부대시설완비
- 보증금1천만원,월3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10-5040-2727
053)611-292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상주시 내서면
- 평수 : 대지 91평
- 법당(인법당)겸 요사채 총 30평
- 삼성각 5평 용왕당
- 가액: 8천 5백만원(가액절충)

010-6508-1365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 대지 149평, 법당: 20평
- 요사 17평, 요사 10평
- 양도가 5억 7천만원
-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 포교활동 최적지

011-811-5466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 이천 장호원 읍 5분 (서울 40분 거리), 소나무숲 옆
- 전세 2500또는 월세 1,000만원에 25만원
- 대지 230평, 방3, 거실 유리 확 틔어 깨끗
-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텃밭, 창고3, 리모델링 했음
- 볼 집 두군데

010-6253-6892
031)641-11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북구 대현동
- 상가건물 4층, 65평,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용왕, 영가단, 법당 집기일체
- 시설: 도시가스, 아주 깨끗함
- 시설비 : 1500만원

010-2542-2227
010-9000-8949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북구 대현동
- 상가건물 4층, 65평,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용왕, 영가단, 법당 집기일체
- 시설: 도시가스, 아주 깨끗함
- 시설비 : 1500만원

010-2542-2227
010-9000-8949

땅(급)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고령IC 근접 30m)
- 대지 180평, 임야 3600평
- 사찰터로 최적임

010-5626-6001
서 숙 광

사찰(급)안내

- 위치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관광버스6대 주차 충분
- 방10개,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505평 반(등기필)
- 와가법당 20평 2층 (단청필)
- 요사채 38평
- 창고 15평, 옥외화장실, 창고 6평 (6층석탑 제주석)
- 특히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방문시 절충요

010-7517-703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 입구
-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 45평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7495-789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역세권
- 대지 : 23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각 40평
- 은행융자 3억원
- 가액 : 7억 9천만원 (절충가능)

010-6237-5964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연산3동 159-4번지
- 평수 : 120평
- 가액 : 3억
- 시설 일체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51)862-1834
010-7675-1834

사찰전세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 면적 300평
- 대웅전 22평, 목조
- 요사 방2개 , 옥외화장실 2칸, 창고
- 미륵불 입상 4M, 창건 45년
- 전세: 4500만원

031)535-8120
010-8831-48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부지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 2억 1천만원

010-7188-772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시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51)506-4038

사 찰 안 내

- 위치: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 단독 2층 중 1층 전부 50평
- 모든 시설완비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010-4553-9797

포교원안내

- 위치:경남 거제 시내
- 3층 건물중 2층 50평
- 접견실, 부엌
- 보증금 1500만원, 월 90만원
- 6자부처님 8불
- 시설비 1000만원(답사후 절충가능)
- 앰프시설, 에어컨 2대
- 스님. 몸만 오시면 됨

010-4344-9222

임법당(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
- 법당1, 방2, 입식주방1, 화장실2
- 대로변 2층, 옥상사용
- 전세 3800만원
- 시설비 500만원

010-8223-487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군 칠원 IC 칠사 5분거리
- 부지: 평당 300만원
- 평수 72평, 요사채 35평
- 법당 20평 (2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가액절충)
- 확장이전 관계로 양도함

010-6317-3222

사찰터안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오곡동
- 시내버스 도로 인접
- 도로 있음. 입구와 도로 접
- 도심 사찰 및 요양원 적합
- 평수: 724평
- 가액: 3억 8천만원

010-4741-4158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 시장입구, 버스정류장앞
- 유동인구 많음. 건물 뒤 공용주차장
- 평수 : 2층 70평
- 요사채 및 굴법당, • 3층 70평
- 법당. 관음전, 산신각(단청되어 있음)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만원
- 시설비 5천만원

010-4001-3949

포교원안내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 넓은 법당1, 스님방1, 작은방1, 샤워실, 화장실, 공양간 주차장
- 불교의식 민원없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3800만원

010-9249-8776

절터 및 전원주택 안내

- 위치: 경남 합천 덕암리
- 해인사 IC에서 10분거리
- 땅지번 내에 개울 흐름
- 전기. 도로포장 완료
- 평당 6만원. 3천평

010-7666-7334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대지: 도지료 연 35만
- 사용대지 약 100평, 관련대지 368평
- 건물 : 단층 독채 약 32평.
- 개인 등기 필
- 내용: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법당 넓고 생활 편리함. 현대식 시설
- 가액 : 6천 5백만원 (시설비 1천 5백만 포함)

010-7295-1259

도심속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광역시 중구
- 3층건물 중 2층
- 1천만원 월 40만원
- 평수 30평, 법당, 방2, 주방, 해우소, 베란다
- 시설비: 직접 방문 후 약간

010-8719-33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 대지 500평, 건평 70평
- 주차완비
- 보증금 5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8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4618-353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 상가건물 : 3층 90평, 4층 30평 요사, 옥상사용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내부단청 및 시설완비, 15년이상된 포교원
- 납골사리 불사관계로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679-1080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군에 위치
- 대지 168평
- 법당 25평, 요사채 20평 창고 다용도실 , 마을안에 위치
- 비구니스님 생활하시기에 적합
- 현재 법회중이고 몸만 오시면 생활하시기에 편하게되어 있습니다
- 가액: 하실분이면 조정하겠습니다

010-4667-6889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영양
- 마을 안쪽 군불방
- 건물 3동. 35평
- 계곡도로 남향, 수리한 건물 다용도
- 대지 100평
- 현지답사한 인연
- 가액: 3천 8백만원(주인직)

010-8899-889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천년전통사찰
- 부지 : 1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20평
- 법당 : 5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8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 인근 서울 1시간 거리
- 건평 146평 (전각, 요사채, 종각)
- 부지 1690평(관리지역)
- 종교용지 364평(사용료 연 40만원)
- 양도가액: 5억 3천만원
- 방문 상담, 절충가능

010-9669-13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화왕산 및 부곡온천관광단지, IC에서 8분거리
- 평수: 530평(종교부지) 법당 30평(목조단청) 산신각, 칠성각
- 요사채:(60평, 방4개, 화장실2개) 가액: 4억 2천 5백만원(답사 후 조정)

010-8664-8259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시장대로변, 4층건물 중 4층
- 총 60평중 법당 40, 공양간, 주지실, 신도실, 다용도실, 바닥양탄 특별주문
- 즉시법회,보3000, 월 50, 시설비 2500(방문절충가능)즉시법회가능

010-3468-392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전철역에서 2분거리, 대로변
- 최고시설, 좋은 위치
- 5층 건물 중 3,4,5층 총 1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5000만원(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0-3198-89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 총 1,418평에 법당30평, 요사채 30평
- 황토방 10평 합계 74평의 건물 일체(불상포함) 를 안내함
- 산신각 4평
- 특징: 남향으로 앉아 전망이 좋으며,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삼랑진 IC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있고 조경이 잘되어 있음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함)

011-452-49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부근
- 현재 임법당 55평, 5존불
- 대지 1,356평에 280평 건축 허가 났음
- 착공계 진행중, 사찰요양원, 납골 근린시설
- 일체 가능함. 바로 지을 수 있음
- 가액 : 10억(절충가능)

011-771-7575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 대지 : 196평
- 주자창, 텃밭 175평, 법당 15평
- 야외 지장보살입상, 요사채 방5, 심야보일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769-7029

포교원안내

- 위치: 강북구 송천동 4거리 기업은행앞
- 2층 25평, 법당, 상담실, 방, 거실 겸 주방, 욕실, 에어컨 2대, 정수기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010-9469-3689

토굴안내(지상권)

- 위치: 강원도 정선
- 강릉 IC에서 40분거리
- 대지 100평, 건평 30평, 주택등기있음
- 방3, 주방, 거실, 욕실 시설비 없음
- 청정지역 수행하시며 기도하실 분 적합
- 가액: 1800만원, 1년 도지세 20만원
- 꼭 오실분 가액절충

010-7220-9888

방생도량안내

100명이 타고 방생용왕기도 할 수 있는 선박 4척과 도량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노승은 22년간 한산섬에서 방생법회를 했음 좋은 인연 바랍니다

010-3840-8277

일어나 앉아라. 그대들에게 잠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 숫타니파타 –

910호 | **불자 정보**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 40대가능
- 가액: 5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신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0-3209-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청양. 80년된 암자
- 행정수도에서 20분
- 큰바위에서 석수 흐름
- 국유지 사용평수 1000평(종교시설)
- 임대료 : 1년 15만원
- 가액 : 7천7백만원
- 법당15평, 요사채45평(리모델링 완료)

010-6680-0514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달성군 옥포면(비슬산아래)
- 대지 92평, 한옥주택 개량 법당, 마당(정원)
- 방3, 욕실 2, 옥상 간이법당(조립식)
- 법당 시설물 (삼존불, 탱화, 에어컨 등) 포함
- 가액: 1억 5천만원
- 인생상담 혹은 수행처로서 법당 운영할 분 적합

010-5538-0588
053)616-0508

포교원안내

- 위치 : 거제시 고현시내
- 평수 :50평 (3층건물에 2층)
- 법당 :15평 방 :10평 접견실 :25평
- 보증금 :이천만원 월세 : 135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010- 6768-6857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6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 비구니 스님 적합

010-2501-367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 위치 조건이 좋은 대로변
- 평수 약 30평
- 3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결정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10-3572-8426

英, 초등학교·유치원 '마음챙김' 주목

영국 셰필드 지방의 한 초등학교와 부설 유치원에서 마음챙김 관련 교육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영국의 언론매체 스타뉴스는 셰필드초등학교와 브룸힐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 '아동과 마음챙김 연구'를 다루고, 사라 스미스(Sarah Smith · 셰필드초등학교) 교사의 말을 인용,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긍정적"이라고 보도했다.

'아동과 마음챙김 연구'는 셰필드대학 산하 심리클리닉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앤드류 퍼디콤비 교수, 리사메리 베리 · 조르지나 로스 박사 등이 도맡고 있다.

"심리학자들이 볼 때, 마음챙김은 순간에 집중하고, 고민을 떨쳐내는 탁월한 방편"이라고 전제한 퍼디콤비 교수는 "마음챙김 관련 연구가 주로 성인에 한정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워 아동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아이들 감정 및 행동 발달에 효과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학과 시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매주 2회 3주간의 마음챙김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매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15분간의 마음챙김 실습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놀이와 실습은 아이들의 연령에 관계없이, '지금 여기(here and now)'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한 리사메리 박사는 "놀이 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상상력 연습(Imagination Exercises)'"이라며 "이 놀이가 아이들의 마음 영역을 넓혀주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상상력 연습'은 아이들이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고, 그것의 변화를 지켜보

셰필드초교 · 브룸힐유치원 등

BBC, ADHD 치유 영상물 제작



셰필드 유치원 · 초등학교가 어린이들을 위해 '상상력 연습'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은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고, 그것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치유하는 계기로 삼는다.

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치유하는 계기로 삼는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눈(snow)의 세계를 '상상'하도록 요구하고, 다시 아이들에게 눈이 녹으며 사라지고, 대지가 나타나는 광경을 '상상'하게 만든다.

리사메리 박사는 "여기서 눈(snow)은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에 비유되는 것인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무쌍한 눈에 현혹되지 않고, 눈(snow)으로 가려진 대지에 정착하고, 여기에서 아이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사메리 박사는 "교육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대단히 효과적"이라며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한편 집단의 그것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생에게는 보다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생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성인들이 등장, 유치원생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말을 건네기도 하고 그들의 주변을 걷기도 한다. 이들은 유치원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는데, 조르지나 로스 박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순간에 집중하고 동요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힘을 길러주는 게 해당 프로그램에서 성인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이들은 자신의 발을 내딛으며 발과 대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걷기 프로그램'과 마음의 소리를 듣는 '듣기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르지나 로스 박사는 "마음챙김은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하는 수련인 만큼, 아이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의력 결핍 증후군(ADHD)'을 치유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프로젝트가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확대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리사메리 박사와 조르지나 박사는 영국 국영방송 BBC의 요청을 받아, 마음챙김을 응용해 '주의력 결핍 증후군(ADHD)' 앓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망명 정부, "中과 대화준비 돼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중국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 다음 절차는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티베트인들의 분신자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 망명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멀티미디어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10월 6일(현지시간) "10월 5일 티베트 망명정부 국무총리 롭상 상게가 인도 뉴델리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중국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상게 총리는 "최근 티베트인들의 반중 시위나 분신자살 사태로 중국 당국의 더 강경한 대응이 우려된다"며 "망명 정부는 시위자와 함께 싸울 책임이 있지만 분신(焚身)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시짱(西藏)자치구(티베트) 나취(那曲) 지역에 거주하는 구드루프라는 시인이 자신의 SNS에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상게 총리는 "우리는 티베트 내부(시짱자치구)에서 가혹한 탄압이 이



티베트 망명정부 국무총리 롭상 상게

뤄지는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항의를 권장하지 않는다"며 "티베트인들이 당국의 지배에 반대하거나 달라이 라마를 지지하는 티베트인들이 비밀리에 살해당하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59년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인들의 분신자살을 선동한다고 주장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이 같은 배후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티베트 인권단체 자유티베트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의 대(對) 티베트 정책에 항의, 분신한 티베트인이 53명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최소 41명이 사망했다.

이나은 기자

뉴욕 강에 흐르는 부처님 형상 풍선 인기

한국출신 예술가 이창진 작품, 내년 3월까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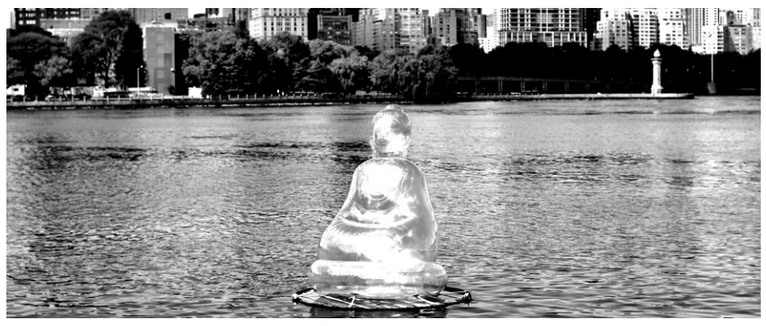
미국 뉴욕의 이스트 강(East River)에 부처님형상의 튜브가 떠 있어 화제다.

뉴욕타임즈는 10월 2일(현지시간) 한국출신 비주얼 아티스트인 이창진 씨가 제작한 '플로팅 에코(Floating Echo)'를 소개했다. 부처님이 좌선하고 있는 모습의 플로팅에코는 3m 높이의 투명한 튜브재질로 만들어져 백합나무 패드에 놓여 강 위를 떠 다니고 있다.

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형상을 보고 평화를 느끼고 있다. 이는 롱아일랜드시의 조경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품을 본 네팔인 에드 씨는 "퇴근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공원에 들렀다 불상 작품을 보고는 평온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성을 띠는 작품이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인 태코 시오리 씨는 "이 작품이 정말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나은 기자



부처님이 좌선하고 있는 모습의 플로팅에코는 3m 높이의 투명한 튜브재질로 만들어져 백합나무 패드에 놓여 강 위를 떠다니고 있다. 이창진 씨의 작품은 뉴욕 롱아일랜드시의 '소크라테스 조각공원' 내부를 흐르는 이스트 강위에서 2013년 3월까지 떠다니게 된다.

불교인식론·범어 필사본연구 권위자

세계의 불교학자(37)

엘리 프랑코

독일 라이프찌히대 교수



엘리 프랑코(Eli Franco · 59) 독일 라이프찌히대 인도학과 교수는 이스라엘 출신의 불교학자다.

그는 인도철학, 불교 인식론 분야에 업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인도불교학 가운데서 불교의 인식론이나 논리학적인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쁘라마나 전통을 주된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태어난 프랑코 교수는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학창시절에 그는 유럽중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유태인들의 문화와 역사를 주로 배웠다. 어릴 때는 역사 · 철학보다 수학 · 물리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 그는 1967년 이스라엘 6일 전쟁 등 격동적 역사적 상황을 겪으면서 사회 · 정치적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됐다. 평화운동에 가담할 때는 인문학 · 사회과학분야로 눈을 돌렸다. 당시에는 생산 · 분배에 대한 고전적 좌파의 주장을 할 필요 없이 단지 평화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좌파로 취급되던 시기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프랑코 교수는 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1976년 텔아비브 대학에서 철학 학사학위를 받는다.

이후 그는 샤프쉬타인(Scharfstein)의 비교철학강좌를 들으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도 아흐메다바드에서 수학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인도철학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범어 필사본 연구 권위자로 정평이 나있는 그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배울 수 없었던 산스크리트어를 독학하고 인도학 공부를 시작하며 "당시 인도학과 불교학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알았다면 아마 다른 분야를 전공 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프랑코 교수는 존경하는 불교학자로 독일 함부르크대 슈미트 하우젠 교수를, 인도학자로는 미국 펜실바니아대 윌렘 할프화스 교수를 꼽는다. 슈미트 하우젠 교수는 학커(Hacker)와 후라우발너(Frauwallner) 교수를 사사(師事)했으며, 독일 쾨팅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할프화스 교수는 발트슈미트(Waldschmidt)에게 인도학을 배운 비교철학자다. 그는 두 스승에게서 엄밀하고도 비판적인 문헌학의 전통에 서서 작업하는 태도를 물려받았다.

보편성을 지향하는 철학적 관심을 가진 그는 학사학위 논문으로 '용수와 장자 그리고 섹투스 엠피리쿠스에 대한 비교'를, 1980년 파리 10대학에서 '고대 인도철학에서의 유물론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코 교수는 당시 제대로 연구되고 있지 못했던 인도의 회의론전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야라쉬에 대한 연구에도 몰두했다. 그의 연구는 불교 문헌과 많은 인도 철학 개설서에 상당 분량을 차지하며 언급되면서도 실제적인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인도의 유물론, 회의론 전통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인 성과를 보여준 작업이었다.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인식론전통에서 중요한 사상가인 달마끼르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식론이란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연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관련한 논문으로 교수자격학위를 받은 프랑코 교수는 독일 함부르크와 베를린에서 인도학을 가르치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대에서 인도 · 불교학을 강의했다. 현재는 독일 라이프찌히 대학 인도학과 교수로 몸담고 있다.

이스라엘 출신 불교학자

범어 독학…인도불교학 전공

쁘라마나 전통 연구

불교 인식론-논리학 체계화

그는 한국불교에도 관심을 보인다. 2005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범어 필사본 연구와 유럽의 불교학 방법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초청돼 '가장 오래된 산스끄리트 필사본', '현장과 원효의 유식(唯識)에 대한 논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프랑코 교수는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교 인식론(praarticle)전통의 연구에 있어서라면 우리는 혁명적이라 할 만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북경에 있는 수고(手稿)들이 연구될 수 있다면 그런 변화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북경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수고가 개방됐을 때 문헌학적 역량과 이론적 해석능력을 갖춘 프랑코 교수와 같은 학자들이 그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펼쳐 불교학 연구의 수준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는 "내 자신이 불교신자는 아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인류에게 의미 있고 받아들일만한 세계에 대한 이론이나 관점을 불교가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며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910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 40대가능
• 가액: 5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신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0-3209-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청양. 80년된 암자
• 행정수도에서 20분
• 큰바위에서 석수 흐름
• 국유지 사용평수 1000평(종교시설)
• 임대료 : 1년 15만원
• 가액 : 7천7백만원
• 법당15평, 요사채45평(리모델링 완료)
010-6680-0514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달성군 옥포면(비슬산아래)
• 대지 92평, 한옥주택 개량 법당, 마당(정원)
• 방3, 욕실 2, 옥상 간이법당(조립식)
• 법당 시설물 (삼존불, 탱화, 에어컨 등) 포함
• 가액: 1억 5천만원
• 인생상담 혹은 수행처로서 법당 운영할 분 적합
010-5538-0588
053)616-0508

포교원안내
• 위치 : 거제시 고현시내
• 평수 :50평 (3층건물에 2층)
• 법당 :15평 방 :10평 접견실 :25평
• 보증금 :이천만원 월세 : 135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010- 6768-6857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6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 비구니 스님 적합
010-2501-367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 위치 조건이 좋은 대로변
• 평수 약 30평
• 3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결정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10-3572-8426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거대한 불탑은 미얀마 자존심

① 양곤-쉐다곤 파고다

'황금의 나라',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선한 눈망울의 사람들이 반겨주는 미소가 아름답고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숲과 황금불탑이 매력적인 미얀마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나라다.

2천5백년 동안 이어져 온 불심(佛心)으로 만들어진 미얀마 불교유적지를 지난 9월 봉은사 자비봉사단과 함께 다녀왔다. 현장에서 느낀 감동을 5회에 걸쳐 전한다.

양곤=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보통 미얀마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아웅산 수치, 스님, 시민들의 저항, 이에 대한 군사독재의 무자비한 탄압 등 정치적 · 사회적 불안과 혼란, 폭력, 폐쇄 등의 이미지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미얀마에 도착하면 지금까지의 그런 선입견은 저 멀리 사라져 버린다.

"밍글라바(안녕하세요)"라고 친절히 맞아주는 밍글라돈 국제공항을 거쳐 나오면 여행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파고다'를 만난다.

미얀마 순례의 시작과 끝은 양곤에서 시작하며 그 양곤 여행의 시작도 파고다에서 출발한다. 19일 도착한 밍글라돈 국제공항에서의 첫 인상은 매우 평화롭다는 것이었다. 하노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바라본 베트남의 모습과 달리 복잡함이 없는 조용함이 느껴졌다. 분주히 움직이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얽힘이 없다. 미얀마를 상징하는 색은 황금색과 녹색. 숲이 많은 미얀마에서도 양곤은 '동방의 정원도시'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나무와 숲이 많다.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숲 사이사이에는 파고다가 자리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중상징, 쉐다곤 파고다

이중 양곤에 위치한 황금불탑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의 상징이다. 쉐다곤 파고다는, 바고 짜익티요 황금바위 및 만달레이 마하무니 파고다와 같이 미얀마 3대 성지로 꼽힌다.

양곤의 파고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슐레 파고다를 중심으로 쉐도미앗 파고다, 거바예 파고다 등 군부에서 지은 현대적인 파고다와 쉐다곤 파고다를 중심으로 차욱타지 파고다, 보떠타웅 파고다 등 부처님 재세 시기에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어진 역사적인 파고다가 그것이다.

보통 불탑은 부처님 입적 후 부처님 사리 등을 봉안한 근본 8탑에서 시원을 찾는다. 하지만 쉐다곤 파고다는 약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 미얀마의 두 무역상인 타푸사와 발리카 두 형제가 부처님을 만나면서 조성됐다.

두 형제는 부처님에게 의복 등을 공양했는데 부처님은 여덟 발의 머리카락을 내려 미얀마 땅에 그 머리카락을 봉안한 파고다가 건립된 것이다.

처음 쉐다곤 파고다는 작은 불탑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왕조를 거치며 그 위에 증축을 거듭해 현재의 거대한 불탑으로 변했다. 미얀마에서는 3년에 한 번씩 국가행사로 개금불사를 진행한다. 개금불사 때마다 사용되는 금의 양은 약 7톤에 달한다.

지금의 쉐다곤 파고다는 몬족이 미얀마에 세운 페구왕조 때인 1453년에 증축됐다. 높이 100m, 둘레 426m에 달하며 기단 부분에는 64개의 작은 불탑이 탑을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불탑이다. 화려함과 장대함, 그리고 섬세한 조각품들로 많은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지극한 경배의 대상이자 국가의 자존심이다.

외면의 화려함과 별개로 쉐다곤 파고다를 순례하면 자연스럽게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을 느끼게 된다. 영국 식민지 시기에서부터 군부독재 시기까지 쉐다곤 파고다는 스님과 미얀마

5700만 인구 대부분이 불자
부처님 재세시 세운 쉐다곤 파고다
왕조 바뀔때마다 증축…현재 모습
사찰은 교육 · 문화 · 복지시설

사람들이 항쟁의 불길을 올린 곳이었다. 1988년 민주화 운동, 1990년 승가 항쟁, 2007년 사프란 혁명이 쉐다곤 파고다에서 일어났다. 특히 사프란 혁명에서 스님들은 '저 난폭하고 무자비한 장군들, 나라의 재물을 훔쳐 살아가는 큰 도둑들을 거부합니다. 이로써 공양을 받거나 설법을 하지 않습니다'라며 민중의 지원자에서 저항의 주체로 나섰다.

민중을 대변하는 쉐다곤 파고다에서는 어디서나 열심히 불공을 올리는 미얀마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경내에는 150여 개의 부속건물과 파고다가 있고 각 요일 별로 지정된 부처상이 있는데 많은 미얀마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요일에 불전을 바치고 소원을 빌며 나이만큼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한다.

이 쉐다곤 파고다 경내에는 마하간다종이 있다. 무게가 23톤에 달하며 높이가 2.2m, 직경이 1.95m 인 이 마하간다종에 얽힌 일화에서도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은 느껴진다. 1825년 미얀마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군이 이 마하간다 종을 강탈해 본토로 옮기려 했다. 하지만 배가 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양곤강에 가라앉았다. 영국군은 종을 끌어 올리려 하였으나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건져내지 못하고 포기했다.

그 때 양곤의 한 승려가 영국군에게 만약 그 종을 끌어 올린다면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놓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영국군은 영국 기술로도 못하였는데 미얀마인들이 무슨 기술로 끌어올리겠나 싶어 이를 허락하였다고 한다.

미얀마 사람들은 3일 만에 그 종을 강바닥에서 끌어올렸는데 그 방법은 속이 빈 대나무를 침몰 지점으로 운반한 후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잠수하며 종에 대나무를 붙였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종은 물위로 떠올랐고 이 종은 미얀마에 남을 수 있었다.

미얀마 사람들의 희망, 불교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은 쉐다곤 파고다 인근의 차욱타지 와불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와불상인 차욱타지 와불상은 길이 65.8m, 높이 17.6m에 달한다. 차욱타지는 극락의 6층이라는 뜻으로 와불상의 발바닥에 108번의 부처님의 전생이 새겨져 있다.

이 와불상이 모셔져 있는 차욱타지 파고다는 1907년 일반 신도의 보시에 의해 10년 만에 완공됐다. 건물벽에는 시주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한국 불자들 및 사찰들의 이름도 많이 보인다.

반면 슐레 파고다는 번화가의 상징역할을 하고 있다. 낮에는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양곤 남북 관통 도로의 중심에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하며 밤에는 조명을 받아 도심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황금빛 야경 탑으로 변한다. 도시 중심의 상징으로 상가로 둘러싸여 있고 시장, 버스 종점 등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미얀마의 정치 · 경제 · 문화 등 모든 분야는 불교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양곤에서도 새벽마다 스님들이 탁발을 행하며 이른 아침 미얀마사람들은 스님들에게 시주를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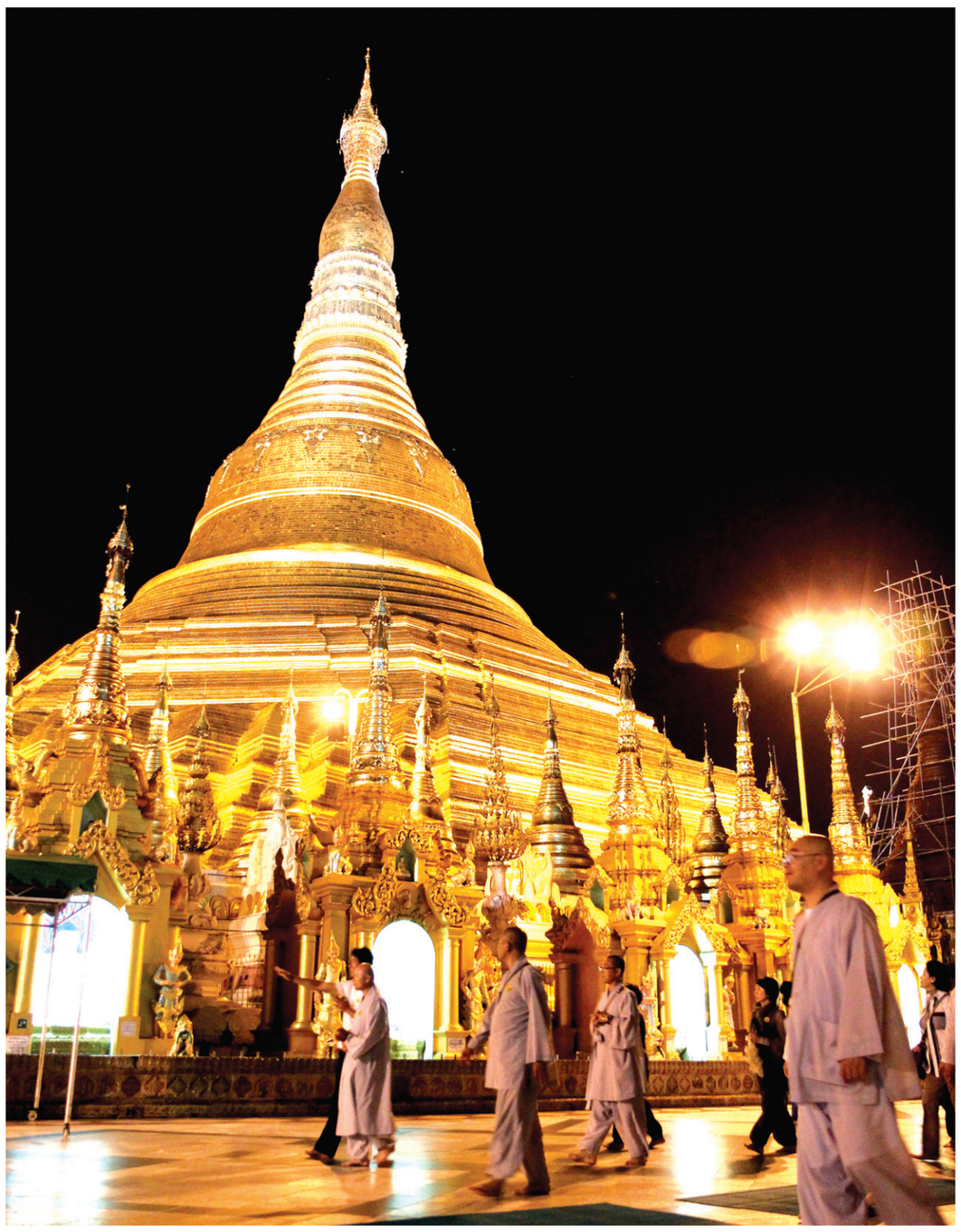
대도시인 양곤을 벗어나 교외지역으로 향하면 불교의 역할은 보다 중요해진다. 미얀마 마을에는 사찰이 하나 이상 있는데 미얀마 말로 '짜웅'이라 부른다.

학교 또한 '짜웅'인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 마을 사원을 다니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나기 때문이다. 마치 한국의 서당과도 같다. 이곳에서 미얀마 아이들은 스님에게서 불교소양과 함께 부모,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배운다.

사찰은 단순히 종교시설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시설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도인 미얀마 사람들에게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활이다.

불탑을 짓는 것을 평생의 공덕으로 생각하는 미얀마 사람. 주 민족인 버마족을 비롯해 샨족과 카렌족, 카친족, 인따족 등 수많은 소수 민족이 있지만 각자의 고유한 언어와 풍습을 간직하며 공존할 수 있었던 데는 불심으로 하나가 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세계 극빈국 중 하나이면서도 불심으로 마음만은 풍족한 그들에게서 삶의 희망이 느껴졌다.


함께 순례한 봉은사 스님들이 황금대탑 쉐다곤 파고다를 참배하고 있다.


부처님 전생담이 기록된 차욱타지 와불상 발바닥


사원에서 담소를 나누는 미얀마 스님들


불단에 기도하는 스님들. 불단의 꽃공양이 이채롭다.


가족단위로 축원하는 미얀마 불자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지혜와 공덕, 깨달음
성취하는 생산적인 도道!



불교TV 방송강의中

타방정토와
유심정토를 포용하는
《일심정도 염불수행》
정목스님 지음
변형 신국판 | 칼라 | 232쪽
13,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우리 시대의 원효 정목 스님이 들려주는 정정취의 깨달음
환경과 의식을 창조하는, 체험으로 증명되는 마음의 과학!

원효 대사의 일심정도 염불수행은 독창적인 정토사상이요 순수한 한국불교이며, 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대중적인 수행법이다. 염불삼매와 관불삼매를 성취한 정목 스님은 누구든지 염불수행을 통해 안심을 얻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대승불교의 신행체계를 확립했다.

양산 정토원: T.055-375-5844, 아미타파
(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대행 스님

무명 속에서 벗어나 세세생생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그렇듯이,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는 그 과정이 쉴 사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헤어졌다 또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마음, 말과 말, 뜻과 뜻으로 이어져서 쉴 사이 없이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은 자기 몸뚱이와 사는 가정, 요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시겠지만 마음공부를 하려면 좀 마음을 넓혀서 지혜롭게 엮어 가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스님은 만날 주인공에 놓으라고만 하신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겠죠. 그러나 사실이 그러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리가 있죠. 이 지구가 돌아갈 때도 쉴 사이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입니다, 거꾸로 섰다 바로 섰다 하고 돌아갑니다. 거꾸로 돼도 바로요 바로 돼도 거꾸로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거꾸로가 바로냐, 바로가 거꾸로냐?"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로 딛고 서서 다니는 것이 바로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머리가 땅으로, 또 발이 위로 이렇게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이 땅에 붙지 않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붙기 때문에 여전히 쉴 사이 없이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도 아니고 바로도 아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거꾸로라고도 할 수 있고 바로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르든지 옳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체는 자유스럽고 걸리는 데가 없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어떻게 생각을 했든지, 어떻게 생각을 해서 말을 했든지, 어떻게 생각을 해서 행동을 했든지 걸림이 없이 돌아가야 하겠죠.

또 한 가지는, 또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차를 타고 다니시죠? 만약에 내가 시발점에서 버스를 탄다면 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탈 때 내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내릴 때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동시에 내리고 타고 하는데 말입니다. 동시에 내리고 타고 하는데 항상 내리는 게 걸리지 않으면 타는 게 걸리고, 타는 게 걸리지 않으면 내리는 게 걸립니다. 그런데 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내리고 타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상대성의 원리라고도 하구요. 정맥 동맥이 없으면 이어서 돌아갈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내리고 타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누가 내리고 타고 할 수 있게끔 마음을 가졌느냐는 얘깁니다. 그 마음은 어디까지나 자유스럽습니다. 여러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했고, 자유롭게 행하고 삶을 살 수 있게끔 돼서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체가 없는 마음을 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유스러운 자기 마음들을 가지고도 자유스럽게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습에 매달리고 안된다는 데 매달리고 된다는 데 매달리고…. 얼른 쉽게 말해서 차를 타는 데도 매달리고 내리는 데도 그냥 저절로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왜 끄달립니까? 내가 갈 데 있으면 묵묵히 타는 거고 또 내려야 할 때 묵묵히 내리면 되고 이러는 거지 밖에 참섭 안에 참섭, 이거 내리는 거 저거 내리는 거, 남이 내리는 거 오르는 거 다 참섭하면서 온통 걸리고 돌아가니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겠습니까? 내 육체를 여래의 집으로 삼고 그 한마음의 심봉은 자유스러운 겁니다. 자유스러운 건데도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여기 매달리고 저기 매달리고 끄달립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끄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 것만 귀중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안되는 것은 '이게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 아니겠습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어저께 밤에 주무시고 오셨죠? 오늘 낮에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루 살기 위해서 밤에 잘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잤습니다. 그런데 밤과 낮이 어디 마음으로 볼 때는 둘이겠습니까? 묘한 점은 낮에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밤에 잘 때는 육신을, 집을 팽개치고 그 의식들이 나가서 온통 자기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한 대로 움죽거리고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저지르게 생각을 했다면 안 저지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저지르게 생각을 했다면 저지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잘 때는 육신을 내버리고 하니까 제한도 되지 않습니다. 낮에 입력이 된 대로 털구멍을 통해 나가서 활약을 하는 거죠. 나쁘게 생각했다면 나쁘게 모든 걸 이어서 가져오게 만들고, 좋게 생각을 했다면 좋게 인연을 맺어서 가져오게 만들고, 화가 나지 않게 모든 걸 거기 놓고 갔다면 밤에 잘 적에도 바로 화가 나지 않게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항상 내가 하는 대로 원숭이처럼 쫓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입력이 돼서 원숭이처럼 그냥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따로 있고 낮이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까? 또 정신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수년을 두고 항상 이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공부를 왜 하라고 그러느냐? 마음공부를 안 하면 무명을 벗어나지 못해서 악의 무명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다가 그 차원에 의해서 또 모습을 형성시켜서 가지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람의 육신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오게 돼 있으니 이 공부를 안 하고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여래천에 들게 되면, 여래천이란 무엇인가?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구성된 국토다 이겁니다. 한마음으로 이어져서 모두가 일체 심봉으로서 뭉쳐진, 둘이 아닌 까닭에 여래라고 한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면에, 육체 속에 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 여래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 여래국에 모든 마음이 가설이 되고 직결이 돼서 돌아간다면, 얼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파서 '모든 거는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 놨을 때 한 찰나에 일체제불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을 통해서 약사가 돼 주는 겁니다. 통신이 될 때에 두뇌로 인해서, 즉 누진으로 인해서 대뇌를 거쳐서 소뇌를 거쳐서 중뇌에서 결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을 합니

☞ A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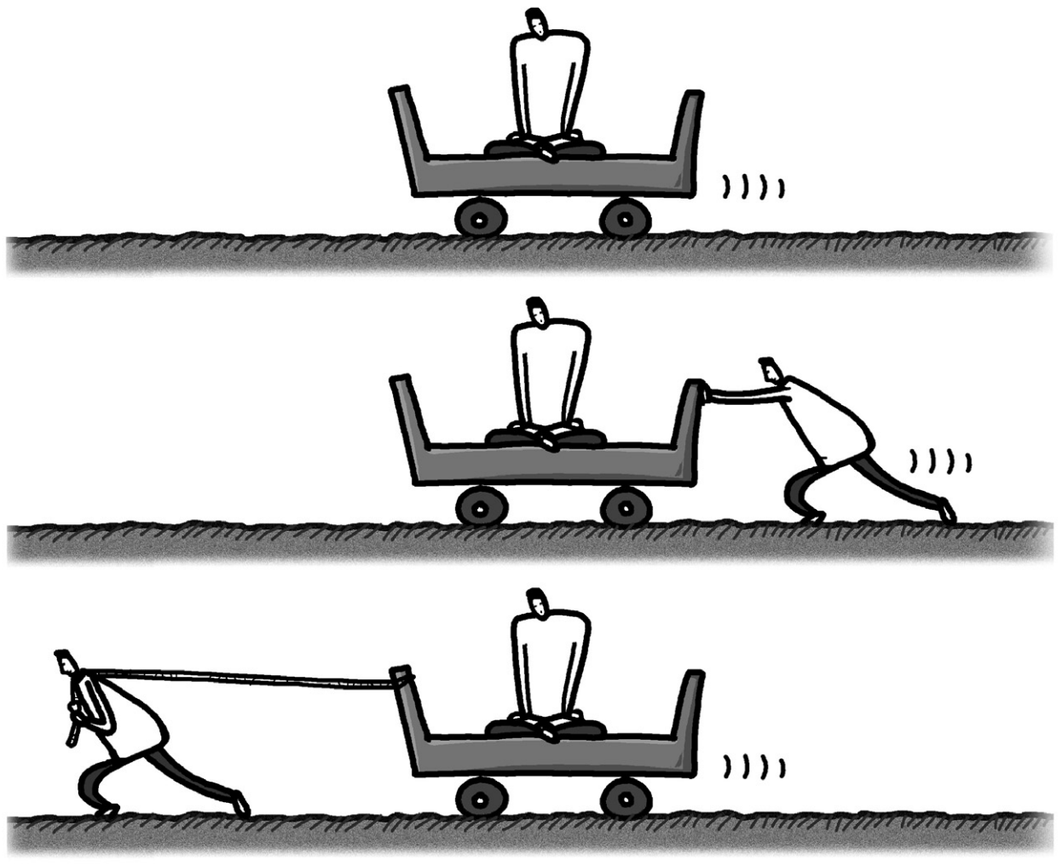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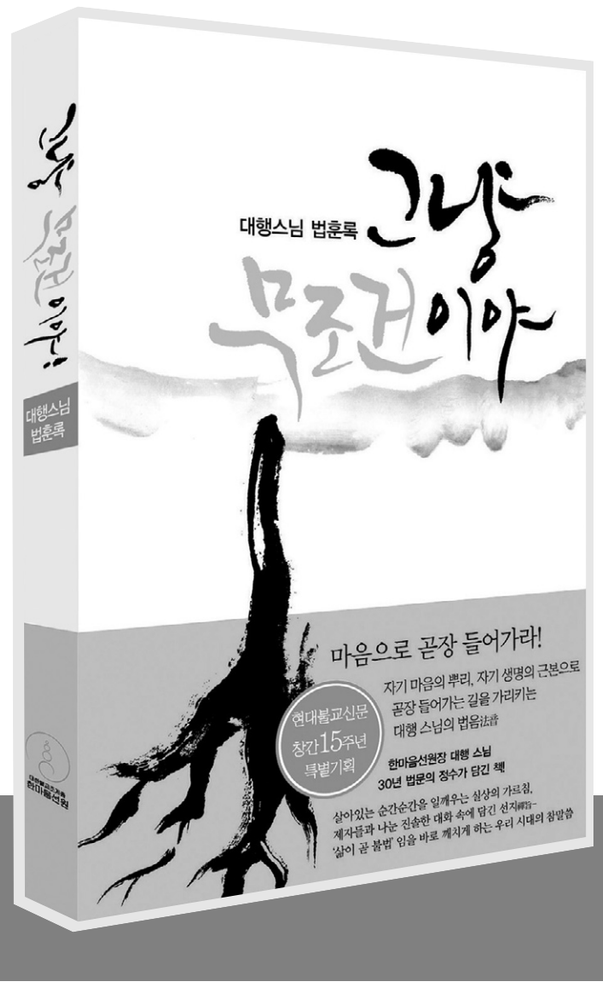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잘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주인공에 몽땅 놓아야 합니다

☞ A29면에서 계속

다. 사대로 통신을 하면 사대의 모든 생명들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오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을 벗는다 하더라도 한 찰나에 부처님 국토에 한마음으로서 구성되면서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할 때는 지금 시쳇말로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서, 손꼽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죠.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한마음 부처님 여래천에 모두가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살아나가는 데도 군더더기 붙지 않고 여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재력과 능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천차만별의 생명들이고 천차만별의 모습들이고 천차만별의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차원대로 가고 있는데 왜 스님은 별나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놓으라고 하느냐 그러겠죠? 어디 길을 지나가다 분수를 보셨습니까? 분수요. 분수에서 물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묵은 물이 겉으로 나오고 겉의 물이 묵은 물이 되고 이렇게 한군데로 나와서 한군데에서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또 모여서 거길 통해서 또 나오죠? 통하는 데는 한군데밖에 없어요. 들어가고 나오는 구멍이 한군데밖에는 없어요.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체 모두가 이어지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아리송합니까? 허허허.

팔만대장경이란 어떤 것인가? 우주 천하, 세상 천지에 천차만별의 만물만생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러니 지금 팔만대장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의 그 시절에 맞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그 용어를 알 수가 없고 감지가 되지 않아요. 시대가 변경되고 모두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변해 가기 때문에 변하는 대로 용어는 바뀌게 돼 있죠. 뜻은 다 똑같은데 용어는 바뀌게 돼 있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옛날에는 박으로 바가지를 만들어서 써야 했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일체가 다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고 용어가 바뀌고 이랬습니다. 그러니 그 뜻은 그대로 하되 그 용어는 바꾸고 개선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경에 있는 말씀은 안 하고 부처님 말씀은 안 하고 만날 이런 말만 한다고 그러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따로 있나요? 부처님께서도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바로 내 자리처럼 둘로 보지 않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이끌어 가고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도 서슴지 않고 방편을 쓰셨죠. 그러니 나를 말 잘하는 앵무새로 만들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말이 말로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으로 새겨서 받아들이셔서 현 생활에 적합하고 이익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금덩어리가 되십시오. 금덩어리도 잘 만들어서 자꾸 생산을 해내야 빛이 나지요. 금덩어리 그대로 두면 빛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분수처럼 그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고 돌아가듯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잘되는 것도 주인공에다 놓고 안되는 것도 주인공에다 놓으라고요. 시발점 종점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타는 시발점에서도 내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리는 종점에서도 또 시발점으로서 타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타고 내리는데 어떠한 것을 안된다 된다 이런 말로 소홀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안되는 것이니까 나를 아주 튼튼하게 반석처럼 가르치기 위한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그걸 재료로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믿고 거기다 놓을 수 있습니다. 또 되는 거는 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타는 것만 법이고 내리는 것은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나갑니까.

일체가 다 그러하니 여러분의 체가 없는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되는 건 안된다고 야단입니다. 내릴 때는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득부득 타고만 간다면 그건 또 잘못되는 일이죠. 그러니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둘이 아니니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로구나. 그 마음이란 놈이 얼마나 묘하고 광대무변한지 모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바로 마음을 마음대로 할 때에 비로소 만물의 영장이면서 바로 자유인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죠. 여래라고 하는 것도 여래불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에요. 모두가 한데 이어져서 돌아가는 둘 아닌 도리를 깨친 분이 바로 여래니까요. 한마디만 더 하고 여러분의 애고를 좀 들어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내 자성불, 즉 내 주처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으라고요. 이것이 자가발전소입니다. 내 주처에다가 놓으면 바로 통신이 돼 가지고 일체제불의 국토에서 여기 내 마음을 통해서 한 찰나에 바로 한마음이 돼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약사가 돼 주고, 어려우면 관세음이 돼 주고,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이 돼 주고, 명이 짧으면 칠성이 돼 주고, 물에 들어가서 어려우면 용신이 돼 주고, 길을 걸을 땐 지신이 돼 줍니다. 여러분이 아프거나 애고가 있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다 그렇게 응해 줍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하나지 둘이 아니죠. 근데 그 부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공해서 바로 '무(無)'했단 말입니다. 그 많은 분들의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 바로 하나로 이어져서 돌아갑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죠. 마음을 넓혀서 보면 부모도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자식도 내 자식 아닌 게 없습니다. 물론 육신을 빌려서 내가 형성됐다면 우선권은 있겠죠.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거두지 못하는데 어떻게 육의 부모의 몸을 거두며, 육의 부모의 몸을 거두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의 모든 것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화목을 도모하지도 못한다면 그냥 아들 딸 자식 부모 형제 모두 화목을 도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가는 거기에 하나로 돼서 돌아가야,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를 붙들고 육체를 붙들어야 또 화목을 도모하고 화목을 도모해야 모든 게 공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습 옷이 헐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다시 새 옷을 입고 나오는 것도 자유스럽게, 내가 입으려면 입고 말려면 말 수도 있고 어떤 옷이든 내가 선택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한 대로 자동적으로 무명에 갇혀서, 고기가 됐으면 어쩔 수 없이 고기 대접밖엔 못 받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됐으면 개 대접밖엔 못 받을 거고 사람이면 사람 대접 받을 테죠. 그리고 사람도 행동 말 또는 뜻을 넓히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사람 대접도 못 받죠. 그러니 모든 부처님, 깨달은 부처님들께서 여러분한테, 사람이 태어나면 이러이러하다고, 또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나가는 게 동등하다고, 일체 생명이 둘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른 채 무슨 귀신이나 다루며 목탁이나 치고 머리 깎고 염불이나 하는 것이 스님인 줄 안다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들일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할 분은 질문하시고 애고가 있는 분들은 애고를 말씀하시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 내용을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항상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러니 말씀하실 때는 용건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감사함을 말씀하시라는 거는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주처를 믿지 못하고…, 저 나무로 예를 든다면 나무가 자기 뿌리에다가 마음을 기대야 할 텐데 딴 뿌리에다가 기대고 있어요. 저 나무가 딴 나무에다 기대고 있으니 그게 생전 공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내 나무는 내 뿌리에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나무 위로 올려보내야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무들이 모두 남의 나무만 쳐다보고 남의 나무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줄 알고 거기서 잘되게 해 달라 못되게 해 달라 온통 야단법석들을 하니 언제 자기는 발견하고, 언제 부처님 국토에 한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깊이깊이 생각하십시오. 천만 냥을 주고 만만 냥을 주고 이 세상을 다 떠 온대도 바꿀 수 없는 마음공부니까요.

내가 여러분한테 돈이나 받아서 잘살고 잘 입고 잘 먹고 그러려고, 이름이나 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몸뚱이도 다 버렸습니다. 우리 다 그렇죠. 몸뚱이도 버릴지언대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악업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업식이 다, 악업 선업이 자기 영혼에 부착이 돼서 그냥 그림자처럼 쫓아다닐 겁니다. 이 세상에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또 그 속에서 허덕이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발목이 붙들어매질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도리가 엄청난 도리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이 공부를 못하면 아예 세세생생에 발을 빼지 못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악업 업식 무명 속에서 벗어나서 세세생생에 자유인이 돼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스런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유스럽게 못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갈 데 있으면 묵묵히 타는 거고
또 내려야 할 때 묵묵히 내리면 되고 이러는 거지
밖에 참섭 안에 참섭,
남이 내리는 거 오르는 거 다 참섭하면서 온통 걸리고 돌아가니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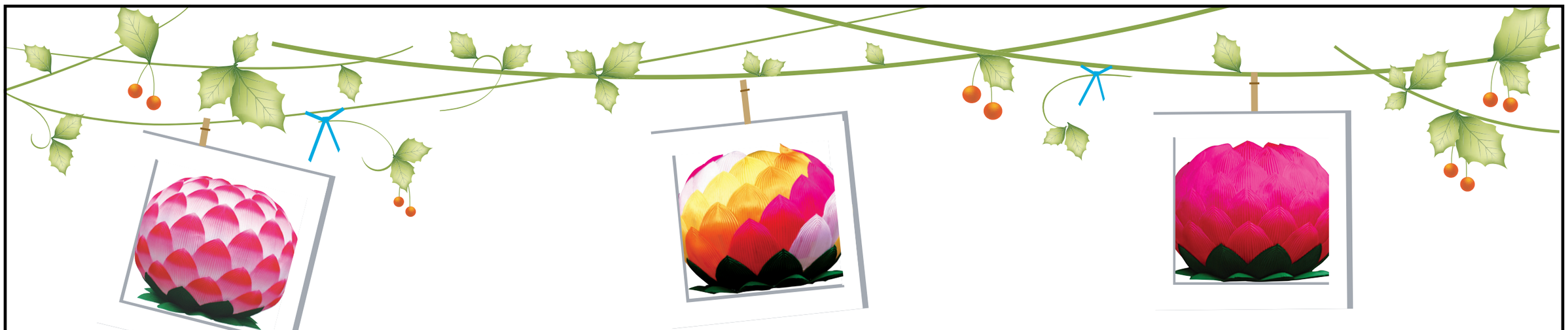
질문자1(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심의회 회원으로서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이미 다 설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죄업과 인과가 있다면 확실한 지금의 내 안에 있는 것으로써, 내 안에 선업과 악업이 잔뜩 실려 있으니 지금 크게 한생각을 일으켜서 진실로 놓아 버린다면 업의 테이프는 공테이프가 될 것이라고 『한마음 요전』에서 설하셨습니다. 이는 선업도 악업도 모두 쉬고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는 것이 재입력하는 작업이니 재입력하는 수행만 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큰스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발점에서 차를 탔으면 탔을 뿐이고 종점에서 내렸으면 내릴 뿐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육신을 끌고 타고 내리고 그랬을 뿐인데 그것을 집착해서 잔뜩 마음으로 껴안고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에 바로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한마디만 방편으로 했다 해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사는 것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 올라오실 때 발자국 짊어지고 오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오긴 왔는데 짊어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일생살이를 다 그렇게 사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10월 17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8주년 을 축하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찬덕불교의 연등이 새로워집니다.
찬덕불교는 우리 전통을 이어 온 아름다운 등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연등 변화의 새로운 바람을 선도하겠습니다.

찬덕불교 대표 김기찬 합장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불자 세상보기

노벨상과 우리의 모습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연구에 매진하는 것은 노벨상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과학연구 평가의 기준이 노벨상만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사회가 매년 소동에 가까운 많은 관심을 지니고 거론되는 것을 보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결핍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노벨과학상의 수상은 그 연구업적이나 연구 분야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의미하기에 학계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주목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역대 정권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에 대하여 의도를 지니고 지원한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황스캔달(Hwang Scandal)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대표적 과학 사기사건인 2005년도의 배아줄기세포 사태 때 보여준 참여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 역시 2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G20 국가 가운데 노벨과학상을 수상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자 즉시 '노벨과학상 수상 프로젝트'라는 대국민 홍보용 행정을 시작했다.

그런데 국내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인 일본의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자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연구자 개인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말해준다. 한 나라의 과학수준이란 특정 몇몇 과학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학계 전반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내부 역량으로 차오르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낸 여러 나라를 보면 분명하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식 학문의 바탕을 지닌 일본과 2차 대전 이후 국제과학계를 이끈 미국은 각기 장단점은 다르지만 자신들 나름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 속에 고유한 학문 풍토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강제적으로 형성된 배경을 바탕으로 해방 후 급격히 유입된 미국식 제도의 표면적 이식이 자리 잡았다. 우리 역사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과학문화가 형성되지 못했고, 더욱이 군사독재 시절의 관주도 풍토에서 교육과 연구 모두에 정치적 요소의 개입이 현저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연구체계는 일본과 미국, 두 과학문화의 단점만 모아놓은 형태다. 더욱이 최근 무한경쟁과 산학협동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명목으로 튼튼한 학문적, 재정적 기반도 없이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 고등교육의 민영화 개혁과 더불어 1년 단위의 연구자 논문 숫자 평가는 학문 연구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의 과학연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런 우매함이 불행히도 우리 자신과 불교계 내부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연구다.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막대한 국익과 다른 나라와의 경쟁 우위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상 속에 온 세상을 구원할 것으로 착각하면서 길거리에 나섰던 우리 불교인들이 외쳤던 것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였다. 물론 그 연구 자체가 이미 국제적 과학사기 사건으로 밝혀진 셈이지만, 설령 당시 배아줄기세포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었다 해도 이번 노벨상 수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생명윤리적 문제점도 포함해 그 기술이 약속했던 많은 부분은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로 대체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스스로의 종교적 가치마저 잊고 국익과 경쟁우위라는 신자유주의적 구호 속에 길거리에 나섰던 우리 불교인들에겐 끊임없이 변하는 과학기술과 시대나 문화를 떠나 존중되는 불교적 가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 과학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한 때의 특정 과학기술에 대하여 당장 무언가가 될 것처럼 착각하고 모든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과학을 전혀 모르는 이들의 모습이다.

특정사회가 과학을 접하는 태도와 과학연구자들의 자세는 그 나라 과학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자는 인터뷰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미 국내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각종 줄기세포 치료나 관련 제품의 유행과 더불어 이에 대한 과도한 선전과 믿음은 우리사회와 학계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듯해서 불교신자이자 과학자로서는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부대중 칼럼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석길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센터 교수

조선왕조 5백 년 동안 한국불교는 불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억압으로 쇠락을 거듭한다. 조선의 불교 억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불교가 사회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승려의 공식적인 배출통로인 도첩제를 폐지했고, 승려의 도성출입을 금지하였으며, 도성을 비롯한 읍성 지역에 있던 사찰들은 대부분 폐사시켰다. 승려들이 사회에 접근할 통로를 모두 막아버린 것이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쇠락을 거듭하던 조선전기의 불교는 150여 년만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 조선의 지배층이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면,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중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의 약자에게서 그 길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의 승려들이 스스로 찾아내었던 생존의 첫 번째 장치는 '계(契)'이다. 갑계(甲契)를 비롯한 어산계(魚山契)·미타계(彌陀契)·도종계(都宗契) 등 다양한 종류의 계(契) 모임이 승려사회에서 출현했고, 그것은 무너져 내리던 사찰의 보수와 승가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기능했다. 사명당 유정의 〈갑회문(甲會文)〉은 이미 임진왜란 전에 그러한 생존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길은 불교의 외연을 재정비하는 것이었는데, 사회의 약자였던 조선의 민중들이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한글로 된 불교가사이다. 우리가 요즘 흔히 접하는 '회심곡'이나 '백발가' 같은 것들은 대부분 조선중기, 새로운 외연이 필요했던, 지배층으로부터 억압당하면서도 중생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조선승려들의 가슴에서 출현하여, 민중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것들이다.

스스로의 자존(自存)을 바탕으로 조선의 사회와 함께 호흡한다. 그것이 억압당하던 조선불교의 생존법이었다. 임진·병자 양란에 수많은 의승군을 동원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고, 5백년의 제도적 폭압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원천이기도 했다. 스스로의 자존을 위한 장치의 계발, 중생 없는 불교는 없다는 철저한 자기인식, 그러한 것들이 조선불교가 수난의 5백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

오늘날의 한국불교를 보자. 자존의 노력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중생과 한묶음이라는 원천적인 존재 인식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급격하게 서구화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한국사회에서 불교는 무엇을 가지고서 자존을 찾고, 무엇을 가지고서 중생을 고민했는가. 언제부터인가 불교지성들과 대중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호흡하는 장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함께 하는 장에서 조차 신심으로 부푼 가슴을 내미는 불자대중들에게 냉철한 이성의 불교만을 요구하는 불교지성 역시 적지 않다. 불교라는 고매한 이상적 철학체계 관념의 체계는 존재해도, 대중들의 가슴에서 비롯되는 신심(信心)을 함께 호흡하는 불교지성은 찾기 힘들다.

7~8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현장에서 대중들과 함께 하는 불교를 고민했던 선각자들에게서 비롯되는 도심포교의 현장들은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생존법이다. 이 시대 중생들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거센 회오리 속에 있었다. 산업현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심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야 중생들과 함께 호흡할 방법이 없었다. 전통을 도심 속에서 산업현장에서 되살린다는, 거기에서 중생을 만난다는 의식이 그나마 한국불교의 현재를 가능하게 했다.

잠실의 불광사나, 부천의 석왕사는 그런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들 도심사찰의 현재는 당대의 불교선각들이 가슴으로 중생을 고민한 결과이다. 산중의 한적함만으로는, 이성적인 불교철학만으로는 이 시대 중생들의 고민에 답하는데 한계가 있다. 2~30년 앞서서 도심의 중생, 산업현장의 중생들과 호흡했던 사찰들이 경기 침체의 외풍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한국불교의 오늘에 대한 중생의 답변일 것이다. 당대 중생의 자화상을 고민하지 않고서야 어찌 불교가 존재한다고 말이나 꺼내볼 수 있을까.

社說

불교계, 세종시 강건너 불

제2 행정수도, 세종시 시대가 열렸다. 총리실 산하 6개 부서가 9월 14일과 15일 입주했으며,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세종시로 가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모두 36곳으로 서울에는 입법부, 사법부, 외교부 등 5개 부처만 남는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규모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시 말해 종교적으로 보면 서울-경기-충청을 잇는 거대한 포교 벨트가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세종시의 현 상황은 낙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는 지난 8월 종교용지 41필지를 분양했고 현재는 13필지가 분양됐다. 하지만 불교는 어느 한 곳도 분양받지 않았다. 현재 13필지 중 8필지는 개신교 단체가 일반 개인이 3필지, 천주교 1필지, 원불교 1필지를 입찰을 통해 분양받았다. 그나마 9월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미 서울?경기나 신도시 개발 지역 종교용지에 불교는 없다. 대부분 공개입찰로 진행돼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개신교계에서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물론 종단의 관심 부족도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상황은 수도권 포교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모두 '자업자득'의 결과다.

제2수도 세종시가 위와 같은 전처를 받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개신교단들은 세종시에 개척 교회를 짓겠다고 계획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인근 교구본사 관계자들은 총무원에 '전법회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말로만 신도시 포교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걱정보다는 실천이 필요하다.

스님들의 불적 답사 연수교육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남산은 말 그대로 성보문화재들의 보고다. 산곳곳에 147개의 절터와 120여 구의 불상, 99기의 석탑과 22기의 석등이 신라의 1천년 역사를 간직한 채 산재해 있다.

지난 10월 6일 조계종 77명의 스님들이 불교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이곳을 찾았다. 조계종 교육원이 2012 하반기 연수로 실시한 '경주 남산 불적 답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서남산서 출발한 스님들은 초입의 삼릉(三稜)을 거쳐 냉골 석조여래좌상, 일명 불두 없는 여래좌상을 만났다. 바로 위에 있는 마애관음보살입상도 친견했다. 그곳서 100m가량 걸어가 마애선각육존불도 봤다. 스님들은 모든 불상을 만날 때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예를 표했다. 또한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필기하거나 녹음하며 답사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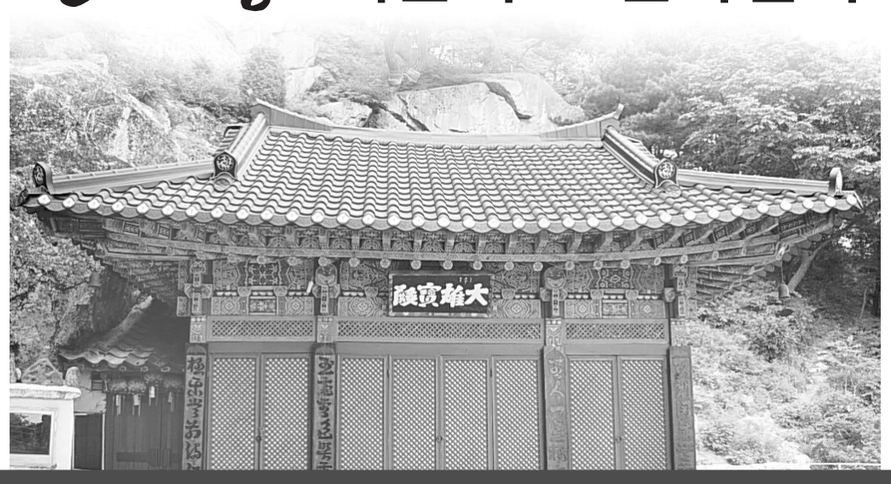
이날 불적답사는 염불사지와 남산동 쌍탑을 끝으로 경주 남산을 동서로 종주하며 마무리됐다. 그 길이로만 10여 km에 달한 강행군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없이 성실히 답사에 임했다. 새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은 참가 스님들에게 높은 만족도로 다가왔다. 특히 전문 강사의 설명 들으며, 경주 남산을 둘러볼 수 있었다는 데 스님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

사실 여태까지의 대다수 스님들의 연수는 실내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다. 여기서 탈피해 대안으로 기획된 것이 바로 이번 답사 교육이다. 이 프로그램은 스님들이 처음으로 국내 불교유적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스님들은 새로운 것을 느끼고 이를 자신의 삶과 수행에 투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리라 본다. 앞으로도 이 같은 현장 교육이 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

향후 교육원도 이번 교육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보완해 다양한 답사 코스를 개발, 연수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불교문화유산도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또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www.shcandle.net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新 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디지인 특허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밀납양초 교체형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나 비 양 초

NEW



3×6 연꽃나비 / 신제품 / 노랑 / 연두 / 백색 / 핑크 / 환타 / 주황

예 술 양 초



1호야광연꽃초 / 밀납야광연봉연꽃양초 / 밀납1호예술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행 사 양 초



야광용 양초(용) / 야광용 양초(호랑이 · 연봉) / 흑룡초



육 각 초



칠성초 (연화 · 호랑이 · 반야)

연화(大 · 中 · 小) / 밀납연화(小)

일 제 향



와까바 / 후라지아 / 영원향 장,단(소바라) / 라일락향 / 수중초 9.0φ×3.5㎝

국 산 향



쑥향,백목향,목향 /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 / 등大



도자기 인등(大) / 도자기 인등(小)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한봉밀납양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천 연 쑥 양 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전 사 지



1 2 3 5



6 7 8 9

제품문의 :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그림 · 박구원



시·공간 제약없는 신행… "스마트 해졌어요"

PC통신서 SNS까지… 불교 IT콘텐츠 변모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은 현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만나고 소비한다. 불교 역시 20여 년의 시간동안 이런 IT 생태계에 적응해왔고, 나름의 환경을 구축했다. 본지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변화와 현황,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케이블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이 드라마에는 주인공들은 자신의 일상과 관심사를 또래들과 PC통신을 통해 이야기한다. 1990년대 초반 나온 PC통신은 현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었다. 이 같은 새로운 공간은 불교계 신행 지형에도 적지 않는 변화를 가져왔다. '사이버 신행 · 포교'라는 트렌드가 만들어진 것이다.

PC통신, 온라인 불교를 열다

불교계 최초 '온라인 신행단체'는 1991년 9월 데이콤 천리안의 전신인 'PC-Serv'의 불자 동호회로 시작한 '천리안 불교동호회(이하 천불동)'였다. 1992년 6월에는 '하이텔불교동호회(이하 하불동)'이 창립됐다.

인터넷이 보편화 된 이후에도 인터넷으로 자리를 옮겨 자체적인 온오프라인 신행활동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던 것 일까. 현재 최초 온라인 신행단체 천불동은 2002년 폐쇄됐다. 그나마 회원 수 99명의 하불동이 아직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당시 세대에게는 위안이 되고 있다. 실제 하불동은 '번개(인터넷을 통해 급히 약속을 잡고 만나는 일)' 모임과 정기 일요법회, 산행 등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신행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이 가져온 신행의 변화

2000년대 들어 인터넷과 PC가 활발히 보급되면서 검색 엔진을 탑재한 포털사이트들이 잇달아 문을 열게 된다. 이들 포털사이트들은 '카페'라는 시스템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지고 있는 누리꾼끼리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불교 관련 카페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들 카페는 포털사이트 '다음'에만 1만여 곳이 있으며, '네이버'에는 5천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다음 카페 '나무아미타불'과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등은 인터넷 카페 문화가 시들해진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장수 인터넷 신행 동호회들이다.

인터넷 상용화는 개인 홈페이지 제작 붐이 일면서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참여도 이어졌다. 성법 스님은 2001년 불교경전총론 사이트 '세존'을 오픈했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혜봉 거사의 '명상아카데미', 구선 스님의 '관수련회', 상명대 박석 교수의 '바라보기 명상' 등의 수행 사이트들도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불교계 각 종단과 유명 사찰들도 각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중 소식들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홈페이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법문, 교리 강좌들이 가능해졌고, 조계종 포교원은 2009년 종단 사이버불교대학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당시 불교계 주간 언론들도 홈페이지를 잇달아 구축했다. 현대불교신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불교신문(www.buddhistnews.net), 법보신문(www.beopbo.com), 등 불교계 신문들은 주간신문의 한계를 넘어 일간 또는 실시간 체제로 뉴스를 현재까지도 서비스하고 있다.

천리안 불교동호회가 시초
인터넷 카페 1만 5천 곳
사찰 홈피, 강좌 상시 운영
현재 SNS로 세상과 소통
창작 콘텐츠 개발 · 소비 미흡
인적 인프라 구축 선행과제

내 손안의 PC, 세상을 바꾸다

2000년대 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며 세상은 전환점을 맞는다. 모든 사람들이 PC가 아닌 손 안의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정보와 친구와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스님과 재가불자, 일반인의 1:1 소통이 가능해져 적지 않은 반향을 가져왔다. 특히 SNS상 스님들의 진솔한 글과 단상, 상담들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힐링'이라는 사회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변화된 신행풍토를 가져왔다. 현재 적지 않은 사찰들과 불교계 단체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찰과 불교계 소식, 불교문화콘텐츠를 전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의 경우 '헬로 달마 스쿨'을 비롯해 '독경 반야심경'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현재에도 어린이 포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준비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적한 사이버 불교의 과제

대부분의 사찰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혜민 스님과 같은 SNS 스타를 배출한 불교계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중점으로 한 웹 2.0 시대에 불교계 디지털 콘텐츠는 1차 자료를 전산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아직 불교계의 수준이 웹 1.0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대해 박수호 덕성여대 사회학과 겸임교수는 "현재 다양한 문헌이나 사진, 법문 등을 전산화함으로서 콘텐츠의 원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원형 콘텐츠를 활용할 창작 콘텐츠의 개발이나 소비는 미흡하다"며 "불교계 주요 기관이나 사찰 등의 인터넷 서비스는 일종의 홍보나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불교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주요 종단과 기관들의 공적 투자를 통해 불교 앱과 콘텐츠를 개발해 공공재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촉매로 하여 앱이나 콘텐츠 이용자층을 형성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며 "SNS의 경우 관세음보살이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살피고 들어주시는 것처럼 불자들과 일반 대중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통을 어루만져야 한다. SNS가 종단의 스피커나 소식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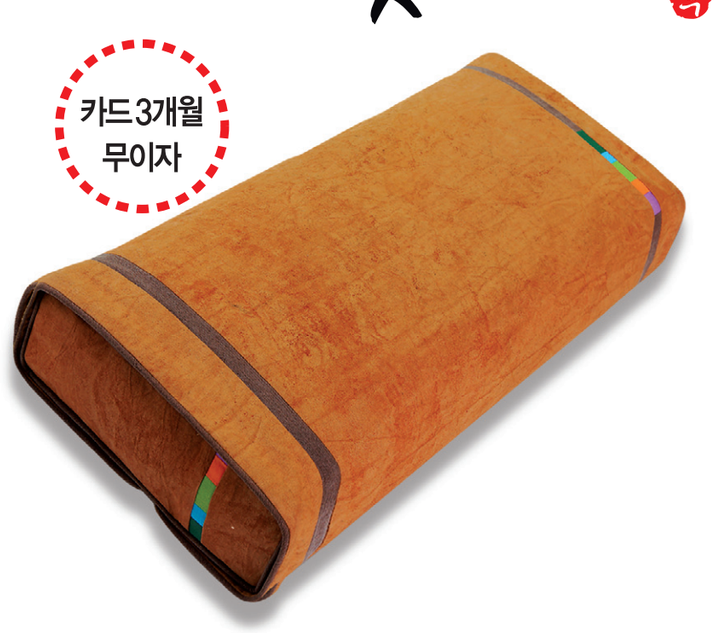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SNS 등 변화하는 IT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 개발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 창작 작품들을 받는 등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수풀림 천/연/감/염/색

대나무숯베개 대나무

흡착력이 뛰어난 대나무숯의 효능!
천연 감염색의 신비!



■ 제조 : 수풀림숯침대(주)
■ size : 45. 22. 7.5cm
■ 가격 : 천년베개 ₩110,000 2점세트 ₩200,000

수풀림대나무 숯 베개는 지리산 자락 청정지역의 왕 대나무를 채취하여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숯 제조 기술로 1.000℃ 이상 고온에서 소성한 대나무 숯과 항균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굴참나무를 넣어 효능을 극대화한 천연베개입니다. 또한,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안감 겉감 모두 감으로 유명한 청도군의 특산품인 「천연감염색천」을 사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풀림대나무숯베개」는 100% 국내산으로 국내에서만 제작되는 친환경 인체친화형 천연 숙면 베개입니다.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정제용 대나무 숯은 몸속의 나쁜 피로물질을 흡착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하여 숙면을 취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와 얼굴 피부에 직접적인 연관있는 베개를 선택하실 때에는 자의적 효능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베개가 좋은 베개입니다.

제품신청 080-300-1080

NAVER 검색창에 대나무숯베개 를 쳐보세요

원적외선 음이온 항균 수분흡착 수질정화 냄새제거 전자파차폐 아토피

천연감염색 대나무숯베개의 효과

* 대나무숯은 차운 기운이 방출되어 머리를 맑게 하여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 대나무숯은 땀이나 침 등의 수분을 흡착하여 늘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 대나무숯은 흡작기능과 정화능력이 뛰어나 몸속의 피로물질을 흡착 정화해줍니다.
* 천연감염색천은 청도군의 특산품으로 검증된 친환경 제품입니다.
* 너무 딱딱하지 않게 굴참나무 껍질을 넣어 알맞은 경도로 제작되어 포근함을 유지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두통/불면증/아토피/만성피로/목디스크/수험생/직장인/선물용/혼수용

■ 전국취급점모집 담당 : 010-3863-3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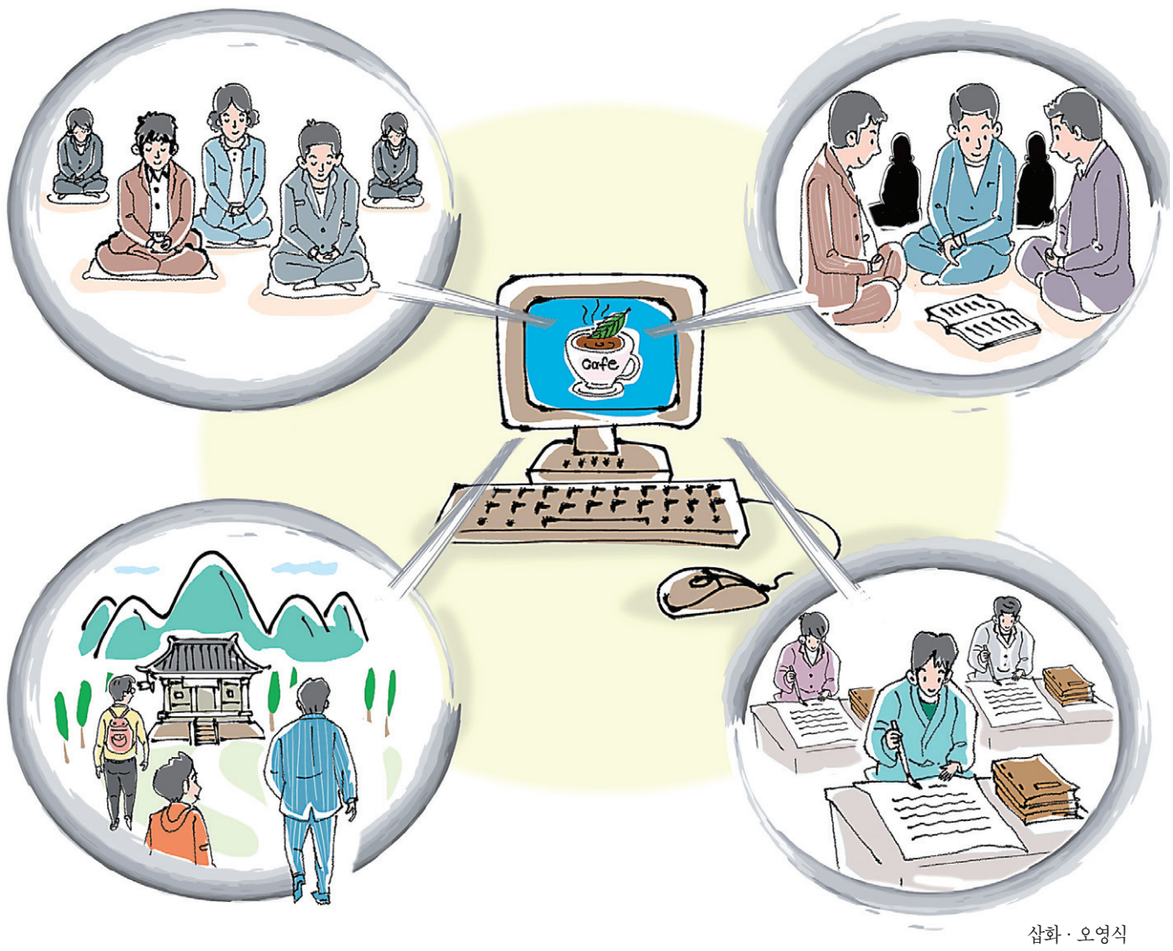
수행정보에서 도반까지…신행카페서 만나요

인터넷이 생활 깊숙이 파고들면서 수십만 네티즌 불자들이 수 백 개의 불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불교 신행을 위한 동호회 가운데 신행의 꽃인 수행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수행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현재 불교카페 및 불교커뮤니티가 다음(http://cafe.daum.net) 1만1200개 네이버 (http://cafe.naver.com) 5054여 개가 등록돼있으며 이는 1만5000여 개를 넘는 수치다.

특히 카페 형식의 수행, 명상관련 동호회가 늘고 있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수행관련 사이트나 카페는 1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카페는 포교, 친목단체, 사찰순례, 봉사, 찬불가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으로 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삽화 · 오영식

인터넷 신행카페 현황 및 리스트

수행 · 실천 전문 카페

수행관련 사이트는 크게 수행법에 따라 선, 위빠사나, 염불 수행, 명상을 포함한 제3수행법, 모든 수행법을 아우르는 종합 수행 카페 등이 있다.

카페 아비라(http://cafe.daum.net/abira)는 성철 스님의 비로자나 법신 진언을 외우는 기도인 아비라 기도와 3000배, 능엄주, 화두 참선을 주로 하는 사이버 수행공간이다. 아비라 기도와 절, 능엄 수행을 하면서 얻게 되는 변화 등을 담은 '수행일기'에서는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의심들을 풀어준다. 그 밖에 성철 스님 법어집과 강의 자료들도 있어 성철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배우고 싶은 불자들에게 유용하다.

위빠사나수행가이드(http://cafe.daum.net/vipassana)는 위빠사나 수행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수행법 및 경전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수련회 · 강좌 및 정기모임 소식을 알리고 있다.

명상힐링아쉬람(http://cafe.naver.com/occultmulder)은 다양한 명상 수행법을 비롯해 불교 · 원불교 · 기독교의 영적 스승들의 법문과 에세이 등을 업데이트 하고 있어 열린시각으로 이웃종교를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보현행원(http://cafe.daum.net/sabee)은 부처님 법을 배우고 따르며 실천하는 모임이다. 정기적으로 성지순례와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기초교리 게시판의 '365일 부처님 말씀사'와 〈아함경〉 이야기는 일상과 종교 생활 양쪽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많으므로 챙겨 읽어보기 좋다.

출가를 생각하는 사람들(http://cafe.daum.net/bucheo)은 출가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다. '나의 출가에 대해' 게시판에는 단기출가 및 산사체험, 출가에 앞서 하게 되는 고민 등을 담고 있다.

직장인 불자모임

바쁜 현대 사회에서 직장인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가면서도 일터의 불자들은 의기투합해 불교카페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고 정진해나가고 있다.

불교를 사랑하는 직장인들의 불교 연구모임인 직장불교(http://cafe.daum.net/officebuddha)는 5400여 명의 카페회원이 지역별로 활동하면서 부처님의 생애부터 〈열반경〉 〈법화경〉 등 대 · 소승 경전들을 공부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불자들의 모임인 경찰불교(cafe.daum.net/knpbuddha) 카페는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자유게시판과 사진방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활동 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경전공부, 불교의식, 화두참선, 절 수행 및 염불수행 등 테마별로 다양한 수행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건강과 소원성취 발원을 담은 '평생연등방'을 운영해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불자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교사불자연합회(cafe.daum.net/tbuddha)는 현재 약 1000여 명의 카페 회원이 온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16개 지부별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지부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연합회 차원의 주요 공지도 활성화해 교류의 장을 넓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야심경, 천수경, 오분향례 등 독경은 물론 초심자들을 위한 기초교리방, 불교를 보다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퀴즈방, 불교만화방 등을 마련해 회원들의 불교 이해를 돕고 있다.

스님이 운영하는 카페

경전을 공부하고 싶은데 불교대학이나 절에 갈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막연히 경전만 들여다 보고 있자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이럴 때 카페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 좋은 법문을 듣고 불교 교리를 배울 수 있다.

前 조계종 교육원장무비 스님이 개설한 염화실(http://cafe.daum.net/yumhwasil)은 현재 1만 9000명이 넘는 회원이 공부하고 있는 '경전 도량'이다. 카페에는 모두 120여 개의 메뉴가 구성돼 있을 만큼 많은 경전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놓고 있다.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각종 경전에 대한 무비 스님의 강의를 비롯해 용학 스님의 〈대승기신론〉 등 여러 스님들의 경전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청화 스님(1924~2003)의 법향과 법음을 전해주는 카페인 금강(http://cafe.naver.com/huineng)은 청화 스님의 친필노트를 비롯해 스님의 관련 자료와 가르침 등을 정리해 놓고 있다. 수준에 맞춰 불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실속 있게 할 수 있도록 자료실을 알차게 꾸몄다. 오프라인 수행 모임과 스터디 모임인 강독회가 있다.

목탁소리 지대방(http://cafe.daum.net/truenature)은 군장병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인터넷 생활수행도량 목탁소리(http://www.moktaksori.org/)와 스마트폰 앱 '올댓 마음공부'를 운영하는 법상 스님의 카페다. 4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이 카페는 법상 스님의 명상에세이와 경전공부 등이 소개되고 있으며, 회원들간 수행담을 공유할 수 있다.

영남불교대학 카페인 불교인드라망(http://cafe.daum.net/indelamang)은 4만 명에 가까운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우학 스님의 법문과 신행 상담 및 칼럼과 불교계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연령 · 지역별 카페

화계사의 청춘(http://cafe.naver.com/hwabul)은 화계사 불교청년회 공식 카페다. 숭산 스님과 현각 스님의 법문 및 화계사 청년회 활동 소식을 만나볼 수 있다.

불교카페 중년의들안길(http://cafe.daum.net/lee2921)에서는 1만 3000여 중년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교명상 · 티베트 음악, 찬불가 등을 제공하고 기초교리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놨다. 지역별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비슷한 연령의 회원들끼리 취미와 문화생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이 밖에 50대 이상 불자모임(http://cafe.daum.net/BYG5)은 삶을 인내한 연륜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내는 50대 이상 불자들의 쉼터다. 건강, 웰빙, 먹거리 등 현실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지혜를 만나볼 수 있다.

미주현대불교(http://cafe.daum.net/mobuddhism)는 미주에 한국불교와 한구불교문화를 표교하기 위해 1989년부터 뉴욕서 발행하는 월간지 〈미주현대불교〉의 카페다. 미국 · 캐나다 불교를 중심으로 한 미주한인불교신자들의 활동 및 아시아 불교국가들과 서양인들의 불교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인터넷 신행 카페

카페명	주 소	주요활동	회원수
아비라	http://cafe.daum.net/abira	아비라기도 사이버 수행공간, 수행일기 수록, 성철 스님 법문 수록	7311
무루찻집	http://cafe.naver.com/mooru	선(禪)관련 자료 수록	1852
위빠사나수행가이드	http://cafe.daum.net/vipassana	위빠사나 수행 및 경전자료, 수련회 · 강좌정기모임 안내	4277
일상에서 불공 드려요	http://cafe.naver.com/qlllelll	경전, 독송, 참선수행 일지 공유	8246
명상힐링아쉬람	http://cafe.naver.com/occultmulder	불교, 원불교, 기독교 등 타종교 에세이와 가르침 수록	9788
보현행원	http://cafe.daum.net/sabee	부처님법 실천모임, 자원봉사 · 성지순례 활동 모임	3974
출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http://cafe.daum.net/bucheo	출가에 앞서 하는 고민 및 단기출가 · 산사체험 경험 공유	2235
직장불교	http://cafe.daum.net/lee2921	찬불가, 기초교리 경전공부, 불교자료방	13396
경찰불교	http://cafe.daum.net/knpbuddha	테마별 수행법 소개, 평생연등방 운영	1166
전국교사불자연합회	http://cafe.daum.net/tbuddha	16개 지부소식 교류, 기초교 공부, 성지순례	1037
염화실	http://cafe.daum.net/yumhwasil	〈화엄경〉〈법화경〉〈금강경〉 등 무비 스님 강의수록	19423
금강	http://cafe.naver.com/huineng	청화 스님 법문 및 관련자료 수록, 수준별 불교공부	5134
목탁소리 지대방	http://cafe.daum.net/truenature	법상 스님 명상에세이 경전공부, 신행상담	4621
불교인드라망	http://cafe.daum.net/indelamang	우학 스님 법문 및 신행 상담	39625
화계사의 청춘	http://cafe.naver.com/hwabul	숭산 · 현각 스님 법문 수록	1627
길상사 청년회	http://cafe.daum.net/gilsangsa	1966~1986출생자만 가입가능, 일요법문 및 행사 소식	1491
불교카페_중년들의 안길	http://cafe.daum.net/lotuslife	수행 · 신행상담, 경찰병원직원불자회 소식	1376
50대 이상 불자모임	http://cafe.daum.net/BYG5	50대 이상 불자들의 쉼터, 건강 · 웰빙 먹거리 등 정보공유	2100
미주현대불교	http://cafe.daum.net/mobuddhism	미국 및 서양 불교활동 소개	2929
연꽃삶	http://cafe.daum.net/officebuddha	지역별 활동, 대 · 소승경전 공부	5451
자비명상(나누는 기쁨 공동체)	http://cafe.daum.net/jurira	마가 스님의 치유명상프로그램 소개	7198
생활불교	http://cafe.daum.net/mercylife	생활 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카페,	3473
나를 찾는 불공	http://cafe.naver.com/bgong	어록논서수록, 불교수행법 안내, 경전산책, 음성법문	8993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의 장 석무겸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로의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재무부장 석종률 문화부장 석법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dwbk.net

부산 제2 총무원 청사개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식물원 39길 2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불서읽기·사찰순례…정기모임으로 신심 다져

초심자부터 신심 깊은 불자들까지 많은 이들이 인터넷 신행카페를 통해 불교 수행법을 배우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들은 온라인 모임에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 모임으로까지 확대시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이버 불자들을 결집시킨다. 정기적으로 모여 철야정진을 하는가 하면 전국을 사찰을 순례하며 친목을 다진다. 또한 불서를 함께 읽으며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도 한다.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불교 신행카페 네 곳을 소개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①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들은 함께 전국 명찰을 찾고 법회를 여는 국내 최대의 성지순례 모임으로 인터넷 카페 신행 모임의 전설 같은 곳이다.

②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은 특정 불교서적을 정해 매주 책읽기 모임을 갖고 회원들끼리 의견을 공유한다.

③카페 회원들은 49일 기도입재에 들어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을 하고 게시판에 수행일지를 쓴다. 다라니 독송으로 지치고 힘들 때 혹은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회원들이 쓴 일지를 보면서 힘을 얻는다.

④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cafe.daum.net/bardo2)' 회원들은 명상 수행을 하면서 각자 수행일기를 올리고 운영자에게 수행 점검을 받는다.

사찰 순례부터 자체 수련까지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cafe.daum.net/altlovebuddha, 이하 불여사)'은 2001년 카페 개설 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회원 수 20989명을 자랑하는 모임이다.

이 동호회는 회원들이 함께 전국 명찰을 찾고 법회를 여는 국내 최대의 성지순례 모임으로 인터넷 카페 신행 모임의 전설 같은 곳이다.

2011년 10주년을 맞아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창립1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 불여사는 제57차 정기순례로 건봉사를 다녀왔다.

불여사는 전국모임과 함께 서경, 부경, 대경, 충청, 호남 등 지역회를 두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역장 중에는 사찰 출신도 있고 사찰 종무원 등 오랫동안 신행활동을 해온 이들이 대부분이다.

여행이 중심인 동호회라 오프라인 모임이 꾸준히 진행된다. 회원들은 1년에 4번 있는 정기모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도 하고, 각 지역장 주관하에 매월 지역순례와 법회·자원봉사 모임을 가진다. 짝수 달에는 전국모임, 홀수 달에는 지역모임을 가지며 전국모임의 경우 1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수막을 걸고 연등행렬에 나가고 있다.

불여사는 회원 참가자 대부분이 초보불자들이기 때문에 불교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불여사 모임에 참가하는 회원 중 10명에 9명은 불교신자, 그중에 6명은 초심자다. 이들은 카페 초심자 방에서 불교예절, 기초교리 등을 공부하고 오프라인 모임인 산사체험을 통해 불교를 배워간다. 참가자 중에는 사찰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타종교인도 간혹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찰에 머물면서 108참회, 사경, 참선, 독경 등 자체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회원들의 오프라인 신행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모여 지정불서 읽어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책은 읽고 싶은데 혼자서는 페이지가 넘겨지지 않고,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때 이 카페모임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http://cafe.naver.com/mahasariputta)회원들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누릴 뿐 아니라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워간다.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은 특정 불교서적을 정해 매주 책읽기 모임을 갖고 회원들끼리 의견을 공유한다.

2004년 9월 개설돼 현재 1850명의 회원이 등록된 이 카페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개설 이듬해인 2005년 네이버의 '눈에 띄는 카페'로 선정되기도 했다.

카페는 크게 △공지사항을 전하는 '대중공사' △회원들 간 의견을 나누는 '지대방' △모임후기와 읽을 책 등을 소개하는 '붓다와떠나는책여행' △연령층에 맞는 불서와 법문집 등을 소개하는 '불서전용공간' △경전을 이야기하는 '경전연재' △교리 해설 등을 엮은 '아제아제바라아제' △사진 등의 자료를 담은 '함께나누는공간' 등으로 나눠져 있다.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은 2004년 10월 〈선방일기〉로 시작해 2007년 11월까지 3년 간 읽은 책은 총 16권으로 연간 5.2권의 책을 읽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진행되는 방식은 이렇다. 20여 명이 책상에 둘러 앉아 순서에 맞춰 담담히 10분씩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이후 모임의 운영자인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이미령 씨의 해석이 덧붙여진다. 10분 정도씩 돌아가며 읽는데 한 사람이 한 챕터를 읽은 후 난해한 부분 등을 해설한다. 일반 강좌에서 이뤄지는 토론은 배제한다. 토론은 일반불자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감상문이나 서평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나눈다.

불서 읽기 모임은 처음에 민족사 윤창화 대표와 이미령 씨 등이 주축이 돼 결성됐다. 서울 뿐 아니라 부산에도 지부가 있다. 이 모임을 통해 고익진 교수의 〈불교의 체계적 이해〉, 이이화 소장의 〈역사 속의 한국불교〉, 철우스님의 〈욕심 버리는 법〉 등 불교기초교리부터 시작해 에세이 등 다양한 책을 읽었다.

총 3년 과정으로 1년차 입문과정, 기본과정, 전문과정으로 구성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초심 불자 위주로 진행된다. 1권의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저자를 초청해 '저자와의 대화' 시간도 갖고 있다. 또한 이들 모임은 사찰이나 폐사지 탐방, 등산 등 테마여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라니독송…수행일기 보며 힘 얻어
대비주수행 카페 '덕양선원'

덕양선원(http://cafe.daum.net/zeol)은 천수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다라니 정근으로 수행과 포교의 성과를 내는 모임이다.

카페 회원들은 49일 기도입재에 들어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을 하고 게시판에 수행일지를 쓴다. 다라니 독송으로 지치고 힘들 때 혹은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회원들이 쓴 일지를 보면서 힘을 얻는다.

다라니 100만독을 성취한 선정행 보살은 "5년 여만에 다라니 100만독을 성취한 뒤로 내 몸과 마음은 변했고 차츰 삶의 방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남편을 원망하던 마음도 줄어들었고, 요즘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덕양선원은 또한 대비주 수행 정진을 이끄는 원장 법상 스님의 법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며 대비주 수행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는다.

덕양선원은 마음공부와 더불어 보살행에도 적극 나서 안팎이 조화된 수행 및 포교도량으로 자리잡았다. 회원들은 그동안 〈천수경〉과 다라니 독송 수행기를 엮은 책을 세 차례나 발행해 법보시하기도 했다.

명상, 잘되는지 의문 들 때는 이곳을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

명상을 하면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떤지 궁금 할 때가 많다.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cafe.daum.net/bardo2)'는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강선희 지음)〉를 읽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명상 카페다.

이곳에서 회원들은 명상 수행을 하면서 각자 수행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명상을 해 가는지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 진행한 '강선희 명상교실'의 강선희 보살이 카페 운영자를 맡고 있다. 그는 수행일기에 댓글을 달아 면밀하게 수행 점검을 해주면서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회원들은 명상을 통해 단 몇 개월 만에 부정에서 긍정으로, 어둠에서 밝은 쪽으로 인생행로를 바꾼 경험을 하게 된다.

회원 샤이닝 스타는 "능엄주 수행을 하면서 게으르지 말기를, 하루하루 순간의 일들을 미루지 말자고 발원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수행을 마치고 집안 분위기가 새로워진 듯해 좋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 회원들은 함께 수행하면서 서로 탁마하는 모습을 수행일기로 담아 〈체험하며 따라가는 명상네비〉라는 책을 발간했다.

Martial Arts & Temple Culture Festival

템플스테이와 함께하는 제10회 화랑의 후예 골굴사 전통무예대회

함월산 골굴사 산사예술제

● 선무도 정기공연 :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30분
(골굴사 경내 – 월요일은 휴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재)선무도 대금강문 | 한국전통무예총연맹
Golgulsa, Headquarters of Sunmudo





한국전통무예와 음악의 조화를 통한 Healing

특별출연 정율스님

일 시 |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20th Oct. 2012)
오후 1시 – 5시 (1pm – 5pm)
장 소 | 경주 골굴사 경내 (TEL 054-744-1689)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한수원(주)월성원자력본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주)다본금속

www.golgulsa.com / www.sunmudo.net

출·재가 IT교육…장소·때 가리지 않고 공부

"호주에 유학을 갔을 때 타향살이에 힘들어 인터넷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기 시작한 게 시작이에요. 인터넷으로 동영상 법문을 듣다보니 직접 스님을 보고 싶어 사찰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절이 멀어요.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서 조계종 사이버 불교대학에 등록해 교리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한 청암사 승가대학 교육모습

'스님도 스마트 공부' 사이버강좌 승가교육서 각광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 등 불교교양대도 IT 강좌
사이버 교육과 포교 인식 개선 과제로 남아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설하셨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함께 그 변화를 받아 들여야 이 시대에 적응 할 수가 있다. 변화를 정확히 읽어야 이 시대에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대중에게 전할 수 있는지 답할 수 있는 세상이다.

최근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은 인터넷을 손안에서 펼쳐지게 하고 있다. 바쁜 생활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불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또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보다 쉽게 불법에 접하고 있다. 이에 맞춰 불교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교육원 승가교과 개편, 사이버강좌 도입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조계종 디지털 대학(www.edubuddha.net)으로 진행중인 사이버 강좌는 스님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교육원은 2012년 승가대학 2~4학년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개설했다. 이 사이버강좌는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포교방법론, 불교와 사회 등 각 분야로 학인 스님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게시판에 강좌별로 평가를 올리고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강사와 수업 중에 든 의문을 중심으로 토론하기도 했다. 동영상 강의자료는 다운받아 교재로 사용가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원의 사이버 강좌의 성공은 산중에 위치한 지방승가대학의 지역적 한계를 보완했기 때문이다. 교육원은 좋은 반응에 조계종 디지털 대학을 통해 1학기 진행된 동영상 강좌를 제공하는 한편 2013년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 동영상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지난 8월 17일 교수법연찬회를 통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e-learning 강의운영법 교육도 진행했다.

승가대학도 이제 '스마트', 스님 호응 높아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는 9월 4일 승가대학과 율원에 승가 기본교육기관 최초로 전자수업 시스템을 도입했다.

청암사승가대학과 율원은 6개월여 동안 KT의 협조를 받아 초고속광랜 시스템을 구축해 경내 어디서든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자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캠퍼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고, 교수와 의견을 교류하는 양방향 전자수업 시스템이다. 청암사 스마트 캠퍼스는 과제물정보와 강의 동영상, 강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강의게시판과 수업게시판 등이 구축돼 있다.

스마트 캠퍼스에 대한 학인 스님들의 반응은 뜨겁다.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세상의 최신 트렌드를 익힐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주지 상덕 스님은 "세상에서 법을 전할 학인 스님들이 승가대학에서 소통법을 익힌다면 전법교화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젠 VOD 시대, 동영상이 대세

2010년 조계종 포교사대학과 조계종 사이버대학이 통합된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은 사찰에서 기본교육을 받기 어려운 불자와 일반인들을 위한 대학으로 탄생했다. 이 외에도 일선 사찰도 인터넷을 통해 기존 불교대학 강좌와 법회를 일반불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는 봉은사 홈페이지(www.bongeunsa.org)를 통해 매주 열리는 법회를 동영상을 통해 중계한다.

또 불광사도 동영상 법문/강좌(www.bulkwangsa.org/movie)란을 따로이 만들어 법회 장면을 불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정토회의 경우 홈페이지(www.jungto.org)에 경전코너와 함께 기도방, 스님의 하루 등 신행 코너도 만들어 인터넷 강좌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자체적으로 사이버 대학(www.tvbuddha.kr)을 운영하고 있다. 대관음사 사이버 대학에는 대관음사에서 진행 중인 교리강좌가 진행된다.

이들의 특징은 동영상의 활용이다. 통신의 발달은 휴대폰 등에서 동영상을 볼수 있도록 했다. 음성으로 법회를 중계하고 이를 교재와 함께 듣던 사이버대학도 동영상에 실시간 채팅 등으로 변모하고 있다.

종립학교도 사이버 강좌 강화

종립학교도 사이버 강좌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논산에 위치한 금강대는 모든 강의실에 사이버강의 시스템이 구축돼 강의실에 가지 않고도 국내외 저명학자나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 디지털 도서관이 구축돼 있어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e-book 서비스를 통해 도서정보 및 원문검색이 가능하다. 또 대학 최초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사이버교육센터 등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금강대는 최근 대전과 천안에 사이버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동국대 또한 사이버 강좌를 개설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무행정도 인터넷으로 한손에

조계종은 최근 회계와 신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통합 종무행정 프로그램 '가람지기2'를 도입하고 있다. 2006년부터 서울 봉은사가 사용하던 '실크로드'를 개량해 1999년 조계종이 최초로 개발한 '가람지기'를 대체한 프로그램이다.

범어사 수덕사 등 현재 114개 사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신도 및 재정현황의 증감을 실시간으로 검색 가능하다.

또 불사 납입액, 명복, 신도 인적사항 등을 담고 있어 재정과 신도에 관한 정보를 처음에 정확히 입력만 하면, 특성화된 통계를 다양하게 산출할 수 있다. 포교 현장에서 축적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자료를 통해 맞춤형 포교가 진행가능하다. 교차검색을 통해 직장 및 학교 등에 공통점이 있는 신도를 묶어 모임을 주선할 수 있다. 또 재정관리에서도 수입과 지출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또 종무원 간 업무공유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사이버 포교 '돈 안된다' 인식에 방치

그럼에도 불교계의 사이버 환경은 개선점이 많다. 가장 큰 원인은 일선 사찰들이 소위 '돈이 안된다'는 인식이다.

아직까지 한국불교계는 재정적인 면에서 불자들이 직접 사찰에서 기도하며 내는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이버 법회, 사이버 교육 등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로 사찰에 오는 불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일선사찰에서는 팽배하다. 주요교구본사 홈페이지를 보면 동영상 법회 등의 메뉴는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찰은 드물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한 법문 한구절, 스님의 동영상 한부분을 보고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쌍방향 소통이 진행되는 사람 냄새나는 사이버 포교만이 불교의 미래"라며 "사이버 교육과 포교를 강화해 보다 많은 대중들을 불법의 세계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sk텔레콤과 진행한 스마트미디어 체험행사에서 3D TV를 체험하는 동자승들


3D 스마트폰으로 VOD를 보는 동자승들

since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보리심(한지)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선(수첩) 200부 이상 @ 650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13.4cm • 매수 : 18장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600
• 규격 : 8.9cm×9.5cm
• 매수 : 16장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창간을 축하합니다 | B5 전면광고

불만족의 마음을 꺽어버리고 아예 뿌리까지 뽑아내어버린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 한가로이 쉬리라 낮이면 낮, 밤이면 밤 –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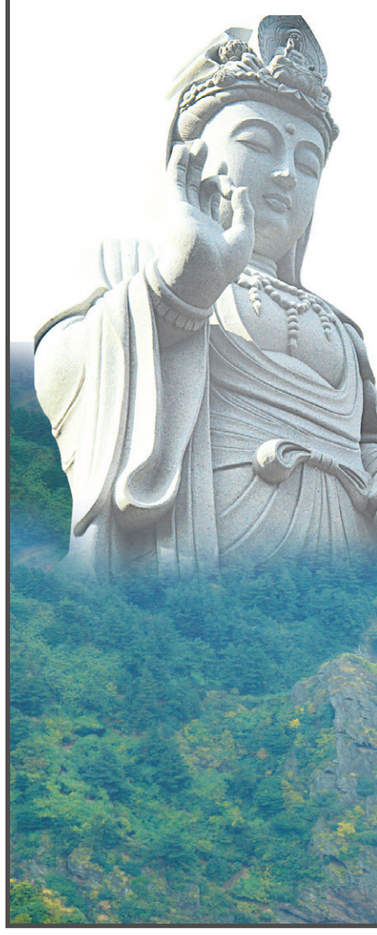


禪本寺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퍼진다.

■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 (갓바위)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TEL 053)851-1868 ~ 9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해도사

주지 정비룡

남양 성인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도일동

■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창건 20주년 제 10회 체육대회

불교비전 화합한마당



일 시 : 2012. 10. 21 일요일 오전 08:30
장 소 : 두류공원 내 두류야구장
주최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주관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총동문신도회 문의전화 : (053)474-8228

高靈瓦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한식토기와 | 한식유약기와 | 한식개량기와 | 일체형한식기와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ile Co., Ltd.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 054-954-8008(代) Fax 054-954-8308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www.rooftile.co.kr

108일 강의

금강경 법화경 관음경 반야심경

2556년 전 부처님 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입제 : 양력 10월 20일(토)부터 108일 동안
(백일기도 경전강의 많은 동참 권합니다)

" 금강경중 수보리 심해의취 체루비읍"
서서 울고 엎드려 울고 부모처자식 죽은 것처럼 통곡하며 미친것처럼 울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폭포수 같은 그 눈물은 지금도 바다 되어 유유히 그대 마음속에 흐른다.
여기 수보리 노인이 스승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이것이다 즉생실상 으로....
(금강경 중에서)

반야심경 속 관자재보살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 내면에 있으며 그 자는 스스로 보는 눈이다.
인도어로는 아발로키테스바르(avalokita svara) 라 한다.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은 거짓이며 속임수이다 그 실체
는 어디에도 없다. 아누다라삼막사보제만 비존재로 있다. 타인을 구제하기 전에 자신 스스로를 먼저 구제하라
법화경중에는 인간성과 성욕 섹스에 대한 설법이 있다.무량의경중 응당관찰 여시 관이 이입중생 제근성욕
성욕무량고 설법무량 설법무량고 의역무량 무량의자 종일법생 기일법자 즉무상야 여시무상 무상 불상 명위실상



"관음경중"에는
약유중생 다어음욕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변득이욕
너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탄생하여 살아가면서 무수히 일어
나고 쓰러 져 가는 성욕 남여간 애정 욕망 무량무수로 많다.
그 성욕 선악으로 나누어서 어느 편 에도 서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성욕을 공경하라
그 성욕 애욕에 동일시되지 말고 지켜보는 자로 남으라.
그러면 성욕 애욕이 변하여 기쁨으로 사라 져 갈 것이다.

명 상 사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342
전화 033)521-1772. 010-7200-0943. 동암 붓다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산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주 화담
주지 화응
부주지 대휴

신도일동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奬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위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
전화 02)730-0798 / 전송 730-0799

스마트 시대 SNS 포교는 '선택' 아닌 '필수'

교계 페북 트위터 등 SNS 활발
혜민·법륜 스님 등 대중에게 인기

오랜 옛날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 암기 독송 되었다. 이후 불법은 활자화를 거쳐 근대에 들어 레코드 텔레비전 등으로 전파돼왔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전법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진리는 하나지만 시대의 흐름을 타고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산중에 있는 절에서 법을 구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는지 모른다. 절이 산으로 숨어버릴수록 법의 지혜는 세상에 묻히고 대중들은 세속의 쾌락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방황할지 모른다. 중생의 근기에 맞는 새로운 포교가 필요한 시점에 온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불교의 선사상을 통해 단순하고도 직관적인 제품을 선보였듯이 우리는 지금 불교사상을 통해 위기에 처한 현대인들의 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방편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포교 도구로 급부상하고 있는 SNS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제 7 미디어 스마트폰 등장

2007년 1월 애플의 CEO 故스티브잡스는 세상을 놀라게하는 제품을 내놓는다. 아이맥 아이팟 등으로 혁신적 제품을 내놓았던 잡스는 혁신적 휴대전화이자 인터넷 통신기기 아이폰을 선보인 것이다. 배터리를 따로 교체하지 않는 일체형의 얇고 슬림한 이 기기는 단 세 개의 버튼만이 전부인 휴대폰으로 화면상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2007년 6월말 아이폰이 제품으로 출시되자 이 단순한 디자인의 휴대폰은 예수폰이라 불리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고 2010년말까지 9천만대가 팔리면서 세계 휴대전화 시장 수익의 절반을 차지했다.

2012년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천 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스마트폰의 확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파급력에 날개를 달아 줬고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한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보다 훨씬 더 세밀한 곳의 이야기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뉴스는 페이스북 친구들이나 트위터의 팔로우들을 통해 전세계에 퍼지는데 단 10분이 걸리지 않으며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제 대중들은 일방적 미디어가 전해주는 정보들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정보의 제공자가 되면서 1인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보에 대해 댓글을 달거나 리트윗을 통해서 정보를 확대 재생산 시켜나간다. 강력한 힘을 가진 한 매체가 제공해주던 일방적 힘에서 벗어나 대중들 스스로 정보를 생산해 내고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내며 의견을 반영해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잡스와 '아이폰' 그리고 불교

스마트폰의 대명사인 아이폰을 탄생시킨 스티브 잡스가 선수행자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포틀랜드의 리드 대학교 철학과를 1학기만 다니고서 중퇴한 잡스는, 오리건 주 올인원팜이라는 사과농장에서 히피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무렵 일본 선불교 승려인 코분치노 오토가와를 만나 선불교에 입문했고 장기간의 인도 히말라야 여행을 통해 불교를 더욱 깊게 공부했다. 잡스는 "불교를 접한 것이야 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말했을 정도로 불교는 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 쳤 고 평생을 채식주의자로 살아가게 될만큼 그는 불교적 가치를 삶속으로 끌어들여 오게 된다. 애플사의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등의 단순하고도 직관적 디자인의 제품들은 이런 그의 사상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아이마인드〉(이상 출판사)를 펴낸 한국코칭센터 전문 코치 김범진 씨는 스티브잡스의 성공을 선적으로 해석한다. 김씨는 "스티브잡스는 생각의 파격, 권위 권력의 파격을 통해 창조적 경영을 지향하는 애플사의 마인드를 정립하게 된다. 아이폰은 미국의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의 주종관계를 완전히 바꿔 버렸다. 이전에는 휴대폰 제조사가 통신사의 농노라고 할 정도로, 휴대폰 사양이나 비용 및 기능을 통신사가 일일이 제조사를 간섭해 왔다. 하지만 애플은 아이폰 개발과 함께 통신사를 지정하고 통신상품에 대한 이익을 요구하는 등 기존 업계의 관행과 불평등을 깨버렸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 카스트제도를 파괴한 부처의 사상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부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열이 결정되는 계급제도를 부정했고 모든 출가자를 출신계급과 관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했다. 김 씨는 "이는 당시 고대 인도의 의식수준과 기준으로 보면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이런 사상은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는 계층에게 열렬히 환영 받았다.



그림 · 강병호

기독교에 비해 콘텐츠 빈약
불교 콘텐츠 개발 시급
조계종 5개년 계획 발표

선의 근원인 붓다의 가르침은 태생부터 파격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처는 당시 제도를 깨트리고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 가르침을 전파해갔고 많은 대중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애플사가 상하 관계를 깨트리고 아웃소싱 업체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공생의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는 경영 방침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애플의 철학은 불교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다. 애플의 정신은 단순함과 직관,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성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독점보다는 인드라망과 같은 연기(緣起)의 그물을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불교계 SNS 포교 어디까지 왔나?

그렇다면 우리 불교계에서 SNS에 대한 관심 어디까지 왔을까?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은 '미디어 포교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포교단체 및 신도단체들은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SNS 전법에 나섰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들도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SNS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2011년 1월 헬로달마스쿨 및 반야심경(독송) 무료 어플리케이션 2종을 출시했고 앞으로 4개의 어플리이션을 개발예정에 있다. 청암사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청암사참살이(웰빙)' 어플리케이션은 전통사찰음식 조리법, 걷기명상, 태극권, 발우공양, 108참회법, 사찰예절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혜민스님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스님이다. 스님은 대중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글로 페이스북에 남기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트위터 팔로우수 26만 5천명, 페이스북 친구 32만명이 스님과 소통하고 있다.

법륜스님의 활약도 활발하다.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은 현재 아이튠즈 팟캐스트 종교분야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희망편지 어플리케이션은 출시 한 달만에 가입자 수가 4만명을 넘어서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정토회 희망세상만들기 온라인팀장 이준길(32)씨는 "현재 유투브, 마이피플 채널, 아이튠즈 등을 통해 스님의 즉문즉설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는 스님이 전국을 돌며 진행하고 있는 즉문즉설 3백강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의 다운으로 이어진 거 같다. 앞으로 희망세상 만들기 300강을 통해 들어온 질문을 연애 취업 결혼 이혼 등 주제별로 분류해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가스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법회 강연 수행 일정들을 남긴다. 이를 통해 즉석 법회가 열리기도 하는 등 SNS를 포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불교계 SNS 포교의 허와 실

현재 불교계는 아이튠즈 팟캐스트, 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의 어플이 출시되고 있지만 이웃 종교인 기독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기독교가 각 교회별로 목사들의 설교와 성경말씀 등을 조직적으로 올리며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불교계가 사찰별로 팟캐스트에 콘텐츠를 게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조계종 포교원은 SNS를 이용해 불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간 4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불자 파워블로거 발굴 · 지원 등을 추진해 새로운 불교트렌드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교국장 노휴스님은 "젊은 층의 활용도가 높은 SNS 기반을 개발 보급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등 콘텐츠 개발에 나서 포교기반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가를 발굴하고, 종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디어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불교계 미디어 포교의 현재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 팟캐스트 종교 분야 50위 안에 법륜스님의 즉문즉설만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기독교 목사의 성경 말씀으로 채워진 현실은 안타까울 뿐이다. 페이스북 역시 혜민스님이 종교를 초월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웃 종교에 비교해 좀더 다양한 사용자와 콘텐츠들이 없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SNS 포교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중화되고 현대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발적인 확대 재생산이 SNS의 성격인 만큼 젊은층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또한 시급하다 하겠다. 혜민 스님은 "불교에 풍부한 콘텐츠들이 많다. 하지만 너무 불교를 내세우기 보다는 시대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시대에 맞게 개발해 대중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상처 입은 대중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주면 자연스럽게 포교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주)에스컷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11월 감사 특가 999,000원(유류할증료 불포함)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중국 지장도량(구화산|황산) 관음도량(보타산|낙가산) 7일 | 13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중국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4일	요금문의
▣중국 관음도량(보타산.낙가산)	4일	요금문의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189만원(유류할증료 불포함)
▣라오스 직항	5일	129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걸어 다니며 선지식 법문 들어요”

어플에서 유투브까지 불교 콘텐츠 다양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부처님의 불법을 접할 수 있는 불교계 콘텐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불교계 콘텐츠를 유투브 팟캣스트, 어플 등으로 나눠봤다.

어플리케이션… ‘육바라밀’ 출시 예정

현재 불교계 콘텐츠중 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이다. 반야심경에서 육바라밀까지 교계 어플리케이션을 모아봤다.

독경 반야심경은 조계종 포교원과 (주)리토스가 함께 제작한 조계종 최초 어플리케이션이다. 청아한 독경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제공한 참선 이미지를 함께 볼 수 있다. 2011년 1월 무료로 출시돼 다운로드 수 13만(2012년 3월 기준) 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헬로달마스쿨은 조계종 포교원에서 출간한 어린이 영어교재 ‘헬로 달마 스쿨’을 기반으로 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다. 쉬운 영어 문장과 다채로운 삽화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린이법회용 영어교재로 불교 핵심 교리와 기본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다. 지혜, 자비, 고집멸도, 기도 수행 등 12개의 중요한 불교 기본 개념과 핵심 교리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출시 예정인 ‘육바라밀’은 간단한 동화 형식의 스토리를 통해 캐릭터들이 대화하며 육바라밀을 배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불도 놀이(Buddha Worl)는 출퇴근 시간이나 기타 여가 시간에 게임을 통해 불교 교리를 배울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게임이다. 어린이 마음거울 108은 마음일기를 읽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계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제일 많아

팟캐스트, 동영상 법문 시청 가능

팟캐스트… ‘즉문즉설’ 종교분야 1위

불교계는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이 종교분야 1위를 다리고 있는 것에 비해 그 활동이 매우 미약한 분야다. 즉문즉설은 대중들의 고민을 스님의 명쾌한 해석으로 풀어주는 법문으로 종교를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종교 분야 강의 50위 권 안에 유일하게 상위권을 유지하며 사랑을 받고 있다.

용화 선원-유진법사 스님은 하심에 대하여, 내가 본래 부처님, 극락과 지옥은 마음에, 불교의 근본 목적, 인연에 대하여 등 매달 법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진각종 능인 심인당 역시 동영상 법문을 올려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꽁보리팟’은 불교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다. 기자들이 직접 소식을 접하며 실시간으로 불교 뉴스를 전하고 있다. 명절템플스테이 소식, 봉은사에서 인연을 맺은 부부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소식들을 소개한다.

유투브… ‘정목 스님 자비명상’ 등

다양한 동영상으로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는 유투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목 스님의 자비 명상’은 스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명상의 말씀이다. 자비, 용서, 감사 이해, 사랑, 행복 등의 주제를 통해 대중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전해주고 있다. ‘현각스님의 살아있는 금강경’은 조회수 33,260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어 금강경강좌다. 불교와 영어 공부를 겸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관심을 가질 만하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마음선원 다양한 SNS포교 눈길

한국불교 최초 인터넷 포교 이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활용



한마음과학원 페이스북

한국불교 최초로 인터넷 포교를 전개한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산하 한마음과학원과 한마음저널의 다양한 SNS포교를 전개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은 ‘과학원 한마음’이란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한마음공생실천 과정과 법회 등을 중계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 커뮤니티’의 경우 조회 수 300여 회에 달한다.

한마음과학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hanmaum.hansi)과 한마음저널 페이스북(www.facebook.com/hanmaumjournal)은 700여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특히 한마음선원의 경우 신도회에서 각종 법회와 행사에서 트위터를 통해 행사를 소개하며 해외지원도 트위터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한마음선원 본원은 홈페이지(www.hanmaum.org)의 한마음미디어 코너를 통해 1994년부터 대행 스님이 전국에서 진행한 법문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측은 “최근 미디어의 발달에 맞춰 포교지형이 변하는 만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이용한 다양한 포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카페로 자비명상 홍보…회원수 7천명 넘어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 때 저절로 포교는 이루어집니다”

최근 마가 스님의 페이스북은 생일을 맞은 스님을 축하하는 글 수십 건이 게재됐다. 스님은 이 많은 글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하나하나 댓글을 달며 그들의 축하에 감사해 주었다.

스님은 이처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한다. 스님의 일상에서 느끼는 글은 물론, 강연 및 법회 일정 등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다.

스님은 문자 서비스를 시작으로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등 시대의 흐름을 따라 꾸준히 온라인을 매개로 한 대중들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스님이 이렇게 대중들과 온라인으로 소통을 시작한 것은 수없이 많이 쌓인 명함을 발견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어느날 엄청나게 쌓인 명함을 보게 됐어요. 그 명함을 다 정리해보니 1500개가 되더라구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대부분 알지 못했어요. 그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명상이라는 내용의 문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죠”

이후 스님은 인터넷카페인 자비명상카페를 개설, 현재까지 회원수 7천 명을 확보하면서 자비 명상을 알려나가게 된다.

스님은 SNS의 세계를 인드라망과 같다고 말한다.

“스마트폰 안에 세상 모든 게 들어 있잖아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페이스북을 통하면 다 알릴 수 있어요. 여기에 강연 일정을 올리면 페북친구들의 강연 신청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자비명상 강의 신청자 수는 페이스북을 한 이후 30% 정도가 늘었어요. 어떤 날은 길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이 제 페북친구라고 하더군요. 이처럼 서로가 연결돼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스마트폰이 보여주고 있어요”

스님은 최근 캠코드를 구입했다. 명상법문을 동영상으로 찍어 좀더 적극적인 SNS 포교를 하기 위해서다. 스님은 SNS 포교는 스님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대만은 스님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잖아요. 사실 종교인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 종교의 기능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 때 저절로 포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매개체로 SNS는 무척이나 소중하고 고마운 도구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페이스북 통한 대중과 소통 큰 인기



美 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

> “불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 수행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존재에 온전히 관심을 가져 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정말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10월 11일 페이스북에 올려진 혜민 스님의 글이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 글은 일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있다. 스님은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스님은 처음부터 대중들을 의식하고 글을 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스님이다 보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성찰의 글을 많이 올리게 됐어요. SNS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신변잡기적인 글이나 어떤 이슈에 대해 비판이나 공격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지요. 그러다보니 일상을 돌아보며 소소한 깨달음을 주는 제 글이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스님은 SNS에 글을 남기는 일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남기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는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와요. 남편과 관계가 안 좋은 주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은 사람, 취업이 안되는 학생 등 인생에서 여러 가지 아픔들을 호소해 오죠. 제가 그들에게 위로의 글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들 합니다”

스님은 최근 베스트셀러 작가, 방송 강연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제가 일일이 다 답을 해주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미안해 콘서트를 열어 많은 대중과 좀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스님은 앞으로 젊은층은 물론 비불자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일간지에서 왜 스님들의 책이 대형 베스트셀러가 될까에 대해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포용성이라고 하더군요. 때문에 불교적인 틀이나 색채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저절로 포교가 되지 않을까요?”

스님은 올 연말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암환자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 또한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스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도 스님은 꾸준한 SNS 활동을 통해 대중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다.

정혜숙 기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불교 소식 실시간 전하며 여론 형성

변화하는 IT환경 속 불교계 언론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언론이다. 불교계 IT 환경변화도 교계 언론지형을 바꿔놨다.

1995년 불교계 최초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출범한 '부다피아'의 경우 2005년 전면 개편을 하면서 현대불교신문의 인터넷판인 '붓다뉴스'를 독자들에게 서비스했다. 전자서점과 뉴스를 기반으로 한 '부다피아'는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사진, PDF파일 등에 대한 정보검색 및 동영상·오디오 법문·강의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여기에 〈대중불교〉등 20여 불교잡지 보기, 7만여 장의 사찰·문화재 사진, 인물사진 서비스, 고서 열람 및 사회복지 정보 제공, 사이버 갤러리 운영과 POD(맞춤형 출판) 서비스, 신행 및 수행 상담, E-book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었다.

1999년 창립한 불교정보센터는 2002년 불교포커스를 출범했고, 불교신문·법보신문?주간불교 등 주요 주간지들도 잇달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주간지들의 홈페이지 오픈은 주간신문의 한계를 넘어 일간 또는 실시간 체제로 뉴스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뉴스 활성화로 2007년 이후 현재 불교계에는 불교닷컴·미디어붓다·우리불교·불교플러스 등의 언론들도 연이어 만들어졌다.

BBS불교방송과 BTN불교TV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보기, 다시보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불교TV는 지난해 보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인 'BTN NEWS'를 개설하기도 했다. 또한 대다수의 불교언론들은 모바일용 홈페이지 역시 제작?운영하고 있다.

이런 교계 언론의 변화의 특징은 속보 시스템 이외에도 직접적인 대중들의 여론을 댓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방적 기사 콘텐츠의 제공이 아닌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불교최초 포털 '부다피아'

주요 주간신문들 실시간 서비스

인터넷 언론들 2000년대 개설돼

내실 있는 콘텐츠 채우기 '숙제'



주요 불교계 언론사 홈페이지 첫 화면 모습들. 2000년대 이후 생겨난 불교계 언론 인터넷 판은 실시간 속보 이외에도 독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교계 여론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는 "인터넷 언론의 출범은 기존 불교계 주간언론이 하지 못한 아이템들을 기사화하는 데 그 목적을 뒀다"며 "무엇보다 독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가져왔고, 전문화된 기사 글쓰기가 아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기고들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다변화하는 IT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영상과 오디오 등을 넘나드는 크로스미디어적 취재 기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계 기자로 활동했던 유권준 동국대 홍보팀장은 "사람들이 정보를 소비하는 플랫폼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무엇보다 기존 언론들에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SNS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유 팀장은 "현재 대중들은 미디어에 대해 크게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의 도구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대중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기사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불교계 언론들은 내실있는 기사 콘텐츠들로 지면과 웹 공간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 주요 언론 사이트

현대불교 (www.hyunbulnews.com)
불교신문 (www.bulkyo21.com)
법보신문 (www.beopbo.com)
주간불교 (www.bulgyonews.co.kr)
한국불교 (www.kbulgyonews.com)
금강신문 (www.ggbn.co.kr)
밀교신문 (www.milgyonews.net)
우리불교 (www.wooribulgyo.com)
불교방송 (www.bbsi.co.kr)
불교TV (www.btn.co.kr)
불교포커스 (www.bulgyofocus.net)
미디어 붓다 (www.mediabuddha.net)
불교닷컴 (www.bulkyo21.com)
불교플러스 (www.bulgyonews.kr)
불교저널 (www.buddhismjournal.com)

(순서는 무순)

명상, 불교음악 접목한 인터넷 방송국 '눈길'

주요 인터넷 불교방송 어떤 것들이 있나

인터넷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생겨난 것이 인터넷 방송들이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기존 종합 방송과 달리 특정 분야의 콘텐츠들로 특화된 인터넷 방송은 불교계도 존재하고 있다.

불교계 인터넷 방송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지난 2007년 5월 초에 개국한 인터넷 명상방송 '유나(www.una.or.kr)'다. 개국 1년만에 포털사이트 집계 순위에서 인터넷 방송부문 2위까지 기록할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다.

영어의 당신 'You'와 '나(I)'가 만나 이름 붙여진 유나는 그 이름부터 불교의 불이사상, 화엄사상을 근간에 두고 있다. 그래서인지 '유나'의 목적은 마음공부를 전문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인지 정목 스님의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장현갑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김재진 시인, 전현수 정신과 의사, 고요한 소리 등 마음 수행 전문가와 단체들이 유나 방송을 꾸려나가고 있다.

현재 유나 방송을 듣는 인구가 국내 및 브라질·오스트리아·미국·일본·캐나다·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34개국이며 회원만 4만 5000여 명에 이른다.

'부다TV(www.buddhatv.com)'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TV방송이다. 1999년 세계최초 불교 전문 인터넷 TV로 출발한 '붓다TV'는 개국 당시 달라이라마와의 대담을 인터넷을 통해 현장 생중계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국 이래 '부다TV'는 일반 불교신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 왔다. 현재 다양한 불교계 행사 영상과 스님 법문, 동영상 강좌, 사찰 영상 등을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부다TV'를 설립한 정우 스님(구룡사 회주)는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계인은 이제 하나이며, 이는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일불제자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부다TV는 전세계 모든 인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류평화와 공존의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음악을 중심으로 방송하는 '불교인터넷음악방송국(www.bulmusic.com, 이하 불뮤직닷컴)'도 주목할 만한 불교 인터넷 방송이다.

유나방송- 불교 대표 명상방송

부다TV- 동영상 법문 등 제공

불뮤직닷컴- 불교음악 생방송

태고종 불심사 주지 성종 스님이 운영하는 '불뮤직닷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찬불가요, 명상음악, 염불, 성현 말씀으로 이뤄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매주 화요일만 방송을 쉰다. 이밖에도 사이버 법당, 신행상담실, 불교 교리 자료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단점이다. 성종 스님은 "찬불가를 비롯한 각종 불교음악과 인터넷방송에도 우리 불자님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불뮤직닷컴'을 개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나가고자 한다"며 "부디 이 방송을 통해 누리꾼과 불자들이 보시행과 자리이타를 실천해 해인(海印)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명상 인터넷 방송인 '유나'를 찾은 청취자들이 운영자인 정목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유나방송

BBS, 문자서비스 7개월만에 1만회원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불교방송 '오늘의 부처님 말씀' 문자서비스 약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불교방송

불교방송, '오늘의 부처님 말씀'

불교신문 자체 팟캐스트 운영

시대 변화에 따라 불교계 미디어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통한 부대사업으로 불법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BBS 불교방송의 '오늘의 부처님말씀 문자서비스'다.

BBS 불교방송이 지난 3월 15일 출시한 '오늘의 부처님 말씀 문자서비스'의 유료회원이 7개월만인 10월 17일 현재 1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1만 불자의 아침을 향기로운 부처님 법문으로 열어 드리는 새로운 서비스다보니 불자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 특히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 동창, 도반 등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주위 분들에게 법보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서비스 본연의 취지를 더욱 살려 주면서 회원의 증가세도 높였다고 평가된다. 현재 등록자의 삼분의 일 가량이 법보시를 받고 있는 점이 이를 시사한다.

오늘의 부처님말씀 문자 서비스는 라디오, TV 전법에 이은 제 3의 전법 매체로 조금씩 자리 잡고 있으며, 스마트폰 확산 속도와 함께 더 새롭고 파급력 높은 매체로 성장해 나갈 전망이다.

BBS는 문자 서비스의 호응에 힘입어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힐링 레터를 추가로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영문 서비스, 다양한 콘텐츠, 교계 소식 등을 삽입해 불자들의 마음공부와 함께 신행생활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 문자서비스'는 '부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여세요! 삶이 편안하고 향기로워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년 365일 매일 아침 휴대폰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서비스로 요금도 하루 108원, 월 3,240원으로 저렴하다.

서비스 신청은 전화 1661-6108 또는 불교방송 홈페이지 (www.bbsi.c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불교신문은 팟캐스트 '꽁보리팟'을 통해 교계 동향을 전하고 있으며, BTN불교TV도 농어촌살리기 사업, 부디스트채널과 기사 협약 등을 통해 불법을 홍포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번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얻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받아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월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요.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께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쾌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세계최대와불 ▷진신사리 증과 ▷만사형통 문수동자
▷쌀바위(운수대통) ▷미암사 부처님 공원 ▷10년만의 자손득남
▷33층 석탑 진신사리 점안식 ▷효험 산신불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

요체는 '소셜'… 감성 소통 확장하라

SNS시대, 포교 전략은

불교의 인터넷 활용과 평가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미디어, 커뮤니티, 생활세계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사이버공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수용되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점은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는 사실이었다. 이미 천문학적 양의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 스스로가 정보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인 프로슈머로서 자격을 획득했다.

이러한 추세는 불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 및 공공도서관, 불교 관련 각종 포털 사이트, 불교계의 각종 단체나 사찰, 불자 개개인이 저마다 불교에 대한 정보들을 사이버공간에서 집적 및 유통시키고 있다. 고려대장경, 한글대장경, 한국불교전서, 대정신수대장경, 빨리대장경, 속장경 등 다양한 판본의 대장경들이 이미 전산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음은 단적인 예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그 자체로 새로운 포교 환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공간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생활세계로 변모한 지 오래다. 물건을 사고팔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 업무를 수행하고, 오락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되면서 사이버공간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것은 불교의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이버공간이 종합적인 신행공간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중단 없는 신행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이버예불과 사찰 참배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 기도도량인 108월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예불을 할 수 있고, 자기만의 법당을 장엄할 수 있으며, 불자들과의 신행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108월드는 종합적 신행 공간의 출발점이 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 신행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균형성의 유지와 정보 접근성의 확보이다. 현재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종교 활동은 교리 학습과 공동체 활동의 비중이 높은 반면, 수행과 관련된 정보나 활동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수행과 관련된 종교활동이 교리나 공동체 부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여법한 신행 공간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 관련 콘텐츠의 기획과 생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셜 미디어와 포교

소셜 미디어는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상에서 확장 가능한 출판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진 미디어"(위키피디아),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나 사이트"(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정의된다. 사실 소셜 미디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 확장시켜가는 소통의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페이스북을 효과적인 포교매체로 활용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이메일처럼 가입하는 순간부터 그냥 쓸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카페처럼 메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故 백남준 作 'TV 붓다'.

수행 콘텐츠 제작 · 개발 힘써야
SNS, 관계 빈도 · 강도에 초점
관계의 질 높이는 게 '포교'

페이스북을 이용해 만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불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페이스북을 통한 포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페이스북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멀리 넓힐 수 있는가(관계의 범위),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할 수 있는가(관계의 빈도), 사람들과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는가(관계의 강도)를 일차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관계의 빈도는 나와 친구를 맺은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포스팅(글쓰기)에 댓글이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수동적인 소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친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성심껏 반응해주는 것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 생각도 수시로 올려서 친구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그만큼 양질의 콘텐츠를 올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계의 강도는 일차적으로는 관계의 빈도와 연관성이 높다. 자주 관계를 맺을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이다. 정서적 공감대는 상대방에게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만 형성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양질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포교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무작정 부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교감하면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포교의 효과가 나타난다.

소셜 미디어의 요체는 바로 '소셜(social)'에 있다. 끊임없이 관계를 확장하고, 관계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금도와 방법은 부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제시하셨다. 남은 것은 우리의 실천이다.



박수호 덕성여대 사회학과 겸임교수

이 글은 박수호 덕성여대 겸임 교수가 〈불교평론〉2012년 가을호(통권 제52호)에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포교'를 주제로 발표한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종단 차원 공모전 등 인재 발굴 필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현재 불교계에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선도하거나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인재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모든 불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인재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사진〉는 SNS를 통한 선결 과제로 인적 인프라 구축을 꼽으며 말문을 풀었다. 같은 SNS라도 '신변잡기'식의 내용이 아닌

재정되는 수말사가 투자해야
'SNS 리더십' 가진 스님 배출

양질의 콘텐츠를 채워야 하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현재 SNS가 전문적 불교 신행으로 들어가기 위한 '게이트 웨이'라고 평가했다. 당장 포교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불교에 대한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이 신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서적 공감이 외에도 대중들을 이끌 수 있는 수행력을 갖춘 스님이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이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SNS 리더십'을 가진 스님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물론 재가자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님이 더 용이한 편입니다. 이제부터 스님들은 높은 수행력과 'IT 감수성'을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스마트폰 상에서 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인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불교계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관리할 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반면, 개신교계는 신학대를 통해 다량의 관련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개발인력으로 사용된다. 실제 CTS TV의 경우 앱 솔루션을 제작해 무료로 교회 어플리케이션들을 보급하고 있다.

"불자인구가 고령화되다보니 이 같은 포교 콘텐츠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면 개신교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적 인프라를 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되는 본사, 수말사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력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종단 차원 공모전을 수시로 열고 젊은 층들의 다양한 창착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도 인재 양성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신중일 기자

"집단지성의 시대, 소통이 관건"

유권준 동국대 홍보팀장



"웹 2.0은 참여, 공유, 개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인터넷의 진화 단계로 플랫폼으로서의 웹을 의미합니다. 웹 2.0은 서비스제공자가 개발해 놓은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단계이고, 사용자들끼리 네트워킹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지식보다는 감성적 소통으로
불교 콘텐츠 내실을 채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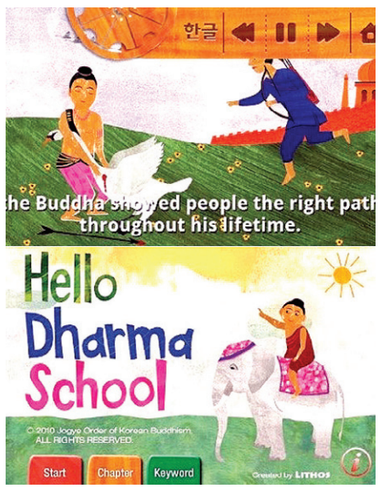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계의 IT환경은 웹 2.0에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형태는 있지만 그 안에는 콘텐츠가 제대로 채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계 기자로 활동했던 유권준 동국대 홍보팀장은 불교계의 사이버 콘텐츠의 현황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불교계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할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IT업계는 불교 관련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 개발이 수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쓸만한 불교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종단과 기관들의 공적 투자를 통해 불교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개발해 공공재로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촉매로 하여 앱이나 콘텐츠 이용자층을 형성하여 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SNS를 통한 포교에 대해서는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또는 종단 소식지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SNS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법상 위에 올라 설법하는 형식의 포교와 신행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식보다는 실천적 지혜가, 이성보다는 감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공감을 통해 집단지성을 형성하는 SNS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불자들 스스로 콘텐츠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중일 기자



포교원이 개발한 어린이 교육 어플리케이션 '헬로달마스쿨'

年 4개 이상 어플 개발… 파워 블로거 발굴

조계종 디지털 콘텐츠 개발 계획은

"감동과 환희의 포교를 하겠다."

조계종 제6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취임 당시 발표한 슬로건이다. 당시 스님은 미디어 포교와 SNS를 통한 글로벌 포교를 주창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은 SNS를 이용해 불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간 4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불자파워블로거 발굴 · 지원 등을 추진해 새로운 불교트렌드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젊은 층의 활용도가 높은 젊은 층의 활용도가 높은 SNS 기반을 개발 보급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등 콘텐츠 개발에 나서 포교기반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포교원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육바라밀'과 모든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성불도 놀이', 마음일기를 쓸 수 있는 '어린이 마음거울 108'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포교원은 미디어포교 활성화를 위해 방송을 제작, 송출한다.

조계종포교원은 10월 9일 '포교원TV' 설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현대 HCN은 모바일 방송 채널인 에브리온TV에서 (가칭)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TV의 108번 채널을 보장한다.

또 포교원의 방송콘텐츠 제작에 대한 기술기능 협조 및 포교원 콘텐츠의 화질개선, 용량압축 등 콘텐츠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포교원 행사에 대한 실시간 방송도 편성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심사후 우선 세계불교와 한국 불교 승가 정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출가 의식을 초발심의 행자로 돌아가
1주일간 종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남방불교의 종정 및 부종정 스님들의 지도하에 종정스님의 사찰에
입소하여 단기수행을 완료한 스님 중에 우선 108명의 원로 및 증진 비구를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당겨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만이
추대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고승 및 증진 스님들께서 500인 추대위원을 심사 위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 2012년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출발일시 : 2013년 2월 28일(음력 정월 19일) 6박 7일간 소승불교 체험 수련 정진
법납, 속납 일체 불문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미얀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 木鐸 慧恩
전화 :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

불교 승단 품수 의식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 정법 수호의 깊은 의지로 지탄과 격려를 받으며 희생할 각오로 소승 목탁 글월 드리립니다.
한국 불교계에는 300여 종단이 있습니다. 종정스님 그리고 총무원장 스님 각 원장들 그분들의
명칭이 하나같이 대종사, 종사입니다. 아니 어찌보면 모두가 대종사요. 너도나도 대종사 종사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별 위식과 고시가 없이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품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우리들에게도 정리가 되고 조금은 걸러서 그래도
부처님 전에 부끄럽지는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종단을 불문하고 스님들께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 및 부종정 스님들을 3증 칠사와 은 계사로 모시고 500여 스님들의 축하속에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에
따라 떳떳하고 자랑스런 구족계 의식을 봉행하여 왔습니다. 생각의외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미얀마 연방 승가회와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에서는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 봉행되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좋은 인연을 맺어 부처님의 가피 속에 정진하는 출가승으로 다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大僧正 목탁 혜은 합장

국제 포교사 자격 고시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구족계 자격자
1. 구족계 자격 : 한국의 모든 종단 소속 비구 스님
2. 법납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출가승에 한함
3. 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종사 대종사 품수식
1. 법납 25년 이상 : 종사 2. 법납 30년 이상 : 대종사
※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2차 : 심의의원회
최종심사 스님들께 품수 인증서 및 패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수여하는 국제 불교 지도자 포교 공로 훈장 수여

구족계 수계자 전원 부종정 스님 사찰에 입소
수행 결사 (위빠사나, 발우공양 예불의식) 체험 후
구족계 봉행 남방불교 전통의 불명 수여

일시 : 2013년 2월 28일~3월 7일까지 (1주일간)
봉행 행사 이후 한국에서 재 추대행사 계획

2013년 4월 16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의식 봉행 및 연예인 축하 공연

전화 :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



석전 박한영 스님은

1870년 전북 완주군 초포면 조사리서 출생
1886년 고성 신계사에서 금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1890년 장성 백양사 운문암의 환응 스님에게 4교 사사.
1892년 순천 선암사서 대선법계 품수.
1895년 순천 선암사서 중덕법계 품수.
1896년 장성 백양사서 대덕법계 품수.
1908년 만해, 금파스님과 불교개혁 유신 관련 토론.
1910년 만해 스님 등과 이회광의 매종행위 저지 위해 임제종 발기.
1911년 순천 송광사 승려대회서 임제종 탄생
1913년 월간 해동불교 창간
1915년 장성 백양사서 대교사법계 품수.
1919년 이종욱과 함께 인천 만국공원서 개최된 국민대회 불교계 대표로 참석, 한성임시정부 발족에 참여.
1921년 불교유신회 의장 선임.
1929년 조선불교승려대회서 교정(敎正)으로 선임.
1932년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 전신) 교장 선임.
1945년 총독부 사찰령과 조계종총본사태고사법 등 폐지에 적극 가담.
1946년 기미독립선언기념전국대회준비위 부회장 선임.
1948년 정읍 내장사서 세수 79세, 법랍 61세로 입적.



10월 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석전 박한영 축전 개막식에서 송광사를 비롯한 각 사찰 합창단이 연합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석전 스님 헌가와 헌시 등이 선보였다.



500여 대중이 스님의 원력을 잇기를 기원했다.



8일 동국대 도서관서 열린 유품전 테이프커팅



석전 스님 유품중 시화서책

근대 불교 최고 지성…석전 스님 선양 시작되다

"밝게 스며드는 죽음을 알게되면 늙는 것도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네. 죽음을 알고나면 지혜롭게 사는 일만 오롯이 남아 오히려 조용하게 태평한 시간을 보낼수 있나니"

- 석전 박한영 스님이 육당 최남선에게 한 법문 일부

동국대 10월 8일 석전 축전 개막…19일까지 유품전시전 등 개최
개막식에서 헌가, 헌시 등 500여 대중 원력 따르길 기원

개화기 한국불교계 최고 지도자였던 석전 박한영(石顚 朴漢永; 1870~1948, 법명 정호) 스님을 선양하는 '석전 박한영 축전'이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동국대 본관을 비롯한 교내 일대에서 열렸다.

석전 스님은 일제 시대와 해방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조선불교교정(현 종정) 역임한 당대 최고의 불교계 지도자다.

또 동국대 전신인 불교고등강숙 숙사, 중앙학림 및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석전 스님의 제자로는 통합종단 제2대 종정인 청담 스님과 운허 · 운기 · 운성 · 청우 · 남곡 · 서경보 스님을 비롯해 신석정 · 서정주 · 조지훈 등이 있고, 위당 정인보,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벽초 홍명희 등이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육당 최남선은 존경하고 흠모하는 석전 스님의 칠순을 기념해 출판한 〈석전시초〉(1940)를 통해, 석전 스님이 지은 420여 수의 한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10월 8일에는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 축전은 석전 박한영의 시문학 강연회 · 시문학 연구 학술대회를 비롯해 중앙도서관 유품전시전 개막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개막식에서는 각계의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졌다. 불교성악가 모임 LMB 싱어즈는 스님을 기리는 노래 '아 석전 큰스님'을 발표해 좌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아, 석전 큰스님'은 홍신선 동국대 교수가 작사, '그리운 금강산'으로 유명한 최영섭 씨가 작곡한 곡이다.

이어 내장사 벽력암 회주 대우 스님의 헌시 '등불로 살아있는 석전 스님' 낭독이 이어졌다. 석전 박한영 축전공동위원장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영재교육을 통한 불교개혁과 민족갱생에 혼신의 힘을 바쳤던 선지식"이라고 스님을 평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밀운 스님은 "석전 스님은 불교계 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 근대 고승이었다"며 "동국대에 스님을 기리는 문구 하나 없음은 스님의 위대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행사가 스님을 바로 알리고 바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과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같은날 동국대 도서관에서 열린 유품 전시전에는 문사철에 모두 능했던 석전 스님의 다양한 저술활동을 비롯해, 스님이 남긴 한시 등이 선보였다. 전시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스님의 유품을 보며 스님의 애국혼과 교육열을 느꼈다.

이날 전시전을 참관한 김동수 학생(24)은 "동국대에 만해 스님 관련 시설은 많아 만해 스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석전 스님과 관련된 시설과 행사가 없어 스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번 기회로 스님에 대해 알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육 · 독립운동 등 선교 겸비한 선지식"
학술세미나서 석전 스님의 불교개혁가 모습 조명

"교육을 진흥시키면 마땅히 불도(佛道)를 이루리라"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미래를 준비했던 석전 스님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구도자로서 법통 등을 밝히는데 치우쳐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600여 수가 넘는 한시를 남길 정도로 뛰어났던 시승으로의 면모와 함께 불교언론인, 개혁가로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자리가 마련돼 대중의 관심을 하나로 모았다.

홍신선 前 동국대 교수는 '석전스님의 인물과 사상' 발표를 통해 석전 스님의 면모는 세가지 측면에서 위상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불교유신운동가로서의 면모, 특히 잡지 발행과 경전 간행에 남달리 신경 썼던 부분과 함께 불교교육의 선구자로서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 교수는 "불교유신운동가로 일본 조동종과 합종운동에 대해 임제종 운동으로 맞서는 한편 사원에 사장된 경전을 인간토록 했으며 근대 서구학리 수용을 통해 불교개혁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스님이 전개한 〈조선불교월보〉 등 잡지발행은 당시 한국불교의 중요한 대중화 사업이었다"며 "문학에도 힘을 써 조종현, 서정주, 조지훈 등 불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제자들을 배출해냈다"고 말했다.

김상일 동국대 국문학과 교수는 이날 석전 스님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석전 스님이 그동안 한성임시정부의 13도 대표를 지낸 독립운동가로만 알려져 있는데 미국교민기관지인 신한민보 등에 따르면 1919년 한성임시정부 제2차 내각 및 상의원 조직 등에서 독립선언서를 공포하고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한성임시정부에 석전 스님의 이름이 명시돼 있을 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며 "지암 스님이 한성임시정부에서 실질적인 산파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석전 스님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도 있는 대목으로 최고의 지성인이자 해방될 때까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민족지사로서 스님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와 이병주 前 동국대 교수는 스님의 선시일여한 삶과 그로 인한 기행시 부분의 창작 등을 대중에 소개했다.

"석전 스님에게서 불교 미래 읽어"
석전 박한영 축전 집행위원장 선일 스님



석전 박한영 축전 집행위원장을 맡은 선일 스님은 이번 석전 축전을 통해 석전 스님의 큰 뜻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을 밝혔다.

선일 스님은 "오늘날 석전 스님의 계율 의식과 학문에 대한 앞선 생각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강화와 위상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일 스님이 석전 스님 선양사업에 나서게 된 것은 1976년 선일 스님이 고창 선운사로 출가하면서 부터였다.

스님은 당시 은사 운기 스님으로부터 '출가자라면 마땅히 석전 스님의 행리를 닮아야 한다'고 들으며 수학했다. 운기 스님은 석전 스님의 법제자로 선일 스님은 석전 스님의 손상좌 뻘이다.

스님은 "처음 강연회만 개최하려 했는데 고창 선운사와 군산 동국사, 그리고 동국대 도서관 등이 '소장자료를 제공해 유품전을 열겠다'고 하는 등 참여의사를 밝혀와 축전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동안 석전 스님에 대한 조명이 없었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지내셨지만 만해 스님에 비해 동국대 내에서도 관심이 부족했다"며 "동국대에서 여러 기관이 함께 축전을 연 만큼 향후 근대 최고 고승으로서 스님의 면모를 살펴 불교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가 지속마련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석전 박한영 축전위원회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 고 문 : 월운. 밀운. 혜성. 현성. 암도. 혜산. 재곤. 혜남

■ 자 문 위 원 : 동광. 일면. 지선. 보선. 대우. 법현. 법철. 범여. 철산. 동명

■ 공동위원장 : 동국대학교 정각원. 봉선사. 선운사. 도선사. 대흥사. 백양사 각 주지스님

■ 집행위원장 : 선일

■ 축 전 위 원 : 선운사. 봉선사. 백양사. 대흥사 각 말사 주지스님

혼돈의 역사속에서 고고히 한민족의
정신과 불교를 지키며 살아오셨던
우리의 석전정호 큰스님을 기리기 위한 '석전 박한영 축전'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석전스님 유품전 (10월 19일까지)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시실

석전 박한영 축전위원회 02)764-1380 E-mail : iambuddha@hanmail.net


서예전 입재식에서 테이프커팅 장면.


덕암 스님 사리를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덕암 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스님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마련됐다. 사진은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사진 왼쪽)과 문도회장 도학 혜일스님 등이 유물전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덕암당 흥덕 대종사는

1930년 금강산 유점사서 최벽산 화상을 은사로 득도
유점사서 박운암 화상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35년 일본 동경 대성학교 졸업
1942년 철원 심원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1949년 불교신문 총무국장 취임
금강산 유점사에서 대교사 법계품수
1950년 (재)동국학원 감사 취임
1951년 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취임
1954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취임
1964년 조계종 종정 사서 취임
1968년 아차산 영화사 주지 취임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취임
1974년 한국불교태고종 종승위원장 취임
1975년 한국불교태고종 교육원장 취임
한·중 불교교류협의회 회장 취임
1978년 대륜화상문도회 회장 취임
1983년 대륜문도회 총재 취임
1984년 불교통신대학 학장 취임
1986년 한국불교태고종 제 13세 종정 취임
1995년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1996년 태고총림방장 취임
1997년 한국불교금강선원 총재
1998년 한국불교태고종 제 16세 종정 취임
2003년 불이성 법륜사서 세수 91세, 법랍 76세로 입적

태고종 기틀 다진 덕암 스님 향훈 기려

"내가 법계를 살펴니
본래 성품이 없으매
생사와 열반 또한 모양 없도다.
만일 내게 오고감을 묻는다면
구름 흩어져 붉은 해가 서천을
비춘다 하리" (열반송)

10월 8일부터 12일까지…덕암 스님 탄생 1백주년 맞아 행사 다양
유품전, 사진전, 서예전, 학술 세미나, 보살계, 다례재 등 열려

태고종 종정을 지낸 덕암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첫날인 10월 8일 오전 10시에는 태고종 총무원과 덕암 큰스님탄신 100주년기념대법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서울 불이성법륜사 3층 대불보전에서 추모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총무원장 인공스님, 기념사업회장 도학 혜일 스님 등 종단 주요스님들과 신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입재식은 불교의식, 행장 소개, 덕암 스님 상좌들의 인사말과 추모사, 육성 법문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덕암 큰스님은 태고종을 넘어 한국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으로 근대 선지식 중 한 분으로 인정받으셨다"며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종단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는 역시 3층 대불보전에서 서예가 양상철 선생의 서예초대전이 개막됐다. '선사의 향기'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8m 금강경 10폭 병풍과 초서 반야심경 병풍, '나무아미타불' '관음' '대광명' 등 50여점이 선보였다.

한국서가협회초대작가인 양상철 작가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2005년부터 6년에 걸쳐 4회씩이나 초대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온 누리에 벽이 없고/사면에는 문이 없네/부처와 조사 조차도 올 수 없는 곳/흰 구름에 누워 한가로이 잠이나 자리"를 내용으로 하는 '證庵(증암)'은 초서 특유의 휘갈리는 맛을 잘 살려 한지위에 옮겼다. 정배열로 가지런히 꼼꼼하게 금강경을 사경한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을 보면 수행자가 쓴 것처럼 꼿꼿한 기상을 느끼게 해준다.

'無枝無葉樹(무지무엽수)'로 시작되는 '古林(고림)'에서는 큼직큼직하게 쓴 글씨 사이로 작가의 큰 기개를 엿볼 수 있다.

양상철 작가도 "한획 한획 종이위에 일필휘지로 펼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작업했다"고 그간 작품 준비하며 겪은 고된 과정의 소회를 털어놨다.

이어 추모행사는 △8일 학술세미나 △10~11일 보살계 수계 법회 및 법맥 전수식 △12일 다례재·회향법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기념사업회는 추모행사기간 한국불교문화전승관내에서 덕암 스님 행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사진전 '덕암큰스님의 발자취'와 스님의 사리 및 가사와 평소 사용하던 지필묵 및 경전과 고서 등 50여 유품을 친견할 수 있는 전시회도 8일부터 12일까지 마련했다.

전시회에서 만난 정영숙 보살(63)은 "스님의 손때가 묻은 유물들을 눈으로 직접 보며 스님이 살아생전 강조하셨던 화합과 원융의 정신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였다"고 환희심에 찬 얼굴로 말했다.

글=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매년 스님 조명하는 학술세미나 열겠다"

덕암 큰스님 탄신 1백주년 기념사업회장 도학 혜일 스님



"덕암 스님은 불이성 법륜사에 주석하시며 태고종 창종과 총무원장, 종정 등을 지내면서 법륜사 터까지 넓히신 태고종의 정신적 스승이십니다. 올해 탄생 1백주년을 맞아 스님의 유훈을 되새기기 위해 사진전, 유물전, 서예전, 세미나 등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특히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조명할 수 있는 학술 세미나는 태고보우국사 관련 세미나와 함께 매년 열 예정입니다."

덕암 스님 추모행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도학 혜일 스님(법륜사 주지)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현재 50명 정도가 문도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도학 혜일 스님은 "현재 문화전승관이 위치한 불이성 법륜사는 덕암 스님이 중창한 유서 깊은 사찰임에도 스님의 발자취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법륜사의 발전을 통해 덕암 스님의 숨은 노력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덕암 스님은 살아생전에 매년 생신날 건당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법맥 전수를 빼놓지 않으셨다"며 "이를 기리기 위해 이번에 전통방식으로 법맥 전수식도 열게 됐다"고 말했다.

도학 혜일 스님은 현재 (사)대륜문화연구원 이사장과 덕암화상문도회 회장, 서울 법륜사 주지, 제주 정방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김주일 기자

"덕암 스님 주창 사상 큰 틀은 원융과 보살"

학술세미나 통해 덕암 스님 생애와 업적 조명

"덕암 스님(1913~2003) 사상의 핵심은 대승불교를 바탕으로 한 원융사상이다. 스님은 이를 실천해 보이고자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했고, 태고 보우국사의 원융사상을 현대불교에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덕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생애와 업적 사상 등이 학술적으로 조명된 세미나에서 도학 혜일 스님은 이같이 덕암 스님을 평했다.

10월 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서 열린 세미나서 도학 혜일 스님은 '덕암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덕암 스님은 한국불교의 아픈 역사인 분규를 겪으면서 당시 승려들 가운데 90%가 취처인 상태였기에 이들을 배척하면 불교 기반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 먹고 대처승 편에 서서 대륜 스님과 함께 태고종을 창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학 혜일 스님은 "이런 상황에서 덕암 큰 스님은 승려들의 현대적 교육이 필요하며, 현실에 맞는 포교를 해야한다는 사상과 이념으로 생활했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덕암대종사의 교화이념과 전법활동'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수암 스님(동방불교대학부학장)은 "덕암 스님이 주장하는 사상의 골격은 크게 원융불교와 보살 사상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모든 종파를 초월해 다같이 한마음으로 불국토를 이룩하자는 것, 이것이 분열과 갈등과 나눔에서 하나로 가는 원융불교사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암 스님은 "덕암 스님은 법륜사 조실을 역임하며 인근대지 3필지(238평)을 매입해 법륜사 대지(202평)와 합병시킴으로써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의 초석을 만들었다"며 "이외에도 가람중수사업 도제육성 교화 및 자선 사업 등으로 평생동안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힘쓰셨다"고 밝혔다.

법산 스님(前 동국대 불교대학원장·현 동방대학원대학 석좌교수)은 이날 세미나의 총평을 통해 "덕암 스님은 태고종 창종 1세대로서 대륜대종사의 문하에서 일생동안 하신 그 많은 일들이 화쟁원융과 대승보살도가 어떤 것인가를 온 몸으로 보여준 '말없는 법문'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수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원력이며 그것은 반드시 중생계를 향해야 한다는 것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고 평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18주년 을 축하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불교태고종 종정을 역임하신 불이성 법륜사 중창주
덕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법회가 원만히 회향될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스님 및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덕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앞으로 불교홍포와
종단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덕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사업 회장
불이성 법륜사 주지 도학 혜일 합장



◇ 휴휴암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은 손에 항상 책을 안고 다니시는데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위 없는 지혜를 갖추게 해주시는 지혜관세음보살님 입니다. 돌 성벽에 가족이름 새기실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 휴휴암 묘적전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이 화목합니다

휴휴암을 창건한지 5년 후 무지개가 자주 뜬 자리에 27m관세음보살님 형상의 바위가 누운채로 나투어 쉬고 계시는 휴휴암에 또다시 기이한 현상으로 바다 연화법당 고기바위 주변에는 수 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새까맣게 몰려와 지느러미가 물 밖으로 나와 있어도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갈매기들이 잡아먹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신비함을 더 해줍니다.

휴휴암에서는 사찰을 창건 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 국내 유일한 다라니기도 도량입니다.

휴휴암을 창건한 홍법스님은 어려서부터 관세음보살님을 좋아하여 보살님이 외우고 계시는 신묘한 신통력이 나온다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백만 독 기도를 드렸고 지금은 천만 독 원을 세우고 기도 드리고 있는 휴휴암에서 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법스님은 다라니에 나오는 화천수 불보살세계를 고려불화로 그려 굴법당에 모시고 다라니를 모르고 기도드리는 불자들을 위해 다라니 해설집을 편찬하여 전국에 다라니기도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스님은 천상세계의 환희지에 머물러 진언을 외울 때는 대장군의 힘이 생기고 온몸에 경련이 자주 일어나더니 다라니 위신력으로 수많은 천신들도 보이고 외롭고 힘든 중음신들도 보여서 매년 9월 관음재일 날 수륙영가 천도재를 지내는데 나로 인해 다치고 고통 받다가 죽어간 사람이나 축생 미물들까지도 위패를 올리고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슬픔을 달래주고 그 한 맺힌 원결을 풀어주어 좋은 몸 받아서 좋은 세상에 가시라고 수륙영가천도재를 지내 주었더니 바다고기들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연화법당 고기바위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 매년 음력 9월 관음재일날 수륙영가 천도재 봉행



◇ 화천수 불보살 세계를 고려 불화로 그려 모신 다라니 굴법당

스님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드릴 때 약왕보살님과 약상보살님 대목을 외울 때는 그 분들이 오랜 전생에 수행자들에게 의약품을 전해주고 많은 병자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살행이 현실처럼 스쳐 지나가고 약사여래 부처님께 기도 드리고 몸을 어루만질 때는 부처님의 신통력이 스님의 몸속으로 전율처럼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더니 신묘하게도 약손이 되어 버린 스님이 수많은 병고로 고통 받는 모든 불자님들에게 알립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드리고 신묘한 약손이 되어버린 스님

머리에 열이나고 아파서 잠을 못 자는 분, 목이 아프고 손이 저리고 팔이 쑤시고 어깨통증으로 고생하는 분, 가슴이 조여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게 사는 분, 허리디스크로 오랫동안 고통 받는 분,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분, 발바닥 손바닥이 쑤시고 아파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 배가 차고 복부통증과 만성 소화 불량으로 오랫동안



◇휴휴암 홍법스님이 편찬한 "신묘장구대다라니 해설집"은 휴휴암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값 15,000원

고통 받는 분, 손발이 차고 시리고 힘이 없고 추위를 심하게 타는 냉증 있는 분, 병원에서 하지정맥 수술을 받았어도 발이 저리고 마비가 자주 오는 분이나 기도할 때 108배만 해도 다리가 아프고 참선할 때 발이 유난히 저려서 화두 집중도 안되고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분, 갑자기 눈이 안보여서 안과 수술을 하고 약을 먹어도 시리고 잘 보이지 않는 분, 어린아이나 어른들이 만성 피부건성과 아토피 가려움증으로 병원에서 치료하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 몸이 가렵고 조금만 긁어도 피가 나고 깜짝 놀라거나 슬쩍 건드려도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분, 주부습진이나 발가락 무좀으로 약을 바르고 약을 먹어도 가려워서 힘든분, 밥 먹을 때나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유난히 많이 흘리는 분, 머리카락이 빠지고 원형탈모가 갑자기 생기거나 흰 머리가 많이 생겨서 병원 약을 먹고 발라도 효과가 없는 분, 감기나 기침을 오래도록 심하게 하여 병원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분들도 기혈을 돌려 열을 빼주면 감기와 기침 따위는 바로 사라집니다.

아이들도 몸 어딘가가 조금이라도 비뚤어 있거나 혈액순환이 안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공부할 때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선생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고 딴 짓을 하므로 치유하고 교정을 해 주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구부러지고 마디가 굵어져서 병원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는분, 난치병으로 오래도록 고생하고 풍토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병자들을 수많은 병원에서 한방에서 침, 뜸, 부항, 약으로도 고치지 못

일평생동안 아파서 고통 받는 분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더니 일어나서 춤을 추고 고맙다고 소리내어 우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고 고생하는 분들이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허리협착증 수술을 받으라고 사진을 보여주고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나이 드신 분이 병원에 가면 무릎에 연골이 없다고 한다는데 스님이 본 병자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무릎 연골이 없거나 허리 협착증일 수도 있으나 99%는 협착증이나 연골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상담 후 스님의 민간요법으로 빠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치유를 받으면 몸이 날아갈듯이 좋아져서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즐거워들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병들을 현대의학에서도 쉽게 고치지 못했던 병들을 휴휴암에서 치유받고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졌다 하니 설마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번만 받아도 그 자리에서 효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치유를 받으면 경직된 근육이 풀리고 막혀 있는 혈관을 원활하게 풀어주어 혈액순환이 잘 되어 아픈 통증도 사라지고 온 몸이 따뜻해져서 몸이 부드럽고 얼굴빛이 화사하게 밝아 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유가 끝나면 몸에 막힌 기혈이 풀리는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 아픈 부위가 피멍이 드는데 보기와는 달리 아프지 않으며 아픈 부위가 시원함을 느끼고 나이에 따라 7일 정도 지나면 멍이 없어지고 약을 먹거나 바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풀리고 나이가 많은 분은 더 오래 갈 수도 있으며 아픈 부위에 따라 옷을 걷어 올리거나 벗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본인과 직계가족의 동의가 없이는 치유하지 않습니다. 치유가 끝나면 스님의 지시를 따라 주어야 회복이 빠릅니다.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고혈압 환자는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만한 보호자가 있다면 치유 할 수도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병약한 분들의 병을 치유하는 입장에서 혹여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이해를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직계가족 동의서가 있어야 치유 해 드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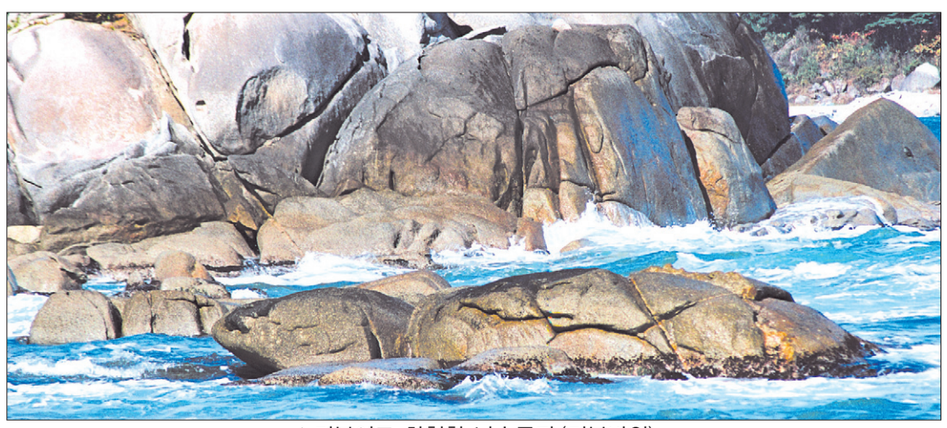
스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일평생동안 아파서 고통 받는 분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더니 무거운 몸이 가벼워져서 움직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서 좋다고 일어나서 절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엎드려서 한없이 소리 내어 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라니 위신력을 받아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을 병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타법, 교정법, 요법 중에 두 가지는 어려워서 아무나 배울 수 없고 신심 깊은 불자에 한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쉽게 배울 수 있는 타법만이라도 전수 해 주어 사찰이나 가정에서도 본인의 몸은 물론 가족들의 아픈 몸을 치유하여 불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휴암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 종무소 033)671-0093,0094,0095



◇휴휴암 앞바다에 누워계신 해중관세음보살님(길이 27M)



◇거북이로 화현한 남순동자(거북바위)

선과 뇌 -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아리타 히데호(日 동방대 생리학 교수) · 겐유 소큐(日 복취사 부주지)

〈3〉 뇌 구조의 불가사의

'뇌와 선'의 관계는 뇌간에서 이뤄진다

뇌 속의 음양

아리타: 뇌와 선의 관계는 뇌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겐유: 뇌간은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되고 깊은 곳입니다. 그곳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의식도 버리고 뭔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지금까지 지적 분별로 이루어진 생활을 버리는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대뇌피질의 좌우뇌라는 관점에서 보면 좌뇌는 분별이고 이성이고 양입니다. 분별하고 나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뇌의 경우는 사물 전체를 그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감싸 안는 기능이 우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음입니다.

음양의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세계는 너무 양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약하게 해서 바보처럼 만들지 않으면 음이 충실해질 수 없습니다. 뇌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명상·좌선은 음입니다.

아리타: 음에 해당하는 영역은 아마도 뇌의 아래에 있는 대뇌변연계에서 뇌간에 이르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뿌리에 해당하는 것은 뇌간입니다. 그래서 음은 뇌간이 담당한다고 이해하면 스님이 말씀하신 게 잘 이해됩니다.

우리가 호흡법을 할 때 '빠른 알파파'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뇌에도 좌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좌우뇌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뇌간이라는 아주 원시적이고 강인한 뭔가가 아래에서 위의 영역을 억제하고 바보스럽게 만든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뇌간이 대뇌피질을 솜씨 좋게 조절하고, 그것이 신경회로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 역점을 둡니다.

겐유: 뇌간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몸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데, 좌선이나 명상은 몸으로가 아니라 의식만으로 뇌간부에 연결돼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리타: 몸의 측면에서 뇌간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간부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대뇌를 모두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대뇌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에 의식을 집중시키고, 이성이나 언어로 작동하는 뇌를 가능한 한 무시하고 의식 밖에 두는 것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과 공황장애

아리타: 뇌간에는 세로토닌 신경을 포함해서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이 네 가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르아드레날린(noradrenaline)입니다. 이것 역시 대뇌피질, 대뇌변연계, 시상하부, 뇌간 자신, 소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기능입니다. 각성의 측면에서 보면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은 스트레스에 대해 각성 반응을 야기 합니다. 몸 밖의 스트레스뿐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반응합니다.

몸 안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쇼크를 받아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혈당치가 내려간다든지, 질식하여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생체 내부에 위기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이 반응합니다. 동시에 대뇌피질에 '지금 위험해'라는, 즉 지금 몸에 아주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보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각성 수준은 확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압과 혈당은 상승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반응이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을 매개로 해서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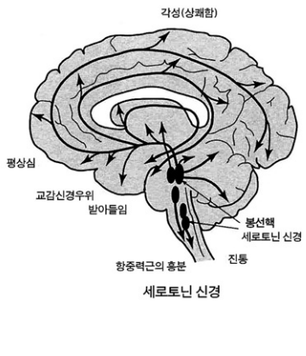
겐유: 따라서 호흡도 변화가 일어나는 법이지요?

아리타: 공황(恐慌)은 이런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공황장애(panic disorder)에서 사실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공황이란 외부의 원인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호흡이 변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의식수준이 더욱 각성됩니다. 공황장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가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 아주 대단한 것같이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불안하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공황 상태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증상은 질식감입니다. 자신이 질식돼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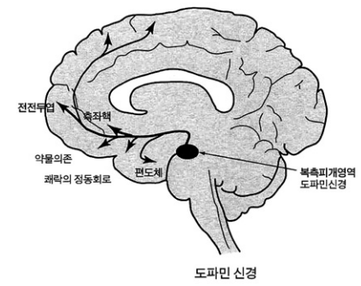
겐유: 스트레스로 인해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이 활성화돼 호흡이 변한다고 할 때 그 호흡은 흉식호흡입니다. 예를 들면 고릴라는 적이 다가오면 자신의 가슴을 팽창시키고 호흡합니다.

흉식호흡은 결국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지면 공황에 빠지지 않겠지요. 스트레스의 호흡은 흉식호흡이고, 이때 뇌 기능은 이지적 분석으로 됩니다. 만약 흉부가 나름대로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면서 반응할 수 있다면 공황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리타: 공황은 호흡의 문제가 아니라 질식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뇌에서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는 호흡이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호흡이 곤란하다는 공포감이 대뇌변연계와 대뇌피질에서 일어납니다. 공황장애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가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공황에 빠진 그때 '자신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괴롭다'고 느끼지만 사실 호흡 자체는 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세로토닌 신경



도파민 신경

뇌간은 '陰' 영역, 무의식 자리
흉식 호흡 때 뇌기능은 이지적
'숨죽인 상태'서 '숨돌린 상태'로
호흡 의식적으로 변화시켜야

우울증과 약물의 관계

겐유: 공황장애의 치료에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타: 예.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세로토닌의 재흡수 저해제)도 처방합니다. SSRI가 세로토닌 신경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에는 세로토닌 신경의 활동이 약해져 있습니다. 세로토닌 신경에서 발생하는 임펄스(자극)의 빈도가 감소해 있고, 정보 전달로 사용되는 세로토닌이 충분히 방출되지 않습니다.

SSRI는 신경 말단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이 재흡수 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 신경의 활동이 떨어져 있으므로 세로토닌의 분비량도 적습니다. 치료에 SSRI를 사용하면 신경 말단의 재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적게 분비되는 세로토닌 양을 대신하게 됩니다. SSRI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신경말단의 세로토닌 양이 유지되지만 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SSRI가 작용하는 중요한 부위가 세로토닌 신경 자체입니다. 세로토닌 신경 자체에도 세로토닌 신경은 피드백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억제 기능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의 활동이 활발해 세로토닌 분비가 넘쳐나면 이 자기 수용체가 발동해 세로토닌 신경의 임펄스가 감소됩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지 않게끔 피드백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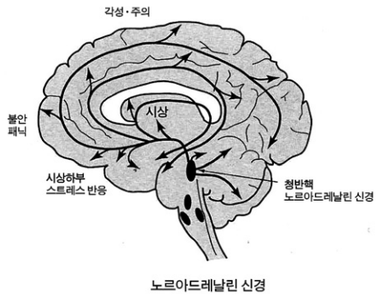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세로토닌 분비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자기 억제 수용체의 수가 보통 사람보다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SRI를 복용하면 자기 억제의 기능이 더욱 강화돼 세로토닌 신경의 활동을 더욱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이것이 약물 복용의 초기에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SSRI를 계속해서 복용하면 점차로 증상은 개선됩니다. 자기 수용체의 수가 점차로 감소되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는 자기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와 관련돼 있습니다. 즉, SSRI를 계속 사용하면 자기 수용체로 자극이 반복해 갑니다. 그 반복된 자극이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자기 수용체를 만들지 않게 합니다. 점차로 자기 수용체의 수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자기 억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세로토닌 신경의 활동이 회복돼 갑니다.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보다 세로토닌 분비가 높은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회복과정입니다.

문제는 우울증의 회복단계에서 흔히 자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 초기 사용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위기 상황이 올 뿐만 아니라 약물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더구나 증상이 호전됐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약물 사용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여길 정도로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SSRI를 감기약처럼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 신경

호흡이 변하면 마음도 변한다

아리타: 공황장애의 치료에서 들숨을 줄이고 날숨으로 변화시키면 다소 마음 상태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호흡이 되면 호흡이 빨라지는 것 외에도 체내의 탄산가스가 줄어듭니다. 과호흡을 하면 신체의 '호메오스테시스(Homeostasi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산가스가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탄산가스와 신체의 ph(산의 정도를 표현하는 단위)는 연관돼 있어서 탄산가스가 변하면 ph가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 심장, 근육 등에 있는 세포의 움직임이 아주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호흡을 하면 혈액 내의 성분이 바뀌고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탄산가스가 적어지면 체내의 ph가 변하고, 그 결과 뇌도 근육도 심장의 움직임도 아주 불안정하게 됩니다. 뇌의 움직임이 불안정하면 히스테리같이 흥분하게 되고 근육의 경우도 잘못하면 경직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탄산가스의 자동 제어는 뇌간 중에서도 연수라는 부위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불안정하게 돼 상위 뇌에서 과호흡의 명령이 계속 나오면 자동 제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와 근육과 몸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숨을 멈추는 현대의 삶이 큰 문제

겐유: 유아기의 호흡은 소위 흉식호흡, 상부복식호흡, 그리고 하부복식호흡이 서로 교대로 물결치듯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은 이 세 가지 호흡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아 때의 자유스럽던 호흡이 성장하면서 없어지게 되지요.

이것이 저는 언어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언어를 잘 사용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상실되는 능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기초적이지만 호흡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아의 호흡을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선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타: 우리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이고 하게 됩니다. 숨을 죽인다는 것은 자율 기능을, 요컨대 어린 아기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호흡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억제된 것이지요.

바늘에 실을 꿸 때 자연히 숨을 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일을 할 때 대체로 숨을 죽입니다. '숨을 돌리는' 것은 숨을 죽인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적거나 많거나 의식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사실 숨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호흡이 억제되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대생활에는 숨을 죽이고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울증의 증가, 비행 청소년의 문제, 더구나 공황장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숨을 죽이는 생활을 계속할 수 밖에 없어서 호흡이 무의식적으로 변하는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선을 위해서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쾌락과 도파민 신경

아리타: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대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도파민 신경에 장애가 발생하면 보행이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는 파킨슨병에 걸립니다. 이 병에 관여하는 도파민 신경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 마음의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도파민 신경도 있습니다. 도파민 신경경로가 자극을 받으면 자기 자극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도파민 신경계의 생물학적 의의는 우리가 생활에서 느껴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의존하는 것입니다. 섭식 장애, 약물의존, 알코올 중독 같은 것입니다. 여하간 도파민 신경은 마음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억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세로토닌 신경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에도 세로토닌 신경이 제어를 걸어줍니다. 쾌와 불쾌를 조절할 수 있는 세로토닌 신경계가 뇌간부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운주사에서 펴낸 〈선과 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승광불교미술원



◉ 불상 : 원형조각, 전문 동불 특수불 각종불상
◉ 개금 : 벗겨지지 않는 순금개금 개발
◉ 개채 : 석채 및 유미라이트, 각종안료, 개채
◉ 탱화 :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 선택 (먹탱화, 홍탱화, 채색)
◉ 현재 : 종종사 이사. 범종불사
◉ 불사 상담 ◉ 불교용품점 운영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8 031)591-7478
원 장 011-226-5336 공방장 010-3179-6561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NAVER 영일상사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佛器)
아주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제품질 시스템 ISO 9002 규격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인증번호 AC-01808)

중량 525g, 유효기간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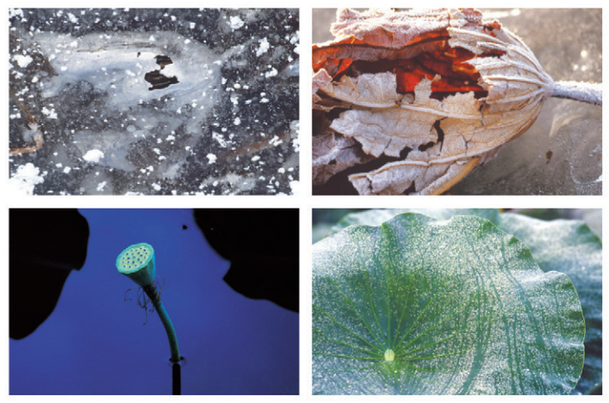
※본 제품은 10년간 사용해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농협 312-0029-1189-81(예금주 : 고태용)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영 일 상 사



봄 여름 가을 겨울, 깨끗함의 상징 蓮

싹을 틔우는 연잎, 빗물 머금은 연꽃, 눈과 얼음 속 꽃과 잎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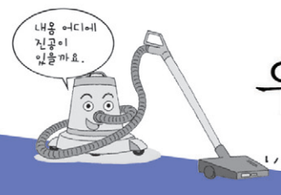
365일 하루하루, 그리고 두 해를 한결같이 연꽃과 함께 해온
윤명숙 작가의 색다르면서도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사진!
2013년 달력 '연(蓮)'으로 1년 365일 청정하고도 맑은 기운을 만나보십시오.



다량 주문은 다음과 같은 할인혜택과 함께 달력 하단에 사찰 및 단체의 홍보 문구를 인쇄(먹1도 인쇄)하여 드립니다.

부수 \ 2013년 달력명	연(蓮)	연(미니)
100부 이상	2,200원	1,000원
500부 이상	2,100원	900원
1,000부 이상	2,000원	2,000부 이상 800원
3,000부 이상	1,900원	
5,000부 이상	1,800원	700원

주문 및 상담
월간 불광·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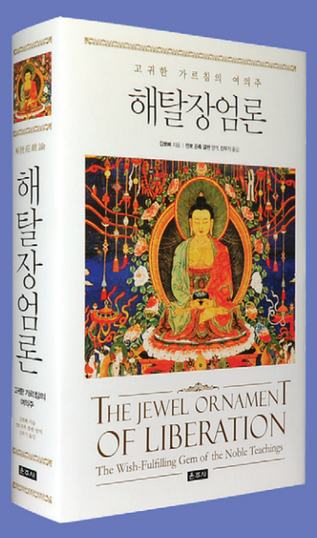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아하, 이것도 불교용어?
식당, 진공, 현관, 망상, 천당 등 일상화된 불교용어들의 유래와 현대적 쓰임새를 삽화와 함께 재미있게 서술.



선물용 법공양용으로 절찬리 판매중

해탈장엄론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감뽀빠 저
진우기 역
신국판 양장/628쪽
28,000원

불교공부사전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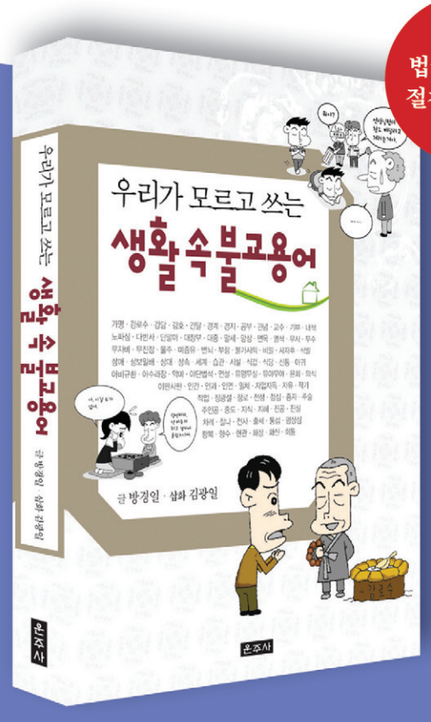


곽철환 편저
국판 양장/404쪽
20,000원

선과 뇌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아리타 히데호
겐유 소큐 공저
이성동 옮김
국판/252쪽
13,800원



방경일 글
김광일 삽화
국판변형/256쪽
10,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현우경' 이야기(42)

대시의 깨달음 ㊥

바닷 속 보물찾으러 5백 보석상과 길떠나다

대시의 여행은 계속 된다. 그는 가축을 도살해 고기를 파는 백정, 들짐승들을 함부로 죽여 돈을 버는 사냥꾼, 물고기들을 잡는 어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들의 공통점은 살생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시는 그들의 삶을 살피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저 중생들은 생계를 위해 중생을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 저들은 죽은 뒤에는 반드시 세 갈래 나쁜 세계에 떨어져 어둠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대시는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팠다. 중생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고민 끝에 집으로 돌아가 도움을 청하고자 결심을 하게 된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이 그저 반갑기만 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찌 얼굴이 이리 수척한 것이냐?" "아버지 제게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소원이라니?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내가 너를 위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저는 밖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 몸과 마음이 고달프게 노동할뿐 아니라 생명 가진 것들을 죽이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원컨대 큰 창고를 열어 주신다면 제가 그들을 위해 베풀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싶습니다"

"네 뜻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가 재물을 모은 것은 모두 너를 위해서다.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하겠느냐. 내 창고를 열어 줄테니 마음껏 써 보거라"

대시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전국에 방을 붙여 모든 백성들에게 알렸다.

"지금 내 아들 대시가 큰 보시를 하려 한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모두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방을 붙이자 사문과 바라문과 빈궁한 이, 빚진 이, 외로운 이, 병든 이 모두가 대시의 집앞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대시는 옷이 필요한 자에게는 옷을 주고



삽화 · 강병호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주었고 병이 든 자에게는 약을 주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쌓여있던 재물을 나누어주자 창고는 하루만에 텅텅 비어 버렸다. 하지만 아직 집앞에는 대시의 도움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작은 창고가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더 쓴다는 것은 무리였다. 대시는 고민했다.

"아들 된 도리로 부모의 창고를 모조리 비우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작은 창고에는 남은 물건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얻어 내 마음이 만족하도록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다. 사람들은 제 각각 자신의 식견대로 대답을 해주었다. 사업, 농장 경영, 장사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그리고 어떤 이는 바다에 들어가 보물을 찾아보라고 권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멀리 나가 장사를 하는 것은 내게 적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익을 얻는다 해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다에 들어가는 보물을 찾는 일은 해볼만하다. 나는 기어코 힘써 이 일을 성취하리라"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가서 말했다. "저는 지금 바다에 들어가 많은 보배를 구해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을 보시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원컨대 허락하셔서 제가 뜻한 바를 이루게 하소서"

대시의 부모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오갈 데 없는 절박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다. 어찌 목숨을 내놓고 그런 위험한 일을 하려 하느냐? 정말 보시를 하고 싶다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보시하여라. 제발 그 위험한 바다에는 가지 말거라. 아니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절대 바다에는 들어갈 수 없다"

부모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생 구제에 대한 원을 접을 수 없었다.

"만일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저는 이 땅에 엎드려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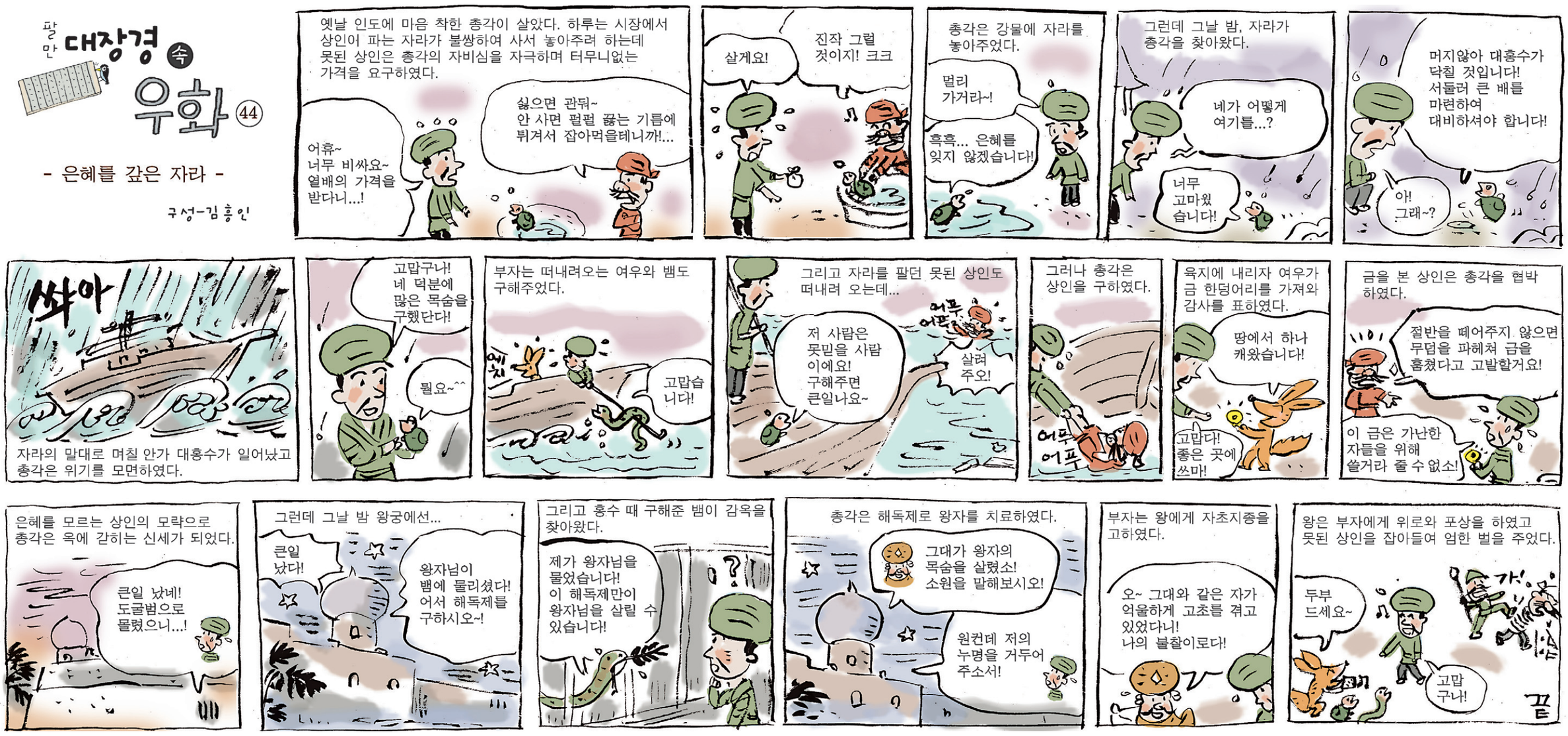
"그래 그럼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네가 절대로 바다에 들어가는 일만은 없도록 할 것이다"

이런 부모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시는 고집을 피웠고 몇날 며칠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부모는 가슴이 아팠지만 대시의 완고한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 정 네 뜻이 그러하다면 길을 떠나거라. 우리는 그저 네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할 것이다"

대시는 자신의 뜻을 두루 알려 누구든지 가고 싶은 이가 있다면 같이 가자고 했다. 그때에 보석상 오백 명이 대시와 함께 동행하기로 한다. 이제 대시는 부모님께 큰 절을 하고 오백명의 보석상과 바다로 향했다. 왕과 대신과 많은 백성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으며 제각기 값진 보물을 주어 그들을 격려했다. 〈다음 호에 계속〉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 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밤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부처님 나라 광덕사'

대웅전 낙성 및 삼존불 점안 대법회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사단법인'부처님 나라 광덕사' 가 대웅전을 중창하고 삼존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보시고 대웅전 낙성 및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대법회에 교계원로 대덕 큰스님과 내외귀빈을 모시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대웅전 낙성 및 삼존불 점안식 안내 ~

◉ **일 시** : 불기 2556년 10월 20일 토요일 (음 9월 6일)

낙성법회 오전 10시

삼존불 점안 대법회 오전 11시

『아미타불 부처님 보물 지정 예정』

◉ **장 소** : 광덕사 대웅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

◉ **전 화** : 041)583-1110

사단법인 부처님 나라 광덕사 주지 혜관 합장